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 중국을 주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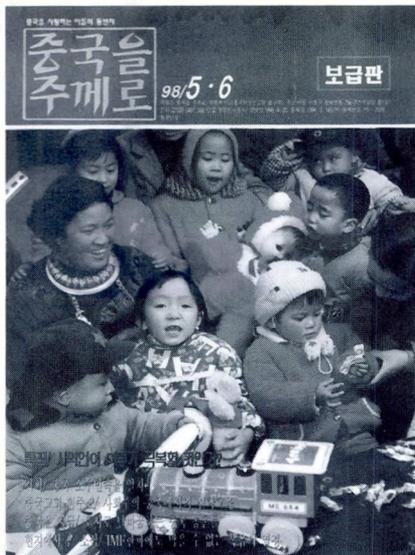
## 98/7·8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 시남(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02)533-5497, 592-0132 발행인, 이동화/ 발행일, 1998. 6. 20/ 등록일 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52호



### 특집/ 중국 「전인대」의 위상과 역할

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교회 현주소/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  
중국은 지금/ 실험대에 오른 마작 — 스포츠나 도박이다  
현지에서 온 소식/ 예수마을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으십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히시기 원합니다.**

희어진 밤,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악서 우리를 도와라'  
 중국교회의 헌신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 02)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요금이라 적어주십시오.)

# 나눔의 도

이동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 '이상하다, 동전 한 닢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비록 유년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지만 그 내용은 나눔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오천 명의 허기를 해결하고도 남았던 어린 아이의 호병이여가 그 좋은 예이며, 엘리야를 공계한 사르밧 여인의 밀가루 통과 기름 병 역시 나눔의 신비한 축복을 대변한다.

또 천국을 묘사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성도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이상하게도 지옥 역시 천국처럼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판이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반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채로 죽을 상을 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목이 긴 손가락에 있었다. 그것은 목이 너무 길어서 자기 입으로는 밥을 떠 넣을 수 없는 그런 손가락이었다. 천국에서는 그 손가락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면서 서로 떠 먹여 주고 있었으나, 지옥에서는 그것으로 자기 입에만 털어 넣으려고 하다가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천국에 관한 단편적 묘사이긴 하지만 '나눔의 도'를 실천하는 자만이 천국의 부요와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음을 잘 말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 부분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만, 우리 교회만 생각했다. 선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이기적 업적주의에 오염되어 있었다. 민족적으로도 이기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의 실상은 외면한 채 우리 자신만의 안일을 추구했다. 일년 전쯤 있었던, 한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 이상이 과중한 통일 비용을 이유로 통일에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나누는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어서 다행이다. 파송 교회가 선교사들을 돌아보고, 선교사들 사이에 어려움에 처한 동료 선교사를 돕는 일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만약 쓰고 남는 것으로 도우려 한다면, 아마도 영원히 돕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다.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며, '나눔의 도'가 바로 천국의 길이다. 비록 IMF사태라는 엄청난 수업을 지불하고 나서야 배우게 된 진리이지만, 이 고통이 21세기 한국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나눔의 도'가 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확산되길 기도한다.

## 특집 / 중국 『전인대』의 위상과 역할

8 제9차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이후의 중국향방 왕쓰웨이

14 중국의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 허홍호

18 주룽지와 중국의 경제 개혁 마민호

## 선교나침반

4 선교일언 첫 사랑을 회복하자 유관지

24 디아스포라 한국인 미려의 도시 산둥성의 칭다오(靑島) 김청도

28 중국교회 현주소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2) 주피득

34 선교전망대 단기 선교여행의 전략적 모델 :  
선교정탐 한수아

40 중국의 관문도시(3)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연구부

44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은혜

## 헌신의 삶

46 중국 교회 체험기(15) 마게도니아의 외침 전중인

49 현지에서 온 소식 예수마을 작은자

60 중국 성도 간증 고난을 통해 진리로 돌아감 원린(文林)

## 인물·역사

54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사(4) 토비(土匪)도 감동시킨 이대영 목사  
이대영 목사(2) 김교철

64 중국선교의 발자취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방지일

66 중국 교회 순례(11) 대륙 동쪽 끝자락에서 키워가는 하늘나라의 꿈(2) 김중구

70 중국선교사 행전(6) 부흥의 불길을 몰고 다닌 선교사  
-조나단과 로잘린드 고포드 부부 루스 터커

## 중국은 지금

74 중국은 지금 실험대에 오른 마작-스포츠포나 도박이나 장汛(江汛)

78 중국동향 초점 홍콩의 중국반환 1주년-그 이후의 홍콩의 변화 강성광

## 기획 /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82 소수민족선교의 필요성과 선교전략 김복중

88 윈난성의 소수민족(IV) - 이족(彝族) 허중선

## 1998년 7, 8월 통권 제52호

### 중국을 알자

- 39 중국·중국인 **중국인의 성격 - 원만성**
- 98 중국 체험 **하늘의 절반은 여성이다** 석은혜
- 104 중국단기선교 여행코스(8) **우루무치(烏魯木齊)** 유재승
- 107 중국 문화 **춤으로 표현하는 중국인의 정서** 이민선

### 자료실

- 118 외국투자기업 합병, 분립, 주주권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의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임시규정

- 1 발행인 칼럼 **나눔의 도** 이동화
- 23 목상의 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 45 선교 다이제스트 허드슨 테일러에게서 배우는 100가지 교훈
- 53 시사만평 **남녀 사이엔 거리가 없다?** 우상홍(吳興宏)
- 97 중국인의 유모어 **一百頂高帽子(백 번의 아첨)**
- 102 선교 중국어 **主日崇拜聚會禱告(주일예배 기도문)**
- 103 중국어 복음성가 **惟有你(주님만 사랑하리)**
- 110 신간도서 『중국,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외 2권
- 111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 117 선교단신

### 별책부록 '중국을 주제로' 중보기도소첩(98. 7,8월)

#### 표지설명

단기 선교여행의 계절이 왔다. 한국의 경제위기로 많은 분들이 선교여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여행을 떠나는 분들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거둘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은 위난성에 있는 호수 얼하이(洱海)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





# 첫 사랑을 회복하자

유 관 지

올해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85주년이 되는 해이다. 얼마 전에 이 『중국을 주께로』지에 자세하게 쓴 일이 있지만, 올해가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85주년이라 함은 1913년에 장로교 총회가 박태로(朴泰魯)·사병순(史秉淳)·김영훈(金英勳) 등 이들 세 선교사를 산동성에 파송한 것을 기준으로 본 것이다.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중국선교 활동이 “뿌리 깊은 나무”임을 재확인하고, ‘엔다(嚴打)’·‘IMF’ 등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꽃과 열매를 많이 맺도록 다짐해야 할 것이다.

내년은 중국선교와 관련한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사실의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어떤 일일까? 중국선교가 재개된 것을 기념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1979년에 중국선교가 재개되었다 함은 무슨 뜻일까?

1913년에 시작된 중국선교는 1940년대 초반에 이르러 휴지기(休止期)를 맞이했고, 1949년 중국의 공산화와 더불어 정지기(停止期)에 들어섰다. 이 정지현상은 표면적으로는 1979년까지 계속되었다.

1956년의 극동방송 개국, 1973년의 아세아방송 개국은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있어서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외국 선교기관들의 주도로 이뤄졌고, 개국 당시에는 그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78년 말에 들어서면서 중국선교 분야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중국선교 전문방송인 FEBC 앞으로 오는 중국성도들의 편지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1969년부터 1978년 후반까지 FEBC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편지수는 모두 백통이 넘었다. 그러나 1978년 말이 가까워오면서 편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 53통의 편

# 祝福你的歌 당신을 향한 노래



古老的時候， 天上有一個 奇妙的計劃 為你安排好。  
 Gǔlǎo de shíhòu, tiānshàng yǒu yíge qímào de jìhuà wèi nǐ ānpáihǎo.  
 慈愛的天父 親手創造你， 看着說甚好， 看着說甚好。  
 Cí'ài de Tiānfù qīnshǒu chuàngzào nǐ, kànzhe shuō shèn hǎo, kànzhe shuō shèn hǎo.



他說：“我親手創造 你的生命， 你在 宇宙 萬物中最為 寶貴。  
 Tā shuō: "Wǒ qīnshǒu chuàngzào nǐ de shēngmìng, nǐ zài yǔzhòu wàn wù zhōng zuì wéi bǎoguì.



我的心因着你 而歡喜快樂，我將 永永遠遠愛着 你。”  
 Wǒ de xīnyīnzhe nǐ ér huānxǐ kuàilè, wǒ jiāng yǒngyǒng yuǎnyuǎn àizhe nǐ.



“我 真 愛 你， 我 祝 福 你，  
 "Wǒ zhēn ài nǐ, wǒ zhù fú nǐ,



我奉獻 真誠 熾 熱的愛， 溫 暖你 的心。”  
 wǒ fèngxiàn zhēnchéng chìrè de ài, wēnuǎn nǐ de xīn."

## 우리말 가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과드립니다. 지난호(통권 51호)에 실렸던 이 노래의 중국어가사가 어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였사오니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중국선교 재개 20주년을 앞두고 중국선교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자

지가 왔다. 1979년 1월 1일,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맺고 중국의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편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79년 2월 한 달에만 899통의 편지가 왔다. 그런데 이 편지들은 대부분 제주도에서 발사되는 아세아방송에 대한 반응이었으나, 수신지가 홍콩 FEBC앞으로 되어 있고 모든 처리를 홍콩에서 하고 있어서, 한국 교회는 TV로 운동경기 중계를 보면서 박수나 치는 격이었다. 중국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홍콩에서 제작, 편성되었으며, 한국은 발사기지만 빌려주고 있는 셈이어서(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1979년 4월 23일에 재중동포(在中同胞)의 편지가 아세아방송 앞으로 날아 들었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재개에 기폭제 역할을 한 이 편지

전반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至極하신 사랑이 牧者 牧師님에게와 교회에 恒在하심을 祝願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牧師님, 우리 中國에 있는 基督敎會의 信者들은 解放後 四人幫의 宗教迫害로 困하여 黑暗의 時代에 處하여 있든 中華國峰 주석의 政策에 依하여 只今은 宗教自由를 얻어 各處 숨어있든 信者들이 繼續 小集會로 禮拜하며 信仰의 路上에 上程되오니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일우어 지는 것을 無限히 感謝不忘하옵나이다.

이곳 遼寧省 沈陽은 過去에도 南滿老會 所在地였으므로 只今도 宗教發祥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하오니 牧師님과 亞細亞放送局에서는 우리 民族과 信者가 篇集하여 있는 沈陽地區를 爲하여 留意하옵시고 많은 祈禱와 支援을 望기 望기 바랍니다.

只今 第一 큰 困難한 問題는 聖經이 第一 큰 問題 矣. 沈陽地區에 聖書와 讚美冊이 數十部밖에 無사오니 寒心한 일입니다.

현 沈陽地區에 信者가 六個所에 近 二白 各 左右 나오는데 冊이 無으니 큰 問題입니다. 讚頌歌는 手寫로 代覽하고 聖書는 無고 쓸수도 無고 教會機關이 取扱하기에는 安직 希望이 無습니다.

이러한 事情이오니 우리 中國에 있는 信者들을 爲하여 增送하여 주시으면 感謝無極 하겠사옵나 다.”

그 뒤에 계속해서 들어 온 재중동포들의 편지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흥분시켰는지, 그 때를 돌이켜 보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흥분의 도가 지나쳐서 “중국선교의 천적(天敵)은 들떠 흥분하는 것”이라는 말이 널리 전해졌을 정도이다. 이 편지들이 계기가 되어 재중동포 선교가 시작되었고 중국선교로 이어졌다.

1970년대 말의 그 흥분, 그 첫사랑의 열기는 어디로 갔는지 요즘은 중국선교라고 하면 가장 문제 많은 분야라는 혐오 품목이 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리이러한 중국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래요?” 하면서 시선은 벌써 다른 데로 가 버린다. 남녀가 열애(熱愛)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결점도 장점으로 보이다가, 권태기를 넘어가면 장점까지도 결점으로 보인다더니, 지금의 중국선교가 그 모양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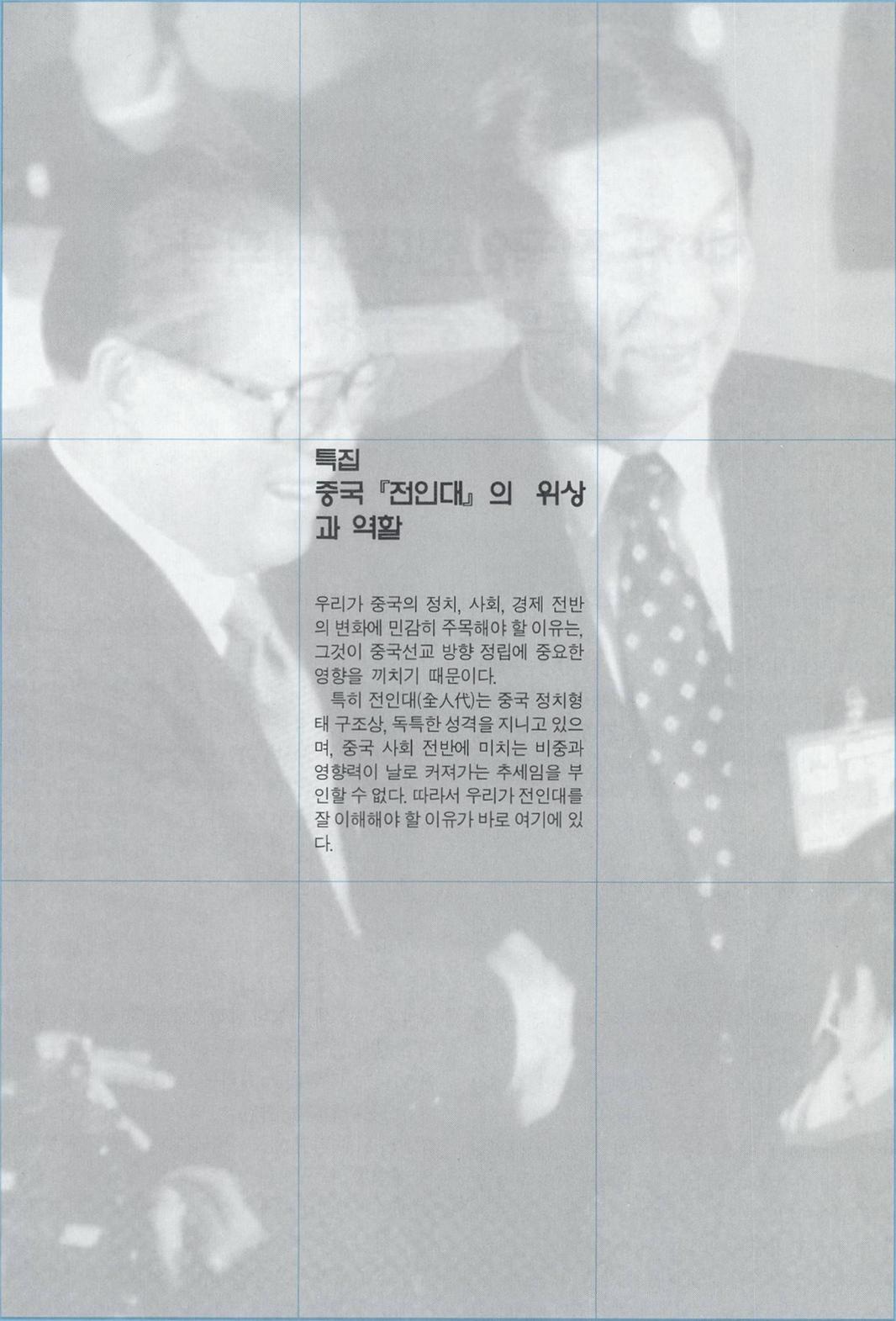
자, 중국선교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결점을 장점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장점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현재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이다. 게다가 한국 교회가 최초로 해외선교를 시작한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여러 해 전에 중국선교와 관련된 책을 쓰려고 자료정리에 착수한 일이 있었다. 얼마 전에 이종윤(李鍾潤) 목사(서울교회)를 만났다. 이 목사님은 1970년대 말에 중국에 가서 외국인들 끼리의 부활절 예배를 인도했으며, 1980년대 초에는 중국에 가서 수 십년 만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베푸는 장거(長擧)를 기록한 분이다.

어느 날 “유 목사, 그 책 어떻게 되었소?” 라고 물었다. “자료들을 넣어둔 가방을 책꽂이 위에 올려 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요” 했더니 “아니야, 써야 돼! 꼭 써야 돼! 초기 일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꼭 남겨야 돼!” 라고 했다. 그래서 전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바라보던 자료 가방을 이제는 두 번씩 바라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첫 사랑을 상기시키는 회춘제(回春劑)로 삼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쓰려고 한다.

이제 중국선교 재개 20주년을 앞두고 중국선교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에베소교회에 하신 꾸지람(계 2:4)을 우리에게 하실지도 모른다.

유관지/ 전, 극동방송 사장 · 목양 감리 교회 담임목사



**특집**  
**중국 『전인대』의 위상**  
**과 역할**

우리가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변화에 민감히 주목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중국선교 방향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전인대(全人代)는 중국 정치형태 구조상,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전인대를 잘 이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이후의 중국향방

왕 쓰 웨

### 1. 전국인민대표대회란 무엇인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로 약칭)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입법권과 국가기구의 최고권력을 조직할 수 있으며,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과 감독권 등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전인대」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1) 헌법을 수정한다.
- 2) 헌법의 시행에 대해 감독한다.
- 3) 형사, 민사, 국가기구의 기본 법률을 제정, 수정한다.
- 4)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 5)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의 추천에 의해 국무원 총리인선을 결정하고, 국무원 총리의 추천으로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추천으로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구성 인사를 결정한다.
- 7) 최고 인민법원의 원장을 선출한다.
- 8)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한다.
- 9)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대한 집행 상황보고

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 10) 국가의 예산과 예산집행의 상황보고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적절하지 못한 결정들을 수정하고 철회한다.
- 12) 성(省), 자치구와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 13)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를 결정한다.
- 14)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 15) 최고국가권력 기관을 통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전인대」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종족, 성별, 직업, 가정 배경, 종교신앙, 교육상태 등의 차별 없이 모두 선거권이 있다. 「전인대」 회의는 1년 1회 개최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 비서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나 연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전인대」에서 선출한 국가행정 최고 권력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며, 그 밑에 국무원이 있다.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이므로 실체에 있어 국가행정의 실무 총책임자는 국무원 총리이다.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부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 「전인대」와 중국공산당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의 관계

중국에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 가지의 전국적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인대」와 중국공산당 대표대회(이하 「당대회」로 약칭) 그리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으로 약칭)가 있다. 「전인대」는 중국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며, 전국에서 선출된 인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최고 행정에 대한 의결기구이다. 「당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전국의 공산당 대표에 의해 구성되어 당의 지도급 인물과 대표들을 선출하고 당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당의 최고 기구이다. 「정협」은 중국인민의 애국통일전선 조직으로 각 당파, 인민단체, 각계 대표, 화교 등의 대표로 구성되며 국가 정치와 행정에 대해 건의, 비판, 자문, 감독을 하는 기구이다.

중국 정치의 특성상 공산당이 모든 국가의 기관과 행정, 그리고 기타 당파와 인민단체 등을 이끌고 나가고 있기에, 실제적으로 「당대회」가 가장 중요한 정치대회이며, 「전인대」는 「당대회」의 중요 결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을 결의하고 찬동하며, 「정협」도 「당대회」와 「전인대」의 여러 결정과 당파 국가의 여러 정책을 각 당파, 인민단체, 각계 대표, 화교 등의 힘을 동원하여 참여하는데 있다. 그래서 「전인대」가 헌법과 규정대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라기보다, 국가차원에서 당의 결정사항에 의결하여 집행되도록 이끄는 기구이며, 「정협」은 국가 행정과 권력에 대해 비판, 자문, 감독하는 기구이기보다는 지원기구이다. 그래서 「전인대」를 가리켜 ‘고무도장’이라고 하고, 「정협」을 가리켜 ‘박수부대’라고 한다.

비록 중국의 정치와 사회발전이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고 「전인대」 또한 항상 「당대회」가 개최된 이후 개최되어 「당대회」의 방향과 주요 결의 사항 대한 집행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인대」 회

의는 중국의 국가행정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기정 중요한 정치 회의인 것만은 분명하다. 「전인대」가 ‘고무도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정치구조와 특징에 기인되어 있으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전인대」 자체의 위치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조금도 감소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구조와 특징상 당이 정부를 인도(以黨領政)하기에 실제적으로 「전인대」의 위원장이나, 「전인대」에서 선출된 국가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부총리들은 거의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인대」에서 선출된 공산당 지도자들의 직위 배치를 통해 그들이 실제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력의 양상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인대」의 개최와 「전인대」회의의 결정은 간과할 수 없다.

## III. 제9차 「전인대」의 의미와 주요 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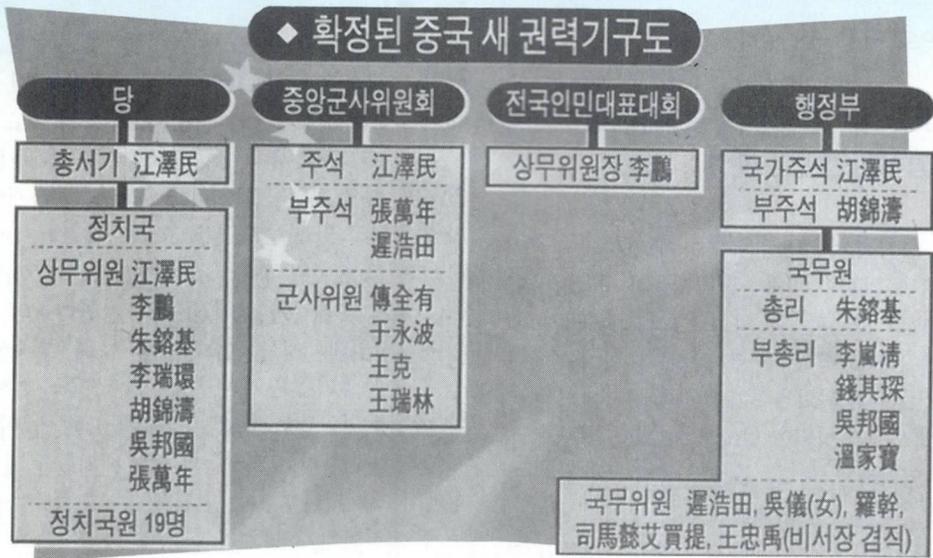
### 1. 제9차 「전인대」의 의미와 중요성

지난 1998년 3월 5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9차 「전인대」는 차세대의 중국 정부와 국가경영을 책임질 지도자의 선출과 여러 국가의 현안들을 결정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해인 1997년 9월에 개최된 제15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사항 예를 들어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과 주식제의 도입에 따른 국가 행정적 차원에서의 집행양상과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과 주식제 도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진일보한 발전이다. 또한 중국 경제개혁의 성패는 국영기업에 대한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누가 국무원 총리가 되어 이런 경제문제와 현안과제를 해결할지가 귀추가 주목될 뿐 아니라, 「전인대」회의를 통해 어떤 상응하는 조치와 결정이 나올지가 궁금한 것이다.

### 2. 제9차 「전인대」의 주요내용과 결정사항

#### 1) 새 지도자의 선출

전인대 위원장 : 리펑(李鵬)



국가주석 : 장쩌민(江澤民)  
 국가부주석 : 후진타오(胡錦濤)  
 국무원총리 : 주룽지(朱鎔基)(장쩌민 상해시장 재직 시 부시장으로 동료관계)  
 국무원부총리 : 리란칭(李嵐清), 치엔지첸(錢基琛), 우방궈(吳邦國)(장쩌민 측근), 윈자빠오(溫家寶)(4명)  
 국무위원 : 츠하오티엔(遲浩田), 우이(吳儀), 뤼간(羅幹), 왕중위(王忠禹), 쓰마아이마이티(司馬艾買提)(5명)

**중앙군사위원회 :**

주석 - 장쩌민  
 부주석 - 장만넨(張萬年), 츠하오텐(遲浩田)(장만넨, 츠하오텐 모두 장쩌민과 우호적 관계)  
 군사위원 - 푸취엔요우(傅全有), 위융보(于永波), 왕커(王克), 왕웨이린(王瑞林)  
 최고인민법원장 : 쉰양(蕭揚)  
 최고인민검찰원장 : 한주빈(韓杼濱)(장쩌민 측근)

**2) 정부기구의 축소개편**

중국의 국무원 산하에는 원래 40개의 부가 있었으나

이번 「전인대」에서는 그 중 9개 부를 3개 부로 통폐합 개편시켰고, 5개 부를 폐지하여 총 29개 부로 축소개편이 되었다. 인사부, 노동부, 민정부는 사회보장부로, 철도부, 교통부, 민항총국은 교통위원회로, 전자공업부, 우전부, 라디오 텔레비전부는 정보산업부로 통폐합되었다. 또 기존의 기계공업부, 화학공업부, 야금공업부, 석탄공업부, 국내무역부는 폐지되었으나 그 기능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국(局)으로 이관하였고 조직은 공사화했다.

**IV. 제9차 「전인대」에 대한 평가**

1. 중국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사회주의 현대화 노선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 1979년 이후, 많은 이는 중국의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 「당대회」나 「전인대」는 중국이 개혁을 선포하고 단행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대회이다. 그러나 이번 제9차 「전인대」에서도 중국의 개혁부분 특히 정치개혁에 주목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아쉬움을 남겨주었다. 제15차 「당대회」에서 정치개혁 부분에서 「당과

這苹果不錯，既不酸？ / Zhè píngguǒ búcuò, tiánbùtián?  
 (저 사과 부추오, 티엔 부 티엔?) 이 사과 괜찮아 보이는데, 달아요?

정부의 분리, 권력의 재분배(즉 權力下放), 정부기구의 정예간소화,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부르짖었으나 이번 「전인대」에서는 단지 정부기구의 정예간소화, 업무의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정치적 개혁이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치개혁의 단행은 정부기구의 축소개편으로 만족해야 했다.

2. 이번에 정부기구 중 40개를 29개로 축소개편 한 것은 비록 획기적인 정치개혁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중국이 경제문제와 경제개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과거의 정부기구는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것이어서 정책결정의 실패와 정부조직의 중복 및 저효율, 불필요한 인력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기구의 축소개편 조치는 중국이 계획경제의 체제에서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적절한 개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획기적인 정치개혁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이 경제개혁을 심화시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본격적 진입하기 위해, 정치측면의 개혁을 우선 정부기구의 개혁의 측면에서 단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기구의 개혁은 점차 권력의 재분배와 당과 정부의 분리로 점차 진입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제9차 「전인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개혁 노선은 경제위주이며, 정치부분은 여전히 금기사항 내지 유보적 태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기구의 축소개편 조치는 경제적 개혁의 연장선에서 필요를 느껴 시행한 조치이며, 정치적 재도개혁을 목적으로 단행된 개혁과 조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 최고 지도층의 개혁노선관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경제개혁을 중심과 우위에 두며, 기타 개혁은 경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동반적 개혁이며, 정치제도나 체제의 개혁은 금기 내지는 유보적 사항이 된다.

4. 제9차 「전인대」에서 선출된 국무위원과 국무원 각부의 부장들은 본격적으로 혁명세대가 퇴각되는 반면

각 분야의 전문인 내지는 기술관료로 등용, 배치되었다. 이제 중국의 국가경영과 정부운영은 본격적으로 기술관료가 담당하는 소위 「기술관료의 시대」로 접어들어 서게 되었다. 사회주의 현대화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 전문관료와 기술관료들에 입각한 국가경영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5. 제9차 「전인대」로 이제 중국의 국가경영은 주룽지 내각의 정식출범으로 더욱 경제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게 되었다. 주룽지(69세)는 이번에 97.9%의 득표로 당선되어 「전인대」 대표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룽지는 1980년대 후반에 급부상한 인물로 상해시 부시장, 시장을 거쳐, 1991년에는 국무원 부총리로 임명되어 당시 과열된 경제문제와 국영기업의 삼각채(三角債)문제를 급랭시키는 등 국가행정과 경제방면의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그는 화폐 발행량을 통제하고, 재정 긴축정책을 폈으며, 자본의 투자환경을 고정적으로 통제하였고, 금융질서를 치리정돈 하는 등 소위 「거시 조정통제(즉 宏觀調控)」을 통해 당시의 경제위기를 진정시켰다. 그 후 1992년 제14차 「당대회」 때 주룽지는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최고 권력층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주룽지는 정부 국무원의 최고 책임자로 본격적으로 중국의 경제 개혁을 주도하면서 경제문제와 현안들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V. 제9차 「전인대」 이후 중국의 향방

### 1. 정치의 향방

제9차 「전인대」에서 중국의 정치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장쩌민, 리펑, 주룽지로 볼 수 있다. 즉, 장쩌민, 리펑, 주룽지 3인방의 체제가 이번 제9차 「전인대」에서 이루어졌다. 장쩌민은 당, 정부, 군을 통합하는 지도자로, 리펑은 「전인대」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아직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세력의 대변하는 자로, 주룽지는 중국의 국가경영을 주도하는 실무책임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덩샤오핑 사후 중국은, 탈 영



신 3인방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왼쪽부터 장쩌민, 리펑, 주룽지).

웅 통치 내지는 탈 카리스마 지도자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기에 과거처럼 한 사람의 권위에 입각해서 정치가 움직여 나가기보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최고 권력층을 중심으로 토의, 타협, 협상 등의 방식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장쩌민과 주룽지는 최고 권력층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제9차 「전인대」에서 정치개혁 부분은 정부기구의 축소와 개편 차원에서만 단행이 되었기에 정치체제나 제도의 개혁은 아직 요원하며, 향후의 중국정치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안정과 보수 지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 2. 경제의 항방

제9차 「전인대」에서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을 이룬 것은 역시 경제분야의 개혁과 조치이다. 그 중 국영기업에 대한 금융체제의 개혁이, 주룽지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영기업은 파산과 통합합 조치고 주식제 도입을 통한 사기업으로의 전환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문제이다. 금융체제의 개혁은 주로 인민폐에 대한 절하문제와 금리문제이다. 주룽지는 제9차 「전인대」가 폐막한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민폐 절하는 있을 수 없으며, 인민폐 가치 유지가 중국 경제뿐 아니

라 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여 인민폐를 절하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동남아와 한국의 금융위기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거시통제와 화폐통제로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 3. 사회의 항방

제9차 「전인대」에서는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정부관리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척결의지와 실제적인 대처 방안이 미흡했으며, 또 현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경제부분의 개혁조치는 다른 한편에서 더 큰 사회문제인 실업자 양산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두 문제가 중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관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장쩌민이 과거에 「반부패 투쟁」과 「엄격하게 사회범죄분자를 격퇴하라」는 구호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지만 큰 진전과 효과는 보지 못하였다. 이번 「전인대」에서도 정부는 별다른 처방을 내리지 못해 정부관리의 부정부패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정부기구의 축소개편으로 상당수의 정부 간부와 관리들이 실직하게 되어, 실직간부에 의한 정부내부의 반항세력의 형성과 실직간부의 처우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장 심각한 것

은 국영기업의 개혁으로 인해 정리 해고자와 실직자가 최소한 2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실업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4. 기독교 발전과 선교 향방

공산화 이후 현대 중국의 기독교 발전과 선교는 항상 정치상황의 전개와 대외 개방에 대한 정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중국의 정치상황이 좌경화 되고, 보수적으로 강경한 노선을 취할 때, 기독교의 전개는 그에 따른 종교정책의 영향으로 지상의 발전(공인된 발전)보다는 지하의 발전(비공인된 발전)으로 흐르게 되었다. 정치의 좌경화 내지 보수적 강경노선으로 지상의 기독교 발전이 위축되고 발전양상도 주춤해지며, 지하의 기독교 발전에 대해서는 제재와 탄압을 가해, 지하 기독교 발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발전과 전개 자체가 신앙심과 직결되어 있어, 정치와 좌경화 내지 보수적 강경노선이 반드시 또는 절대적으로 기독교 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공산화 이후 현대 중국 교회의 부흥과 각성을 맞이한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시기에 대한 설명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정치상황이 온건화 되고, 정치투쟁과 사회범죄자에 대한 척결운동이 억제될 때 지상에서의 기독교의 발전이 가시화 될 수 있고, 활동의 자유도와 영역도 확대가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상황과 노선은 기독교 발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하나, 어느 한 쪽의 노선과 전개가 절대적으로 기독교 발전에 어떤 법칙화 된 결과를 낳는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의 정도가 확대될 때, 해외의 대 중국선교의 양상도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제9차 「전인대」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그 이전보다 선명하게 강경화 된다거나 온건화 되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기독교 발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은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다량의 실업자와 도시빈민의 심리적 불안상태가 기독교 복음전파의 좋은 사회 심리적 환경을 조성

하였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기독교의 진리를, 실질적으로 이들을 돕는 사랑의 관심과 실천으로 전할 수 있다. 심리적 공허함과 방향감은 국내의 기독교인들이나 해외의 복음전파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기독교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제9차 「전인대」 이후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발전이 해외의 중국선교 사역자에게 보다 큰 선교적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 우선 국영기업의 개혁과 주식제의 도입은 해외의 투자와 기업인수, 기술의 도입 등을 더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선교도 이런 기회를 통해 확대시킬 수 있다. 해외의 기독교 선교에 비전 있는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전문 선교사와 현지 전문인파 팀을 이루어 선교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중국선교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텐트메이커 선교가 보다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중국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또 실업자의 대량발생으로 말미암아 실업자와 유동인구들에 대한 선교적 모색과 접근이 요망된다. 도시빈민 선교(빈민 구제와 대책), 복지 선교(의료, 양로원, 고아원, 양돈 사업 등), 사회개발 선교(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지역 가옥 및 공중화장실 개량, 양돈 사업 등), 직업훈련 또는 전문기능, 기술훈련학교(미용, 제빵, 컴퓨터 등 자생능력을 갖게 하는 기술교육)를 통한 선교가 크게 사회적 필요와 욕구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선교는 공인된 노선의 선교로 반드시 지역 정부관계자나 현지 경험자의 조심성 있는 협의와 협력을 통해, 초기에는 복음적 노출을 절대 삼가면서 전문 기술과 전문직에 대한 업무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점차 전문 업무가 안정이 될 때 복음적 시도를 지혜롭게 또 보안유지에 힘쓰면서 진행할 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제9차 「전인대」 이후의 중국선교는 투자, 무역, 기업경영 등의 상업적 통로와 복지, 사회개발, 직업훈련, 빈민구제 등의 봉사적 통로를 통한 선교가 활성화되며, 선교형태와 내용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왕쓰웨이 목사,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소장, 본지 편집위원

## 중국의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

허 흥 호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9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갈 국무원 총리 및 지도체제 인선외에 정부의 기구개편, 그리고 경제발전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작년(1997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동아시아권 국가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세계각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마침내 인민폐의 평가절하 문제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잠재력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의 인민폐가 평가절하될 경우 현재 겨우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들 국가들에게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날리는 것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들의 금융시장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인민폐 평가절하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금융계의 대부로 불리우는 조지 소로스 퀴뎀펀드 회장은 “중국의 은행들은 현재 너무 많은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등 한국과 흡사한 내부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민폐의 평가절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리광야오(李光耀) 전 수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시 인민폐의 평가절

하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즉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민폐의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지만 금융위기가 진정된 후에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폭(10~15%)의 평가절하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이 자국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평가절하가 불가피하겠지만 중국의 국제적 책임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연내에 평가절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인민폐 평가절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중국의 평가절하에 대한 입장과 중국에서 인민폐의 평가절하 요인 등을 살펴보고 간략히 그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중국 정부의 인민폐 평가절하에 대한 입장

이번 아시아에 몰아닥친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없지만,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국의 대외수출에 있어서의 영향이다. 그동안 중국은 수출에 의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를 맞은 국가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자국의 제품원가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기업에 주는 타격은 분명하다. 더욱이 이번에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들은 대



중국은 절대로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전인대에 앞서 열린 제15기 중앙위원회 2차 회의 모습)

부분 중국과 수출 상품품목에 있어서 섬유, 봉제, 완구 등 겹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시장에 있어서도 미국과 유럽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타격의 규모는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둘째, 외자 도입에 대한 영향이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외국자본 도입에 의한 발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외국인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중국 경제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중국의 외자도입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운데 70% 가량은 홍콩·대만과 동남아 화교계 기업 그리고 한국·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이 현재 금융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대중국투자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도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성장의 양대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대외수출과 외자도입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인민폐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과거 인민폐가 대폭 평가절하(5·7원에서 8·7원) 되었던 1994년에는 중국의 수출실적과 무역수지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즉 1994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1993년의 8% 증가율에서 31.9%로 증가되었고 무역수지는 1993년 1백22억 달러 적자에서 94년 54억 달러의 흑자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인민폐의 평가절하가 이러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민폐 평가절하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즉 중국은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겠지만 절대로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이 대표들이 금년 초 중국 방문시 주룽지(朱鎔基)에게 “현재 아시아권이 금융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중국이 경제 성장목표로 정한 8%

성장을 달성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8%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민폐의 평가절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신이 인민폐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주룽지는 “만일 당신들의 말대로 금년 하반기 중국이 인민폐 평가절하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 나는 당신들과 10억 원(人民幣)을 장기거래하기를 원한다. 나하고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합시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인민폐 평가절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금년 ASEM회의에서까지 그대로 강조되었다.

중국이 이처럼 강력하게 인민폐 평가절하를 부인하는 이유로는 현재 중국에도 금융위기의 요소로 첫째, 전통 경제의 영향으로 국유기업의 건설자금이 지나치게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신용대출 자금의 재정화 사용이 금융기관의 불량대출 비율을 높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용자 루트가 단일화 되어 있어 국유기업 경영상태 악화가 곧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으며, 셋째, 금융기관 내부의 위기방지 통제기능 미비, 넷째, 금융관리 감독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이 있지만, 금년 초 현재 중국은 이미 외환보유고가 1,404억 불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충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국제적 책임문제를 저버리면서 현재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게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인접국 화폐의 평가절하로 인해 야기된 중국의 대외 수출과 외자도입상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1994년 인민폐 평가절하로 수출 증대를 이룩했던 방법보다 수출상품의 품질개선, 제품의 원가 절감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제품에 대한 서비스 확대, 광범위한 시장개척 그리고 경영방식의 전환 등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금융위기를 직면한 나라들이 대중국 투자에 대해 의욕은 없겠지만, 현재 중국의 투자환경은 날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광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인민폐 평가절하 요인은 이처럼 중국이 절대

로 인민폐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는 중국의 인민폐 평가절하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 국가들의 자국 화폐 평가절하로 인해 중국의 대외수출과 외자도입에 미치게 되는 부정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폐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는 직접적인 이유 외에 인민폐의 평가절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초래되고 있는 중국의 대외수출과 외자도입 침체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이 금년도 통화안정과 함께 경제발전 목표로 정한 경제성장률 8%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수출과 외국자본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이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인민폐 평가절하가 없을 경우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분야 등 각분야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8%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는 곧 실업인구 증가결과를 가져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분명하다.

현재 중국 내 도시 실업자 수는 약 1천 1백만에서 1천 3백만으로 실업률이 약 6~7%로 추정되고 있다(중국정부의 공식발표는 3.1%임). 여기다 향후 3년 간 국유기업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목표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실업인구까지 합치게 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실업 대국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중국경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인민폐 평가절하를 절대로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 중국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하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환경면에서 보면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압달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상해를 중심으로한 중국 대도시의 암달러 시장에서는 인민폐가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루머와 함께 외환 모으기에 급급한 나머지 위폐까지 나도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민폐 평가절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인민폐의 평가절하 문제가 중국 정부의 의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중시한다면 최소한 금년 내에는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득이 평가절하를 하게 될 경우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폭의 범위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정부의 의지이다. 특히 금년 국무원 총리로 처음 부임한 주룽지가 일관되게 인민폐 평가절하를 부인하고 있는데 만일 금년 내에 중국이 평가절하를 실시한다면 중국 경제의 황제 또는 '걸어다니는 경제사전' 등으로 칭송되고 있는 주룽지의 경제식견의 타격은 물론 정치적 체면과 권위를 중시하는 중국의 위상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둘째, 인민폐의 평가절하가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상품의 구조조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경제를 더욱 혼란시켜 외자도입에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인민폐 평가절하의 문제가 중미간의 통상마찰의 확대 소지가 있다. 물론 중국이 인민폐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미국에 상대적으로 시장안정이라는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대미수출 흑자를 더욱 가속시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민폐 평가절하는 상대적으로 중국 내의 물가 상승을 촉진시켜 사회불안정 유발 및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 한국 '자유관광지역' 지정

중국정부는 5월 5일부터 한국을 자국민이 단체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자유관광대상 지역으로 지정, 이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앞으로 △관광상품 취급 여행사 지정, △쌍방 여행시간 보충금 예치, △여행사 난립 방지책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갖게 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이후 개최된 한·중 최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천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양국 정부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실효를 나타내기까지 2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그 안에 중국 항공사들과 쌍무협상을 벌여 곧바로 중국~제주 직항편을 운영해 대한항공은 제주~베이징(北京), 아시아나항공은 제주~상하이(上海)간을 취항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항공회담에서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4개도시와 중국 17개 도시의 27개 노선 주 1백11회로 양국간 직항노선을 확대했으나 중국측이 한국여행 제반방침을 고수해 수요부족으로 이들 노선이 운영되지는 못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중국인들의 한국관광 붐을 일으키기 위해 우선 지난해말까지 개설할 예정이던 중국정부의 불허로 보류돼 있는 '상하이사무소'를 '상하이지사'로 격을 높여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고 광저우(廣州)지사 등 몇몇 지사 또는 사무소의 추가개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1998. 5. 6)



## 주룽지와 중국의 경제 개혁

마 민 호

97년과 98년은 중국 현대 정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의 대장정의 문을 연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鄧少平)이 서거하였으며, 중국의 장래에 대한 수많은 외부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덩샤오핑 이후 21세기를 맞이할 당의 지도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덩샤오핑 이론을 당의 확고한 정책노선으로 확정하였다. 이어 제9기 전인대를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담당할 새로운 국가의 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사실 9기 전인대의 결과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그다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장쩌민(江澤民),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체제의 출범은 이미 지난해 당 15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주룽지 총리의 등장은 뭔가 중국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룽지 내각의 출발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과감한 정책과 자신감은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주(朱)는 특유의 명쾌하고 솔직하며 과단성 있는 어조로 국무원의 기구 축소와 정부기관 인원의 절반 감축을 선언했고 또 '1.35 개혁' 추진을 주장했다.

### 총 설계사 덩샤오핑, 현장 총감독 주룽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 서있는 중국의 현 시점에서 총리로 임명되면서 중국경제의 난제를 풀어나갈 해결사로 자신만만하게 등장한 주룽지 그는 누구인가? 주룽지는 홍콩의 여론조사에서 10명의 중국 최고지도자 중 1위를 차지하였고, 대만의 매체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 미국, 구라파의 긍정적 평가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만약 덩샤오핑을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에 비유한다면 주룽지는 현장 총감독에 해당한다. 해박한 경제지식과 실무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개발로 오늘날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마오쩌둥과 같이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출신으로 명문 청허(淸和)대학 전기기계과를 졸업했다. 상하이 시장 겸 상하이 시의 서기를 역임하던 91년 경제담당 부총리에 발탁되었으며, 1993년에는 중국 경제의 사령탑에 올랐다. 현재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서열 3위에 올라섰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며 과단성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정평이 나 있다. 단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정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최대의 약점으로 꼽힌다(자세한 주룽지의 경력은 표를 참조).

**주룽지 주요 경력**

- 1928 호남성 장사 출생
- 1945 호남성 제 1 중학교 입학
- 1947 청화대학 전기(電機)학과 입학
- 1949 중국공산당 입당
- 1950 청화대 학생회 주석
- 1951 동북공업부 계획처생산계획실 부주임
- 1952 국가계획위원회 연료동력국 조장
- 1957 반우파 투쟁시 <우파>로 지목 당적 박탈
- 1958 국가계획위 “간부업여학교(幹部業餘學校) 교원
- 1970 국가계획위 “五七”幹校로 하방, 노동
- 1975 석유공업부 관도국(管道局) 전력통신공사  
판공실 부주임
- 1978 당적회복,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
- 1980 청화대학경제관리학원 원장, 교수
- 1983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 1987 중공 상해시위원회 부서기
- 1988 상해시 시장
- 1989 중공 상해시위원회 서기 겸 시장
- 1991 국무원 부총리 겸 국무원 생산판공실주임
- 1992 국무원 경제무역판공실 주임  
중공 14대에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중 서열  
5위 부상
- 1993 국무원 제 1 부총리
- 1997 중공 15대에서 중공정치국 상무위원중 서열 3위  
부상
- 1998 국무원 총리

자료출처 : 중국 廣播電視출판사, <현대중국정계요인 傳略大全> <90년대> 1998년 4월

**주의 개혁 목표 - '1,3,5 개혁'**

주의 개혁은 우선 정부 기구의 통폐합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 기구 개혁은 중국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로, 정치 개혁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번의 기구 개혁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는다. 우선 그 범위면에서 40개의 부, 위원회를 29개로 대폭 통폐합하는 광범위한 것이라는 것과 그 내용면에서도 지금까지 조직 부분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인 사

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부합하는 정부 조직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독자적인 산업별 육성 전략에서 균형과 조정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구의 개혁은 정부 조직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나아가 당정 분리의 정치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주의 개혁정책의 핵심은 '1,3,5 개혁'으로 설명된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하나의 보장(一個確保)'은 금년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8%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통상 팽창율 3% 이하로 억제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를 막겠다는 것이다.

'3개의 실현(三個實現)'은 국유 기업 개혁과 금융 체제 개혁을 3년 내에 실현하고, 정부 기구 개혁으로 퇴직하는 인원을 재교육, 새 자리로 분배를 3년 이내로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5개의 개혁(五個改革)'은 양식 유통 체제, 투자·용자 체제의 개혁, 주택 제도의 개혁, 의료 제도의 개혁 및 재정 세수 개혁을 진일보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상 9개항의 개혁 내용은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포괄한 시정 강령이다. 주의 '1,3,5 개혁'에는 적잖은 어려움과 저항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다면 중국의 경제는 대단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1,3,5 개혁'은 주의 중국 경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나 주룽지의 개혁정책의 배경이 되는 중국 경제의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현재 중국 대륙의 경제는 주룽지가 경제의 황제로 명성을 얻게 된 93년의 상태와는 사뭇 다르다. 명백한 경기 후퇴와 통화 감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게다가 동남아 금융 폭동의 영향으로 국내 하강과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등 국내외적으로 위험과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주룽지 내각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펴보면, 우선 무엇보다도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침체와

주룽지와 그의 경제팀은 내부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인 상황은 다를지라도 주룽지가 사용할  
수법은 여전히 강력한 거시 조절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후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3월 9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는 국내총생산 8%의 증가이다. 지난해의 8.8%에 비해 축소 조정되긴 하였지만 이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목표의 달성을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투자를 증대하여 경제를 자극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금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9%에서 10%로 증가시키고, 금후 3년 간 고정자산 투자를 매년 평균 인민폐 3만 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관건은 돈의 조달이다. 특히 외국인의 지속적인 투자가 없이는 달성하기 곤란한데, 인민폐의 평가절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는 많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경기가 쇠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실업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전국 공업 생산의 34%를 차지하면서도 투입 자금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노동자의 65%를 과다고용한 상태이지만, 실제 은행 대부금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국유 기업의 개혁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787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직공과,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350만 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이미 실업 인구와 구조조정으

로 인한 실업직공의 수가 많은데, 주룽지가 천명한 정부 기구까지 축소하면 전체 하강 실업인구가 5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는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금융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장기간의 적자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초래된 현상으로 중국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97년 말 불량대출은 대출 전체의 25%에 상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넷째는 인민폐 평가절하를 어떻게 피하면서 수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 위기로 동남아 국가의 화폐는 보편적으로 30~50%정도로 절하되었는데, 이들 국가

들의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감소뿐 아니라 수출 경쟁에서 중국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절하를 정치적 결단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룽지는 인민폐 절하의 불가성에 대해, 첫째, 인민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아세아 국가의 화폐가치가 또 다시 떨어지게 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둘째, 홍콩의 경제가 지탱되기 어렵고 셋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35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 또한 인민폐의 평가절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주룽지 내각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1993년 악성적인 경제 과열과 심각한 통화팽창의 중국 경제를 강력한 긴축 조치를 취하여 안정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정반대로 경제 쇠퇴와 통화 감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룽지와 그의 경제팀은 내부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인 상황은 다를지라도 주룽지가 사용할 수법은 여전히 강력한 거시 조절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 당 내외의 개혁 여건 성숙

이러한 주룽지의 개혁 정책의 전도는 어떠한가? 우선 그의 개혁 추진을 위한 주변 조건을 살펴보자. 먼저 민심이 기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중국 민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개혁을 바라는 중국 인민은 물론, 당과 정부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전인대에서 97.9%라는 전폭적인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증명된다. 그리하여 그의 군중기초는 튼튼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주언라이, 화궈핑, 자오쯔양, 리핑에 이어 다섯 번째 중국 총리로서 향후 5년 내지 10년 간 중국의 행정업무를 총괄할 사람으로 주룽지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덩샤오핑의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일개중심(一個中心)’ 사상이 전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둘째, 그간의 개혁 개방의 성과를 통해 중국 경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중국 내 당과 국가의 고위층의 개혁의지나 민중의 모험 의식이 이전보다 많이 성숙되어 있다는 점과 넷째, 무엇보다도 그의 총리로서의 기용은 그의 경제를 다스리는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이후의 경제개혁에 주도권을 갖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른 지도자들과의 갈등

그의 개혁 전도에 다른 지도자들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총리로서 주룽지의 정책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조건의 성숙과 함께 장쩌민과 리핑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현재 정치 원로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정치 현실에서 이들 3자의 결합은 공통의 이익을 위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장쩌민은 주룽지의 경제난 해결의 재능이 필요하며, 리핑 세력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이들 3두 체제는 공존, 공생, 공영의 관계다.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는 정치적 개성, 일의 처리 스타일 그리고 인민의 지지기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장쩌민은 영도의 핵심이지만 경제 방면에는

주룽지보다 못하다. 민의의 기초 또한 주를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리핑은 민의 기초가 가장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천안문 사태의 책임 문제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주룽지는 경제난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민의 기초가 제일 튼튼하다. 그러나 정치지도자 안에 그의 세력은 가장 빈약하다. 특히 주룽지와 리핑과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그간 리핑이 해결하지 못한 경제 난제들을 주룽지가 해결해냈다는 세간의 평판이 이들 사이를 하나로 하지 못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이후 주룽지가 선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하여 리핑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에 민의의 기반이 약한 리핑이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진입하여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어떠한 정책을 취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전인대는 그간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가, 이번 9기 전인대에 와서는 농업부 폐지안의 철회에서 처럼 당과 국가의 정책에 대한 노골적이 반발을 보였으며, 검찰원장 한주빈(韓杼濱)에 대한 인선 투표에서 처럼 전체 대표의 35%가 당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자신의 위상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핑은 만약 주룽지의 개혁정치가 일단 무리한 추진으로 정책적 결함을 드러내게 되면 이를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후진타오(胡錦濤)의 국가 부주석 기용도 차세대 후계자를 양성한다는 차원 이외에 장, 리, 주 삼두체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강과 호는 실권파로서 그들은 국가 부석직의 실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리핑과 주룽지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여 주며 주룽지의 개혁이나 독주를 억제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장쩌민과 주룽지의 관계도 그리 잘 융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이다. 이들을 같은 상해인맥으로 분류하지만, 이들에게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장쩌민은 좌우를 돌보며 강온의 조절을 하는 인물이지만 주룽지는 쉽게 타협하지 않으며 강경하고 저돌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이번 15대 정치 보고에서 주룽지는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장쩌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국유

기업의 개혁에 관하여 장쩌민은 3년 내에 기본상 개혁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룽지는 이의 불가능함을 주장, 결국 3년 내에 주요 대형 500개 국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주요 지도자들간의 퍼스널리티의 차이와 정책적인 이견은 어쩌면 당연하고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일단 개혁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이러한 차이점은 중요한 책임의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개혁을 앞에서 지휘하고 있는 주룽지가 보수파의 공격으로 희생될 우려도 있다.

홀로 시험대에 선 주룽지

주룽지의 개혁 전도에는 최고 권력층 내에 그의 세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9기 전인대 후의 권력 배치를 보면 주룽지는 한 사람의 세력으로 고립되어 있다. 국무원 네 명의 부총리 가운데 원자빠오(溫家寶)만이 신임이고 리란칭(李嵐清), 우방귀(吳邦國), 첸지천(錢基琛)이 유임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장쩌민의 사람이고 츠하오티엔(遲浩田), 뤼간(羅幹), 쓰마아이마이티(司馬艾買提), 우이(吳儀) 및 왕중위(王忠禹) 다섯 명의 국무위원 중에 오직 왕중위만 주룽지의 세력임이 확실하다. 다른 사람은 모두 장, 리의 인맥이다. 권모술수에 능하지 않은 주룽지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것은 특유의 자신감과 실제 일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의 능력이다. 따라서 초기에 그의 의도대로 개혁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야 그의 개혁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룽지 총리의 경제개혁의 도전은 국내 반체제 인사와 민주 세력의 민주화, 중국 내 체제 민주 세력의 저항이다. 비록 주룽지가 총리로서 경제 부문만을 중점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총리로서 정치 및 기타 부문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 이번 자오쯔양 의 천안문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 것처럼 퇴임 원로들의 정치적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경제 수준의 제고에 따른 일반 민인들의 정치적 요구와 국내외 민주화 세력들의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 경제개혁의 지휘관 주룽지, 그의 중국 경제의 수술에 대한 자신감은 대단하다. 내부의 여건도 나름대로 성숙되어 있다. 주룽지의 중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법이 주변의 지지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아시아의 사자' 중국이 21세기를 향해 우렁차게 포효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남아 있다.

21세기를 두 해를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은 중요한 발전의 고비에 서 있다.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중요한 대회를 치르면서 기본적인 노선과 지도체제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경제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 경제개혁의 지휘관 주룽지, 그의 중국 경제의 수술에 대한 자신감은 대단하다. 내부의 여건도 나름대로 성숙되어 있다. 주룽지의 중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법이 주변의 지지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아시아의 사자' 중국이 21세기를 향해 우렁차게 포효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사명의 총 감독인 주룽지 그는 어쩌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무엇이든 나에게 물어보라"고 큰소리 친 것처럼 이 시대적 부담을 지고 홀로 역사의 시험대에 올라서있는지 모른다.

참고자료  
〈亞洲週刊〉 98. 3. 23~3. 29  
〈九十年代〉 1998년 4월  
〈鏡報〉 1998년 4월  
〈극동문제〉 1992년 2월  
〈월간아태지역동향〉 1998년 3월  
기타 중국, 한국 인터넷 신문 자료

마민호/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입견이나 절망적인 관찰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호의와 이해가 그들을 개선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힘들여 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아픔을 무수히 맛보아야 했다.

캐리라는 비트-이상한 머리와 옷차림을 하고 좀도둑질을 일삼으며, 비틀어진 팔을 드러내고 주사를 맞기 위해 광장 주위를 서성거리는 젊은이들-를 오랜 만에 만났다. 그동안 감옥에 가 있다가 나온 것이다. 그도 내가 무척이나 정성을 쏟은 비트인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차 한 잔을 얻어 먹은 그는 나에게 물었다.

“생, 당신이 하지 말란 짓만 다 하는데도 당신은 나를 떼어버리지 않는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철학이 그래?”

“그건 철학이 아니야. 훨씬 더 단순한 거지. 기독교는 사랑의 결합체야. 용서 없이는 참된 사랑이 있을 수 없잖아.”

“당신은 돌았어. 그렇지만 하여간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는 그 하나님하고도 만날 날이 있겠지. 그러나 나 같은 놈은 원치 않을 거야.”

그는 누더기 보따리를 집어들고 서글프게 멀어져 갔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캐리, 누구보다도 그 분은 당신같은 사람을 원해요.”

내 외침 소리는 어둠 속으로 그대로 사라졌다. 마치 캐리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듯... 나는 실망이 나 보다 하나님쪽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럴 때면 그들이 하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들은 마치 동전 넣으면 노래가 나오듯 우리가 바뀌길 기대해. 우리도 노력해. 하지만 로마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 그런데 요새는 아무도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글은 도서출판 왕의 아이들에서 출판한 권지현 편저, 「요즘 선교 이야기」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한국인

## 미래의 도시 산둥성의 칭다오(靑島)

김 청 도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대륙의 땅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일기예보 시간에 텔레비전의 맨 왼쪽화면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로산(嶗山)이라는 명산이 자리잡고 있어 6~8월은 많은 중국인들이 방문하는 도시이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1897년에 독

일의 조차지역이었다. 칭다오의 중심지인 중산로에는 유럽풍의 건축양식이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 호에 실린 장쑤루교회 역시 유럽풍의 냄새를 물씬 풍겨 주는 건물이기도 하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독일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중국 칭다오'하면 '맥주'의 명산지로 중국 여행 안내 책자를 장식하고 있다. 보통 7월 중순 경에 국제 맥주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세계 각국의 맥

주들이 진열되며, 각종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중국 사람들의 술 문화, 놀이 문화 등을 보기에 적합한 현장이기도 하다.

칭다오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와 같은 대형 도시는 아니지만, 단일시(市)로서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상하이나 베이징의 종합상사와 같은 지사 형식이 많다면, 약 천여 개의 등록된 기업들이 있는, 칭다오는 주로 공장형태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은 주로 섬유업 계통과 가죽제품 계통 그리고 식품중에서 장(醬)류, 완구류와 약 세사리의 업종이 많이 유치되어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첫째, 칭다오는 매우 우수한 항으로 해상운송이 매우 원활하기 때문이다. 큰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칭다오 항으로부터 1~2시간 거리에 육상 운송 가능한 지역에 한국기업,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둘째로 한국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 서울~칭다오의 비행기는 1주일에 대한항공 7편, 중국민항 7편 매일 2편씩 운항되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1시간 10~20분 정도로 서울~제주의 시간과 비슷하여 커피 한 잔 마시며 일간지 한 장 보기에 딱 맞는 시간이다. 또한 배편이 인천~칭다오간 운항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편(월, 목)이며 운행시간은 약 20시간 정도 소요된다. 산둥성의 수도가 되는 지난(濟南) 또는 인근 도시인 웨이하이(威海), 엔타이(烟台) 등으로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칭다오까지 비행기로 와서 육로로 이동한다. 이러한 유동인구가 많아서 칭다오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칭다오는 위도상으로 한국의 인천-충남 서산 중간에 위치하여 날씨와 온도 등이 한국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칭다오가 비오면 한국도 비가 오고, 한국이 바람이 심하면 어김없이 이곳도 바람이 분다. 가끔씩 고국에 전화를 하면 날씨가 너무 흡사한 데 대해 놀라곤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강수량은 한국에 비해 30% 정도 적어서 600~900mm이며, 겨울에 눈이 오는 날은 그리 많지 않은 지역으로, 일년에 한 번 정도의 함박눈에는 거리의 중국인들이 들뜬 모습으로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양도시 특성상 안개 일수가 많아 분위기는 좋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2~3년 쯤 지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종의 풍토병처럼 무릎이나 팔과 같은 관절들이 쭈시는 일들이 있다.

## 한국인 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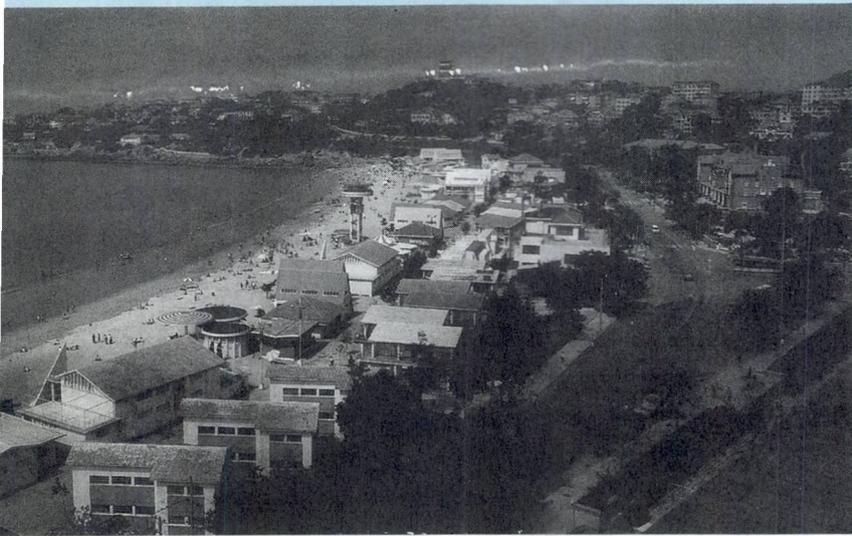
**한국인 투자협회:** 한국 기업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기업의 정보와 중국 당국과의 관계, 법률, 세무, 통관 등의 정보를 나누고 있다.

97년에는 제1회 한국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사진전과 재청도 한국인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후로 한국인-특히 기업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최근에 칭다오 시로부터 정식단체로 허가를 받아서 현판식을 가진 바 있다.

**칭다오 한글학교:** 한국인 자녀들의 주말학교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인근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로 차량이 가득하다. 승용차로 30, 40분 거리의 지역공장, 멀게는 한 시간 반 거리의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갖는 시내 외출이기도 하다. 금년 5월부터 평일에 한글과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유치원이 개원되어 중국 유치원을 다니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우리 어린이들이 웃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 학교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칭다오 한인 교회:** 한 기업인이 자신의 기업 안에 교회 건물을 지어놓았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외국 생활하는 한국인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구심점 역할이 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매일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신앙의 좋은 훈련장이 되고 있다. 약 800명 정도의 성인들이 모이고, 주일학교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150명 이상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외국 의 낯선 땅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중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칭다오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 “한국사람의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교회 앞에 세워놓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복받은 재청도 한국인들이다.

**총영사관:** 총영사 외 7명의 영사가 근무하며 산둥성에 주재하는 기업체와 교민들을 대변하는 관공서로 지금 2대 총영사가 근무 중이다. 칭다오시 뿐아니라 주변 외곽 도시인 교주, 교남, 평도, 즉묵, 래서 등에 한국 직원들



칭다오 해변

과 그 가족이 약 7000~8000명정도로 추산된다. 작년에는 우리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칭다오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법적인 체제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칭다오대학과 해양대학 언어연수생 및 유학생회: 시립 칭다오대학과 국립 해양대학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단기 언어연수차 오는 학생들이 많지만 본과로 입학하여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다. 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유학생회를 중심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작년에는 한없이 치솟는 과외비(보충수업으로 중국 대학생이나 교수들에게 개인교습을 받음)를 동결하는 데 성공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의 건전한 문화생활들이 요청되고 있다.

## 살아가는 이야기

### 토마토 친절과 감사

도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완전 농촌지역에서 전형적인 농가 주택에 6~7개월 산 적이 있었다. 바로 옆집이 집 주인이었는데, 두 아들이 있으며 밭을(칭다오지역은 강우량 관계로 논농사가 거의 없음)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토마토와 오이 기타 채소 등을 재배하며 주업으로 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사가는 날부터 그 집을 떠날 때까지 토마토를 사먹어 본 일이 없다.

수시로 집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토마토며 오이며 자기 밭의 소출들을 주고 가는 그 순박함에 얼마나 감사

한지. L.P.G 가스를 배달해 주지 않는 관계로 본인들이 빈통을 들고 가서 가스 주입하고 신고 와야 한다. 어느날 저녁 식사 준비할 때쯤에 가스가 떨어졌다. 주인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친절하게도 자기 집에서 가져다가 연결해 주고 갔다. 그날 저녁은 참으로 맛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농촌생활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중국의 법률상 농촌지역에 외국인이 허가없이 살 수 없다는 조항과 외국인으로서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때문에 시내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

었다. 이사하던 날 평소 토마토를 들고 그렇게 친절히 가정을 드나들던 그 주인이 이삿짐을 싣고 있는 트럭의 번호판을 몰래 적고 있던 검은색은 눈빛과 마주쳤을 때 '여기는 중국이구나'를 실감했다.

### 대낮에 웬 야간할증?

어느 나라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칭다오의 택시요금 체제는 세 가지인데 기본요금 7원/1km당 1.1 원, 기본요금 9원/1km당 1.4원, 기본요금 10원/1km당 1.6원 등이다. 일반적으로 8km가 지나면서부터 '후이공(回空)' 할증이 적용되어 1.1이 1.65가 되며 1.40이 2.1이 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할증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먼 거리에 일이 있어 저녁시간에 동행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다. 중국어 전공자인 동행인이 모든 말을 다해주고 가다가, 중간에 그는 내리고 나머지 구간을 혼자가게 되었다. 피곤해서 눈을 감았는데, 목적지에 다다르고 보니 80원 정도의 요금이면 될 것이 170~180원 요금이 나와 있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200원(元)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영수증을 주십시오(중국은 택시요금 영수증이 있음).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기사님 이름을 쓰시고 내가 차를 탄 시각 오후 8시. 승차한 곳 지명 내린 곳을 기입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정식으로 공안에 알리겠습니다." 순간 기사의 얼굴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기사는 "그러지 말고 평소에 얼마씩 내고 다녔소. 그정도만 내고 내려라"하는 것이다.

어떤 날은 중국말 연습도 할 겸으로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가던 중 기사들이 담배를 피워 차를 잠시 세우고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기게 되었다.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드는 순간 인간이 싫어지고 돈이 싫어졌다. 앞문을 열고 뒷문 열고 옮겨타는 그 짧은 순간에 야간할증을 눌러버린 것이다. 태양은 동해에 힘있게 떠올라 있는데, 그 기사는 그 태양이 보름달로 보였는지...

### 팝콘과 사과 그리고 두 중국인

겨울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거리를 거닐던 중 노파의 수레에서 팝콘을 사게 되었다. 3원을 내었더니 두 봉지를 주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붙들고 뭐라고 하는 것이다. ‘짜이 슈어 이베엔!(再說一邊)’을 여러 번 한 끝에 관독된 말은 이러한 것이었다. “지금 내가 준 팝콘은 2.5원 어치이다. 그러니 2~3분을 더 기다렸다가 0.5원 어치를 더 받아가라”는 친절한 이야기였다. 그것이 3원어치인지 2원어치인지 모르고 가는데, 구태여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외국인에게 정직함을 보여주는 그 한 할머니의 태도에서 중국의 밝은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10분 쯤 가다가 사과를 조그만 자루에 넣어서 파는 한 소녀가 있어 얼마냐고 물었더니 60원이라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30~35원 정도인데... 마침 지나가던 한 중국 중년의 남자가 이 소녀와 우리가 하는 말을 듣더니, 왜 정상적인 가격에서 2배가 넘도록 파는지, 외국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국의 인상이 어떻게 되겠냐며,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라고 소녀에게 호통을 쳤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중국인을 대표하며 사과하듯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그 중년에게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국인의 격조를 보게 되었다. 그 정중한 사과와 중국 사과맛이 어떠했겠는가?

### 중학교 앞의 호텔 화장실과 자녀들의 변비

칭다오에는 한국학생들이 참으로 많다. 칭다오에서 가장 명문 학교인 제2중학교(第二中學校)에는 참으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의 경기, 경북, 용산... 정도의 학교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이 언어, 식사 문제 등을 잘 정복하지만 결코 넘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학교의 휴식시간, 점심시간에 맞추어 그 학교 앞에 있는 한 호텔 로비에 가보면 알 수 있다. 많은 한국학생들이 호텔문을 들어서며 달려가는 곳이 있다. 따라가 보면 ‘차우오

(廁所-화장실)’이다. 학교 화장실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녀석 좋은 아이들이라도 이 문제만은 정복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특히 딸들은 아침에 국을 먹지 않고, 아침에 물을 먹지 않는다. 어쩌다 아침에 급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했다가 변비에 걸린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많이 있다. 자기의 눈을 가리면 될 것을... 그 쉬운 것을 왜 모를까?

### 2원이면 둘이서 아침을...

중국은 참 편리한 나라다. 특별히 식생활 문제가 참으로 편하게 되었다. 아침에도 “콰이찬(快餐)”을 파는 곳이 너무 많다. 가깝게는 거리의 골목 골목마다 쉽게 눈에 띄는 아침 음식-요우타오(油條), 만터우(饅頭), 혼(混)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칭다오에는 하이얼 그룹에서 운영하는 ‘몐관(麵館)’에 가족 단위로 와서 유치원생으로부터 노인 등까지 함께 아침을 먹는다. 2~3원 정도면 가능하다. 종종 가서 먹어보지만 벌써 중국사람이 되었는지 맛이 괜찮다. 가끔은 아침에 길목에서 요우타오와 만터우를 사먹고 콩국을 한 그릇 먹으면 둘이서 2원이면 아침은 해결된다. 이래서 12억의 인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위대성들을 본다.

한국의 거리보다 화려한 해변의 한 도로 그 많은 조형물들... 더이상 중국이기를 거부하는 첨단은 몸짓이다. 칭다오 시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시정부 앞의 54 광장과 이를 중심으로 앞뒤로 길게 이어지는 동해로(東海路)는 주말이면 수많은 인파로 북적된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보이는, 즐비하게 서있는 멋진 조형물들과 정말 예쁘게 꾸며진 풋말, 해변가의 분수대는 이곳이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라고 하던 시드니의 풍경보다 더 멋있다(사진으로만 보았지만).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정말 비슷한 건물도 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은 집가격이 무척이나 바싸다. 그래서 우리와 달리 고층일수록 비싼 것이 이곳 정도의 주택가격이다. 바다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기에 중국 내에서 휴양도시라 하여 여름에는 전국 각지에서 세미나차 이곳으로 몰려드는 중국인들이 많다. 그래서 각 관광지의 휴양지가 곳곳에 있는 항구도시 칭다오는 한국인과 더불어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 김청도/ 중국 사역자

好吃極了。/ Häochi jíle.(하오츠 지 러.) 아주 맛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2)

#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 피 득

## 2. 가정교회의 신학교육

삼자교회의 신학교육 흐름이 위와 같이 흘러왔다면, 중국 가정교회의 신학교육은 어떻게 되어왔는가? 가정교회는 1927년부터 이미 진행되어온 중국 토착교회 운동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개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신학교육 혹은 지도자교육을 꾸준히 해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예전의 중국 교회는 양육(신도 양육이나 목회자 배양)에 소홀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비로소 양육에 제대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허난(河南)성에서부터 이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허난성에 있는 일단의 사역자들이 훈련반을 만들어 단체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가 다른 지역의 사역자들에게까지 파급이 되어, 그들 또한 사역자 교육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황러링, 1997).

## 가정교회 목회자교육 방법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가정교회들에서는 사역자(목회자)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왔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왔다. 물론 그 중 어떤 것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어떤 것은 비교적 근간에 시도된 것들이다.

이 모든 아래의 방법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와 비교해볼 때 요즘의 상황은 이전보

다 더 기도하고 더 애써서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다. 현재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 교육과 신학교육 상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교육 교재가 부족하고 또 실제로 적합한 교재는 많이 없는 편이다. 또한 교사들을 먼저 훈련시켜야 되는 일이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일 등, 모든 일들이 과거보다 점점 다원화를 요구하고 우리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경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1) 개인적 도재식(師徒式) 신학교육

이 훈련방식은 중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훈련 방식으로서, 지금도 중국 가정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50, 60년대의 정치운동과 공산주의가 주장한 계급투쟁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서로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또한 최근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와 한 가구 한 자녀 낳기 정책으로 인해 개인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배해진 상황에서, 절대순종과 친밀한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이 방법은, 현대의 사회주의 중국의 신도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또 일대일로 훈련시키는 이 방식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들의 필요에 부응하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 그들은 동의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많은 산간농촌지역 중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이 방법을 쓰기

這苹果不錯，既不甜? / Zhè píngguǒ búcuò, tiánbutián?

(저 핑궈 부추오, 티엔 부 티엔?) 이 사과 괜찮아 보이는데, 달아요?



심령부흥회식 훈련모임은 현재 중국교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도 한다.

(2) 심령부흥회식 훈련모임 혹은 성경공부 모임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해서 목회자 교육이나 훈련의 핵심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교회가(가정교회이건 삼자교회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역자 훈련방법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가장 흔한 방법인데, 원로사역자들(주로 50세 이상)은 대부분 새로운 사역자들을 심령부흥회식 모임으로 사역자를 양육한다. 훈련받는 사역자(피교육자)가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알도록 가르치고 영적인 성품을 배양해주는(?) 것이 주내용인데, 이를 온전한 지도자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중년(40~50대) 사역자들은 완전히 심령부흥회식이라기보다는 주로 간증 중심의 주제별 성경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자들을 양육한다. 그런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내용을 자기들이 설교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모임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서로의 목회상황에 대

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성경공부는 아무리 감동을 준다고 해도, 그저 일시적 영의 양식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육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진리와 봉사에 대해 배우고 영성을 배양하며, 말씀을 가르칠 자로서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등, 성경적인 목회를 하기 위한 제반 능력을 개발하는 총체적인 의미의 말씀 순종과 그 순종을 가르칠 목회자 양육은 이런 류의 성경공부 모임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꾸준히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깊이 있는 사역자 교육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저런 방법으로 애쓰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들 즉, 영은과(오순절 교회들)교회들은, 진리에 성령충만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는 사상을 갖고 있으며, 또 그들이 인식하는대로의 성령충만이나 성령세례의 개념을 가지고 신도와 목회자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주로 방언을 하는 것이나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일, 안수 등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그러기에 그

안에 내부 분열이 생기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안국의 박해도 더 심하게 된다(천후밍, 1994).

(3) 해외선교방송을 통한 지도자 교육

예를들면,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통하여 실시하는 3년 과정의 평신도 지도자 훈련프로그램인 Village Bible School(마을성경학원 후 농촌성경학원)이나 4년 과정의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인 Voice of Friendship Seminary(양우의 소리 신학교) 등을 통한 방송통신과 지습을 통한 신학교육 방법, 커리큘럼은 중국어로 실시되며, 외국의 저명한 중국 신학자들에 의해서 혹은 방송국 요원들에 의해서 강의가 준비된다. 다른 방법이 거의 없는 농촌에서 요즘도 계속 많은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면서 국내외로부터 왕래가 가능해진 이후로는, 직접적인 방법이 조금씩 열렸다. 인격적인 만남을 비롯하여 관계와 교제를 통한 교육환경과 방법이 개선되어 기타 여러 가지 약점이 보완된 환경과 방법으로 교육하고 받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 환경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에 따라, 이 방법은 1980년대 이전에는 거의 유일한 신학교육방법이었으나, 이제 그저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되었다.

(4) 각종 단기 훈련 프로그램

가. 초단기 순회(방문)교육

그동안 국내의 사역자들이나 국외로부터 온(현지 주재 선교사나 외국으로부터 잠시 방문 중인) 사역자들이 여기저기 순회하거나, 혹은 어느 한 곳을 방문하여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나 길게는 약 1주일 내외 정도 교육시키는 방법을 많이 써왔다. 이런 방법은 교육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의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관성, 지속성, 체계성이 있는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교육의 기회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점 등, 그동안 긍정적인 면과 함께 적지 않은 부정적인 점들이 나타났다. 아직도 많은 가정교회들에서 종종 이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나. 단기 ‘야지신학원’ 혹은 ‘광야신학원’ 교육

중국 국내에서 생긴 것으로서, 보통 신학훈련 사역자

파견 교회설립 등의 사역이 신학원 사역에 함께 집중되어 있는 비교적 종합적 신학교육 형태이다.

특색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계속 장막을 옮겼듯이 교육과 모임의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주로 농한기 기간 중에 짧게는 몇 주 정도 길게는 대략 3개월 정도 기간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일반 농민이 아니고 자유 전도처럼 나가서 순회복음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이런 학습을 마치고 사역을 위해 파송하여 떠나게 하고,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돌아와서 다음 단계 혹은 다음에 주어진 기회 때에 다시 와서, 학습에 또 참여하게 한다. 보통은 한번 교육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교육의 목적은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전도, 즉 씨뿌리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기간 정도로 교육을 시키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 문제를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중교육의 장점이 있다. 이것은 현재 중국 대다수의 농촌이나 소도시에 가장 알맞는 형태의 목회자 훈련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소 관련 비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적지 않고, 안전한 장소를 구하는 문제도 그리 쉬운게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도시나 청년 지식인 목회자 교육에 있어서 비교적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키워야 할 대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리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중국가정교회 계통 중에서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추어진 곳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해진 방법이다.

(5) 현대식 제자훈련과정

대략 6개월에서 약 1~2년 정도의 제자훈련 과정으로서 외국의 제자훈련과정을 중국내에 도입하여,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주로 젊은이들, 특히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10여명까지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 성경공부와는 달리 소위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생활 방면에 대한 감독과 책임요구 등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외국인이 인도하는 제자훈련 소그룹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서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할 뿐 아니라, 갖가지 인간적, 심리적 장벽들을 넘어야 하므로 단순한 일이 아니다. 또한 얼마나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방법중 하나이다.

(6) 일정 지역에서의 장기 신학교육

짧게는 1년 정도 길게는 외국의 신학교(특히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 과정처럼 2~4년 정도 함께 전시간제(full-time)로 거주학생교육(resident-student education)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약점도 많고 위험도가 높아서 그동안 중국 가정교회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 어느 해외 사역자가 국내 사역자들을 훈련시킨 후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비로서 시작된 새로운 방법이다.

이 방법의 주요 약점은 첫째,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교육방법이다. 한 곳에 장기사역자를 모아놓고서 공부시키는 일이 이웃사람들에게 발견되면 경찰에 알려지게 되고, 당장 문제가 생긴다.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에 징계를 해야 할 경우 학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선생과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신학교육하는 사실이 쉽게 폭로될 수 있다.

둘째,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특별히 잘 준비되어 인도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한 곳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적어도 2~3년 동안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과 동고동락하려는 마음과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지를 예민하게 느끼며 순종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단순히 그저 몇 명의 사역자가 전통적인 신학교육 철학과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넷째, 교육과정 가운데 현장 사역의 실습 환경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반지식운동 성향이 강한 중국 가정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지식중심으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는 점이 있다.

다섯째, 중국의 현 상황에서 이 방법은 비교적 장기

적인 교육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소수의 학생들과 선생들이, 찬송과 기도도 크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고 영적으로 만족을 얻기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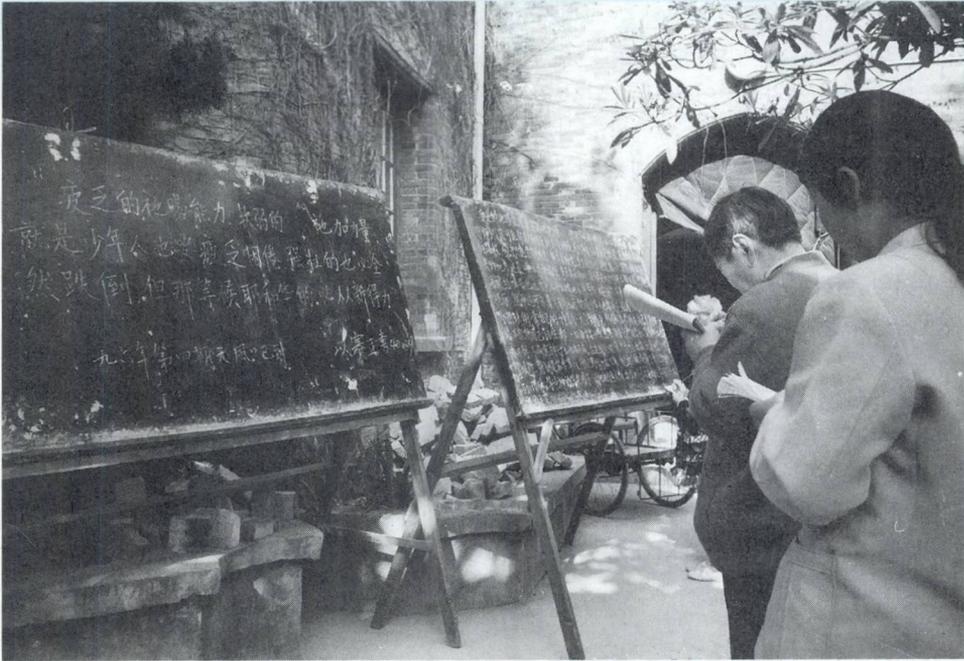
여섯째, 비공개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 선생들이 이런 장기교육을 시행할 때(교수-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인 많은 문제가 대두되게 되므로 운영하기가 참으로 힘든 방법이다. 또한 인간관계 때문 이든지 혹은 항상 같은 좁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다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일곱째, 하나의 정규학교를 운영하는 제반의 일이 다 포함되는 일이라는 점. 즉 도서관도 필요하고 신학서적들도 계속 만들며 또 공급해야 하고, 기숙사의 학교 사무실도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들도 항상 잘 보존해야 한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교재 사용면에서도 책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므로, 해외에서 출판된 양질의 신학서적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상황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함이 계속 이뤄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점들을 보완 내지는 대비할 수 있는 심리적, 총체적 준비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인도 하심으로 적합한 모델을 가지고 혹은 만들어 나간다면, 이 방법은 현재 중국 가정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중국인 신학자도 키울 수 있고, 또 총체적인 예수제자 지도자를 키우며, 총체적인 모습의 교회설립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중국 가정교회들 사이에서 이러한 교육 방법을 찾아보기가 극히 드문 것 같다. 필자가 그 동안 국내의 여러 각종 일꾼들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교제하며 알아본 결과로 현재까지는 이 정도 수준의 신학교육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모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제자훈련의 성격과 신학교육의 형태를 쉰



중국교회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는 일은 바른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를 배출해 내는 일이다.

은 형태로서(일반 외국 신학교의 성격과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있다.) 처음엔 강력한 제자훈련 형태의 교육을 시행하다가 한 단계를 마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목회자 훈련/신학교육 시킬 대상을 찾는다. 그 대상을 선별해 역시 꾸준히 제자훈련을 강조한 신학교육 즉 목회자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다.

제1기는 책임교수요원(외국인 선교사)이 책임을 지고, 외래초청 교수요원들과 동역하여 교육시켜서, 처음부터 안전문제 뿐 아니라 신학사상 교육방법에 있어서 안전성과 추진력이 있는 상황가운데서 기초를 놓는다. 그리고 제1기 졸업생들 가운데서,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생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제2기부터는 현지인들이 책임 교수요원과 함께 직접 나서서 일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계속 제2기나 제3기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일으키시는 적임자들을 발견하여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들에게 외국유학 시키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키워주고 발전시키며, 점차적으로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게끔 하려는 그런 모델이다.

이처럼 장기적 신학교육에 있어 제자훈련적 성격과 일반 신학교육 및 목회자 훈련적 성격을 포함하여 진행 시키려면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습을 위해서 실습의 장이 될 만한 교회나 단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저절로 가정교회를 그 주변에 설립하게 된다. 또 자연스럽게 교회 전반의 모습을 띠며 선교의 형태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어떤 다른 모습보다도 위험성이 높고 투자할 자원의 정도와 수준이 크면서도, 동시에 종합적 총체적인 질서와 체계를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갖추어 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전 운영시키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꾸준히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을 착실하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앞을 보고 발전시켜가야 할 부분들을 보고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목회자(사역자)교육의 대상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 혹은 사역자 교육의 대상인가? 목회자 교육(사역자 교육) 혹은 신학교육의 대상들에 대해서 조나단 차오는 다음 5가지 대상을 언급한

다.

1. 제일 큰 가정교회 조직의 주요 사역자들. 이들은 이미 초급 중급 훈련과정을 이수했지만 좀더 고차원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 일을 위해 해외의 신학교 교수들과 경력있는 목회자들이 참여해야 할 일로서 내용은 일반적인 신학교 교과과정이다.
2. 하나 혹은 두 개의 현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들. 그들의 인도하에 있는, 한 현(顯)급 교회 안에는 또한 많은 지역이 포함된다.
3. 여러 다양한 분산적 거점 인도자들. 각 곳에 분산적으로 여러 거점들을 두어 가르치며, 또한 어떤 경우에는 연합으로 훈련시키기도 한다.
4. 캠퍼스 성경 공부 그룹 사역자들.
5. 삼자신학교와 복지기관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기타 대상.

**맺는 말**

중국 교회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일은 목회자를 배출해 내는 일이요 곧 신학교육을 바로 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중국 교회의 신학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우리는 간단히 살펴보았다.

복잡다난한 역사, 특히 지난 수십 년 간의 사회주의 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중국 백성과 중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일꾼들을 꾸준히 일으키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서 과연 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아무 것도 없고, 단지 그가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계꿈 인도하는 일에 그저 사용될 뿐이요, 보이시는 이상과 그의 뜻을 바라보는 영안으로 그 뜻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야 함을 알게 된다.

중국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들이 표현하는 그 영적 굶주림의 정도는 대단하다. 중국은 지금 포교 개척전도의 단계에서 기독교 신앙과 삶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해를 하길 원하는, 양육과 목회사역의 시대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단기간에 목회의 전반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학전반 교육을 필요로 하며, 교회의 조직과 행정

그리고 성례전과 권징을 포함한 교회 주요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은 지금, 지식인 신자들의 성경적 신학적 질문과 요구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가 생기고, 어느 때보다도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생겨나는 각종 이단들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외국선교단체들의 영향이 땀과 눈물과 복음으로 사수된 토착교회들에 미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하기 원하는 목적에서, 중국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전세계 교회의 역사와 그 다양한 현재의 모습이 실로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필요가 증대되는 때이다.

일터에 비해서 훈련받은 사역자가 너무 적은 상태이며, 과거나 현재의 각종 오류나 부족한 부분들로부터 생긴 문제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더욱 굳건한 새로운 시대의 기초를 놓아야 할 때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 중심적인 바른 신학교육의 기초를, 어쩌면 새로이 세우도록 부탁하시는 때이다.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반응해야 할 일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중국 교회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순종과 믿음은 들음과 배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교회는 바른 말씀교육에 근거한 바른 신학교육과 순종의 교육을 통하여 또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올라가야 한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손길을 계속 바라보며 지금과 앞으로의 중국 교회를 바로 보며, ‘성경적인 중국의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중국 국내외로부터 주께서 일으켜 주시길 기도한다.



# 단기 선교여행의 전략적 모델: 선교정탐

한 수 아

## 1. 들어가는 글:

### 낭비적 선교여행을 지양하자

여름이 오는 것을보니 선교여행의 계절도 함께 오고 있음을 느낀다. 단기선교여행이라 하면, 전에는 선교단체가 행하던 사역의 한 형태이거나 선교사훈련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으나, '90년대에 이르러 해외여행 붐과 함께 교회 및 개인적 차원에서도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어떤 분은 '97년 한 해 동안 단기선교 여행에 쓰여진 돈으로 약 56억 원(약 560만불)이 들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행이 선교목적을 이루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음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선교여행도 많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관광지로도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면에서 이러한 저효율적인 여행이 많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지역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IMF시대의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여, 보다 효율적인 단기 선교여행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유람식 선교여행이나 단순 방문 및 비전트립(자신의 비전 교취를 위한 여행)을 지양하고, 교회개척이나 선교전략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잘 준비된 단기 사역이나 선교정탐여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는 주로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 지역에서 기존의 교회

나 선교사를 도와서 하는 사역의 형태라면, 후자는 주로 미전도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전도종족 선교<sup>1)</sup>를 위한 선교정탐여행의 성격과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정탐이란 무엇인가?

### 하나님의 아이디어

정탐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은 성경 민수기 13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정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정탐을 하도록 명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슨 정탐이 필요했던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과 그 땅의 거민이었던 여러 종족들에 대해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즉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470년 만에 귀향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가나안 땅과 그 곳에 사는 종족들의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종족들은 '숨겨진 종족(hidden people)'이었다. 그들은 직접 그 땅에 들어

1) 미전도종족을 소수민족과 반드시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미전도종족이란 자립적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언어와 문화가 유사한 사람들의 큰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족 내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미전도종족 집단을 발견할 수 있다.



가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헛, 여부스, 아말렉, 아모리 등 가나안의 모든 종족들은 각기 문화와 생활습관이 달랐고, 군사력에도 차이가 있었다. 차후 정복 전쟁의 전략수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 3. 단기정탐 여행에 대한 의문들

정탐 여행의 필요성 뿐 아니라 여행 자체의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 단골로 등장하는 의문들이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소개하고자 한다.

#### 선교정탐의 정의와 목표

성경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어떤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리서치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미전도종족이 살고 있고, 사단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나아가려고 한다. 그 곳은 가나안 땅과 같이 미지의 땅이다. 우리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복음을 갖고 그 땅을 찾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교지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정탐의 필요성이다.

선교정탐이란 ‘미전도종족의 복음화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전략적 사역과 교회의 동원을 목적으로 한 종족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영적인 연구조사 활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탐을 통해 우리는 그 땅을 현지조사 하면서 구체적으로 ‘미전도종족 소개서’<sup>2)</sup>를 작성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 흑암의 땅을 밟는 최초의 제자로서 주님의 주권을 힘있게 선포하고, 그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묶는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 현지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과연 정탐을 할 수 있는가?

현지어에 익숙하지 않은 정탐대는 현장에 대한 숙지 정도가 부족하고 언어장애 때문에 제대로 정탐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지역에서 오래 살았거나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연구 목표와 방법론을 지니고 현장에 접근하는 연구자는 오히려 그 지역에서 오래 산 원주민들보다 훌륭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현장에서 오래 산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일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기가 쉽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관점도 부족하여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훌륭한 연구결과는 통역을 사용한 연구자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국에는 선교사가 아니라도 조선족이나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통역을 구하는 문제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짧은 기간에 무슨 리서치를 한다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2주 미만에 이루어지는 짧은 정탐기간이 한계가 될 수 있다. 물론 오래 연구를 할수록 더 깊이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 정탐’이 아니라 ‘정탐여행’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맞는 목표를 세운다면 단기 정탐을 통해서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정탐여

2) 종족소개서는 종족 프로파일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이는 한 종족에 대한 일종의 간단한 민족지(ethnography)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행 전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했던 내용을 단기정탐여행을 통해 조사하거나 기존의 프로파일을 검증, 보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행을 통해 기존의 종족 프로파일을 검증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 정탐의 중요한 목적은 사역자 자신보다 교회의 선교 동원에 있다는 점이다. 단기 정탐의 결과로 우리가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탐의 결과로 '숨겨진 종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교회에 소개하여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탐 여행 전에 수개월 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현장에 접근한 정탐팀들은 짧은 기간에도 놀라운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중보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단기정탐은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탐은 해당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닌가? 어떤 종족에 대해 가장 훌륭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현지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이미 다른 사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리서치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리서처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 정탐팀과 협력하는 것은 현지선교사에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현지 선교사들의 리서치 마인드와 협력의 마인드가 열려 있다면, 우선 자신이 알기 원하는 지역과 종족에 대한 리서치를 대신 해 줄 수 있다. 게다가 정탐팀은 앞으로의 사역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선교정탐을 위한 실제적 지침들<sup>3)</sup>

1) 팀을 이루어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탐원의 수는 적어도 두 명 이상으로 5명에서 10명정도가 이상적이다. 팀이 적을수록 이동하고 운영하기 좋다. 특히 현지에서 많은 사람이 팀을 이루어 이동하는 것은 눈에 띄

기 쉽다. 그렇다고 팀이 너무 작으면 구성원의 역할이 가중되어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

2) 각 팀원들은 가르침을 받을 자세와 책임자에 대한 복종, 밝은 정서,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타문화에 대한 융통성과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3) 모든 팀원들은 타문화권 내에서의 정탐을 위한 훈련을 받아서 정탐의 정신과 목적, 그리고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탐 전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현지 정탐시 원만한 팀워크와 역할분담을 위해 서로를 친밀히 알고, 서로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팀에서의 역할은 보통 팀 리더와 리서치 코오디네이터, 회계, 컴퓨터 담당자 혹은 기록자, 찬양 및 예배인도자, 사진담당자, 중보기도자 등으로 구성된다. 서로 인정하는 은사에 따라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5) 팀 리더로는 타문화권의 경험과 팀사역의 경험을 지닌 사람이 이상적이며, 가능하면 리서치 목표지역의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이 좋다.

6) 현지로 출발하기 전에 그 나라와 도시, 종족들에 대한 자료와 문헌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탐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나 인터넷, 선교단체 등을 통해서 정탐 종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예비 프로파일을 만들어 본다. 현지에 가기 전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주제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7) 출발 전, 현지에서의 정탐일정과 이에 따른 교통편과 숙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정탐지역의 사역자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현지에서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3) 정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AAP 편 '선교정탐훈련표준강의안'을 참조할 것. 단기선교여행을 나가기 전 정탐훈련을 받기 원하는 팀이 있다면 AAP(402-4967)로 문의할 것.



선교정탐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단체에 문의하여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다.

8) 정탐 종족에 대해 이미 알려진 정보나 정치적,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할 사항 등을 말해 줄 수 있는 현지 선교사나, 사역자와 연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미전도종족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우편물을 뜯어보거나 종종 기독교 사역자들의 전화를 도청하기도 한다. 따라서 편지나 전화를 사용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전문적인 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 가기 전이나 도착한 후 본격적인 정탐을 시작하기 전 이러한 부분에 지식을 지니고 있는 현지선교사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9) 현지 정탐은 주로 참여관찰과 인터뷰로 진행되는데, 단기 정탐의 경우 인터뷰가 중요한 정보수집의 도구가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탐을 위해서는 좋은 정보제공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역시 인근의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적당한 사람을 사전에 소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여 현지에서 만나기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종족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구 항목에 기초한 질문 목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다.

10) 정탐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현지에서 제작된 지도, 신문이나 잡지, 서적, 또는 사진이나 의복, 악기, 공예품, 문양, 음악테이프 등을 수집한다.

11) 현지 정탐시에 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갖는다. 매일 그 날의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서로 확인하며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나 질문 목록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 전략적 아이디어를 찾는 브레인 스토밍을 한다든지, 종족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제목을 목록화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혹은 다음날의 연구 일정이나 역할분담에 대해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12) 현지에서의 기록은 정확하고 정리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나중으로 미루거나 본국에 돌아가서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상이다. 필드노트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나중에 주제별 정리를 편리하게 하며 자신의 느낌을 적는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의 기록을 위한 노력은 정탐 후의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해 준다.

13) 정탐의 목적은 종족 정보를 모으며 그 종족을 위해 기도하는 데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접근제한 지역에서 공개적인 복음전도를 시도하는 등, 때로 어떤 사소한 행위가 미래의 사역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정탐 지역의 새로운 땅을 밟고 떠날 때마다 그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단을 대적하며 중보기도하는 '땅밟기 기도(혹은 여호수아 걷기)'를 하는 것이 좋다.

14) 정탐 시 소속 지역교회나 단체에 미리 알림으로써 기도와 물질로 사역을 후원하게 하며 귀국 후 정탐 결과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중보기도자를 개발하여 정탐기간 중 책임감 있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15) 무엇보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당시, 열 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에서 출발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하여 자신들과 가나안땅의 장래를 그르쳤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정탐하는 종족의 운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땅의 종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16)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정탐은 중요한 사역이며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대부분 수천 년 간 사단의 영이 통치를 해 온 곳이며, 그 통치권을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전략적인 종족 정보를 얻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병으로, 현지인의 비협조나 방해로, 경비의 부족이나 팀 내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목표를 모호하게 하여 단순한 여행에 그치도록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탐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주님께서서는 미전도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개척자들을 기뻐하시며 그 일에 함께하실 것이다.

### 5. 맺음말: 정탐의 즐거움

수주 전에 수도권에 있는 한 지역교회가 중국의 야오족을 입양하였다. 그들은 입양하기 전에 먼저 정탐훈련을 받고, 선교위원들을 중심으로 종족정탐대를 조직하여 그 종족을 정탐하였다. 그들은 선교 정탐여행을 다녀온 후 교인들에게 그 종족을 소개하였다. 이제 그 교회는 그들이 보고 돌아온 종족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여행은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발걸음이었다.

지난 겨울에 투자족을 정탐했던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점심을 먹으면서, 투자(土家)족의 발원지인 ‘장양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순종하는 걸음마다 일일이 계획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나의 인생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강하게 밀려오고 있었다.”

필자도 여러 번 중국의 미전도종족을 정탐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번 여름 선교여행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을 단기 선교여행의 전략적 모델인 선교 정탐 여행으로 초대하고 싶다. 그 여행은 매우 모험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의 인도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당신이 만날 종족의 운명과 함께 당신의 미래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수아 / AAP 선교사, 본지 편집위원

您這是兩塊，找你五分。 / Nín zhè shì liǎng kuài, zhǎo nǐ wǔ fēn.  
(넌 저 스 량 콰이, 자오 니 우 편.) 2원을 주셨으니까, 5전을 거슬러 드리지요.

## 중국인의 성격-원만성

‘캐릭터(character, 성격)’란 말은 하나의 전형적인 영어 단어이다. 영국인을 제외하고는 중국인처럼 교육이나 인간성의 이상적인 형태로 성격을 강조한 국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인들은 성격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그들의 모든 철학은 전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실 이외에는 전혀 돌아보는 일이 없고 완전히 종교적인 환상에 빠지지 않은 채, 이 이상적인 성격이란 과정은 문학작품과 연극 속담 등의 영향을 통하여 하층 농민에게 까지 파고들어 그들에게 하나의 생활 철학을 간직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영어의 성격이라는 말은 저항력, 용기, 인내력 등을 뜻하며 화가 나거나 실망한 순간에는 시무룩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어에서는 ‘성격’이란 말은 자신과 남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원숙한 인간의 원만한 성품을 뜻한다.

송 나라 시대의 철학은 감정을 억제하는 이성의 힘과 우월성에 신뢰감을 두고 있으며, 인간성은 자신과 주위사람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잘 이해함으로써 어떠한 역경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초급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공자의 입문서인 『대학』에서는 이 ‘대학’을 ‘밝은 덕’의 완성을 이루어 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밝은 덕’이란 영어로는 그 표현이 어렵겠지만, 지식을 통하여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원숙한 인격에 도달한다는 가르침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생활과 인간성에 대해 원만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항상 이상으로 삼아온 성격으로,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이해심으로 중국인의 특징인 평화주의,知足(知足), 고요함, 인내력과 같은 성격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유교 철학에서 보면 성격의 힘은 곧 이성의 힘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신을 수련하여 그러한 덕을 향상시켰을 때 인격이 연마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덕은 유교 철학의 숙명론에 의해 이룩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숙명론은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는 커다란 원천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름답고 재능있는 처녀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지만, 만일 그녀의 결혼이 하늘에 의해서 운명지워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서 만족하며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서 달리 생각해 본다면 남편은 전생의 원수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이러한 싸움도 항상 하늘이 자신들을 굽어보며 만든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중국인」 입어당 지음 신해진 옮김, 도서출판 장락 중에서

북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 베이징(北京)

베이징은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일컬어지는 3천년 역사의 고도(古都)이며 중국의 수도이다. 중국의 정치·경제·행정·문화·학술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을 비롯해서, 천안문 광장, 고궁박물관, 이화원, 천단공원, 명십삼릉, 향산 등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베이징이 가진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은 1949년 이래로 불어닥친 현대화와 공업화의 바람에 의해 거의 파괴되었다. 아직도 도시 일부에는 옛 모습을 상기시키는 부분이 남아 있다. 불멸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훌륭한 건물들과 오래된 음식점, 전통공예품 등에서 과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 행정구역

허베이(河北)성 중북부 중앙에 위치한 중국의 수도.

### 총면적

1.68만km<sup>2</sup>

### 인구

1,300만 명(1997년 현재)

### 기후

서울과 거의 비슷하지만, 서울보다 여름에는 약간 덥고, 겨울에는 약간 추운 편이다.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5℃ 정도이고 7월의 평균기온은 26℃정도이며 강수량은 연평균 635mm정도인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대에 속한다.

### 역사

베이징을 말할 때 종종 '천년의 왕도(王都)'라는 말을 사용한다. 베이징이 처음으로 10세기 무렵에 역사에 등장하여 1421년 명·청조 시대부터 계속 중국의 수도가 되었다. 1921년 신해혁명으로 청왕조가 멸망한 뒤 수도는 난징(南京)으로 옮겨졌다.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위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다시 수도의 지위를 되찾았다. 이후 천안문 광장은 현대 중국의 굵직한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1960~1970년대의 문화대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1989년 6월 천안문사태 등 격변하는 현대의 정국이 일어난 곳이다. 지금도 천년의 왕도 베이징의 역사는 끊어지지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사회 및 경제

베이징시의 중심인 천안문 광장으로부터 18km 이내에 16개의 공업·과학기술·교육 등 비슷한 성격의 새로운 건설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원교에는 황촌(黃村), 연산석화구(燕山石化區)·창평(昌平)등 위성도시가 개발되었다. 신 건설지구에는 농경지, 채소밭, 과수, 목장이 남아 있고, 도시는 '분산 집담'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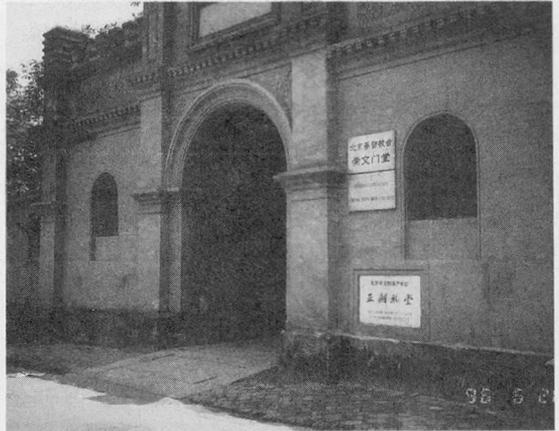
5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단순한 소비도시에서 공업·과학기술 및 정보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중국과학원과 중국사회과학원 등 각종 연구기관과 중국의 자존심인 북경대, 청화대, 인민대 등 많은 교육기관이 있다. 베이징은 1천 년을 이어온 수도답게 현존하는 역사 박물관 그 자체이다. 게다가 120만 명이 넘는 과학자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있다.

또한 베이징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회족, 위그르족을 비롯하여 만주족, 조선족 등 40여만 명의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농촌에서 올라온 단기체류 노동자들이 3백40여만 명 정도 있다.

최근들어 연 10%의 속도로 자동차가 증가하여 베이징도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종교 및 기독교 현황

기독교가 베이징에 전래된 것은 1807년 개신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중국 전역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 베이징 지역에 60여개소의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 성장하였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어떠한 종교활동도 허용되지 않아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베이징시는 8개의 공인 삼자교회와 300개의 집회장소가 있다. (사진은 베이징의 충원문(崇文門)교회)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되어 현재는 매년 1,500명씩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베이징시는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8개의 공인교회와 300개의 집회장소가 있을 뿐이다. 지금 베이징시에서 제일 큰 교회는 충원문(崇文門)교회인데, 매주 2,000여 명 정도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베이징 시의 신도는 약 2만 명쯤 되고 목사가 30여명 정도가 있다.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는 연경신학원(燕京神學院)은 중국의 화북, 서북 지역에 있는 10개 성시에서 사역할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경신학원을 통해 젊고 유능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 기도제목

1. 베이징에 거주하는 1천3백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2. 연경신학원에 좋은 교수진이 확보되고, 이 신학원을 통해 농촌교회에서 사역 할 목회자들이 많이 양성되어 농촌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3. 이미 언어가 준비되고 현지 적응능력이 길러진, 베이징에 거주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전문인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4. 베이징에 있는 한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중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기질 수 있도록.

## 텐진(天津)

텐진은 중국 북부 최대의 항구(港口)로 해륙교통(海陸交通)의 중심이자 베이징, 상하이, 충칭과 더불어 중국의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이며 상하이 다음 가는 중국 제2의 공업도시이기도 한다. 텐진시는 120년의 오랜 공업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개혁개방 이래 중국 북방의 경제, 상업, 무역, 금융의 중심지로서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북방의 주요한 무역 통상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텐진항은 중국의 수도로 통하는 해상관문일 뿐만 아니라, 베이징을 비롯한 화북, 서북 지역 16개 성시에서 해외로 통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텐진시는 앞으로 북방의 상업, 무역, 금융 중심, 첨단 기술의 종합적 공업 기지, 현대화된 국제 항구도시로 21세기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 행정구역

허베이성의 텐진 직할시, 13개구, 5개현으로 구성

### 총면적

1.13만km<sup>2</sup>

### 인구

928만 명(1997년 현재)

### 기후

온대 대륙성 몬순 기후. 연간 강수량 500~700mm, 무상기(無霜期) 연 200일 이상. 7, 8월 평균기온은 25~26℃(최고 35~37℃). 12, 1월 평균기온은 -1~-3℃(최저 -12℃정도)이며 연평균 온도는 12~13℃이다.

### 역사

텐진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영락 2년(1404)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한 명조는 식량을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옮기는 수로의 중계기지로서 이 마을을 건설했다. 그러나 텐진이 상공업 도시로 발전한 것은 1860년의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됨에 따라 대외무역항의 하나가 된 후부터이다. 1901년 체결된 신축조약의 결과로 텐진에는 8개국의 조계(租界)가 설치되었다. 이후 각국의 공사관, 상사, 은행 등이 설치되어 텐진은 점차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텐진은 열강의 중국인민 수탈의 기지로서 대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그 뒤 1919년의 5·4운동 이래로 텐진은 중국 혁명사상의 중요한 사건의 무대였다. 그런 이유로 신흥 상공업 도시 텐진에서는 중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역사적인 명소와 유적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 사회 및 경제

정치적 도시인 베이징과 비교적 가까운 탓에 도시가 안정되어있고 물가는 대도시치고는 싼 편이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다른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자전거로 시내 곳곳을 이동하기 편리할 정도로 도시가 평평하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텐진시가 대규모 경제 투자단을 유치하면서 한국의 기업인들이 화북 및 동북 지역의 내수 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여 전체 38,400여 개의 공업기업이 있으며, 생산액은 998억 원으로서, 생산량의 크기로 본 공업부문으로는 방직, 기계, 제련, 식품, 전자, 석유, 제지 및 문구 용품이 있다.

앞으로 텐진은 경방공업과 상업방면의 양호한 조건을 계속 발휘하여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텐진 신



텐진시는 앞으로 현대화된 국제 항구도시로 21세기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사진은 텐진의 문화거리)

항은 더욱 개발되어 중국 북방 최대의 종합 상업 항이 될 것이다.

### 종교 및 기독교 현황

1949년 당시 교회당과 사찰이 2백 9개나 되었으나 1966년 40여 개로 줄었다가 현재는 회교사원(清真寺)이 29개, 천주교 교회당이 2개, 기독교 교회당이 4개, 불교사찰이 1개가 있다. 텐진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난 후이며 개항과 더불어 기독교의 선교 활동 중심지가 되었고, 20개가 넘는 선교회가 활동했다. 1954년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성립되었으며 문화대혁명 때 폐쇄되었다가 79년 12월 다시 개방되었다.

현재는 시내 3곳과 시외 1곳에 교회당이 있으며, 공개되지 않은 가정교회의 형태로도 여러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텐진은 특히 전세계 80만 명 이상 되는 도시 중 인구비례당 복음화가 안 된 도시 중 세 번째이

며, 중국 도시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인 지역이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텐진에서 사역하시는 이들이 더욱 더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기도해야 한다.

### 기도제목

1. 텐진으로 이주해 온 유학생과 주재원, 기업인들이 선교적 사명을 갖고 중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2. 중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되어 황량한 화북 평원의 영적 사각지대인 텐진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3.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며 따라 텐진에도 도시선교 전략의 필요성이 높다. 중국 교회가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4. 물질이 최고 목표인 그들의 강해지고, 메말라진 그래서 서로를 불신임하고 상처를 주고자하는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넘치도록.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중국에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사람으로 초등학교 1명과 중학생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중국에 가서 어떻게 자녀교육을 시켜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저는 장기적으로 사역할 선교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래서 당분간 베이징에 머물면서 언어연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베이징에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베이징에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별도로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무엇이든 외국인에게 더 비싼 값을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의 학비도 그렇습니까? 학생들의 1년 학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베이징에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베이징에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별도로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무엇이든 외국인에게 더 비싼 값을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의 학비도 그렇습니까? 학생들의 1년 학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A

서구 선교단체의 경우 한 지역에 선교사 자녀가 네다섯만 모여도 선교사 자녀학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는 곳은 필리핀뿐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아직까지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교사 자녀학교를 베이징 안에 설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베이징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은 팡차우띠(芳草地)초등학교와 베이징 우스우(五十五)중학교에 한해서만 입학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저널』 제35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외국 학생의 편·입학이 허용되는 학교가 초등학교 4개교와 중등학교 5개교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가된 학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괄호 안은 전화번호). 초등학교로는 징산(景山)소학교(6526-7755), 서얼(西二)소학교(6849-8653), 팡차우띠(芳草地)소학교(6509-4358), 쉰우스옌이(宣武實驗一)소학교(6303-7631) 등입니다.

중학교로는 베이징우스우(北京五十五)중학교(6416-9574, 8025), 베이징얼스리우(北京二十六)중학교(6712-4120), 베이징스판파쉐스옌(北京師範大學實驗)중학교(6603-6431), 징산(景山)중학교(6526-7755), 런민따쉐(人民大學)부속중학교(6255-2382) 등입니다.

이 중국학교에서는 중국어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중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주의식 교육

이 중국학교에서는 중국어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중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주의식 교육

이 중국학교에서는 중국어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중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주의식 교육



을 통해 중국문화를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부모님들께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 한글학교가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일반한국 기업인들이 만든 주말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한국인으로서 정체감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또한 영어로 공부를 하는 서양 사람들이 설립한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비가 너무 비쌌 뿐만 아니라(한 학기당 미화 16,000달러 정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결국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실력을 쌓을 수는 있지만 서양문화까지 함께 배우게 되므로 역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현지학교이든 국제학교이든 모두 장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직 부족한 부분을 가정에서 교육하고, 철저한 신앙훈련을 곁들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비는 외국 학생들이 중국 초등·중학교에 편·입학을 할 경우 학교 측에서 입학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스우(五十五)중학교의 경우 입학금을 미화 2,000 달러, 학생 1인당 1년 등록금은 미화 2,800달러를 요구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학부모들의 형편을 감안해 학비를 20% 감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교육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민들의 위해 최근 베이징에 초·중등 과정의 '한국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육부에 학교 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중국 교육부와도 한국학교 설립에 따른 인허가와 교사(校舍) 확보 등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 이 한국학교가 설립되면 자녀교육을 위한 한국 부모님들의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중국선교 사역을 잘 준비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석은혜 / 본지 편집장

선교 다이제스트

# 허드슨 테일러에게서 배우는 100가지 교훈



그리스도 안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1832~1905)는 현재 전세계에 천여 명의 사역자를 파송하고 있는 OMF international의 전신인 중국내륙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를 창립한 사람이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위대함을 가진 거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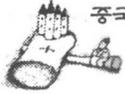
무엇이 그를 일생동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했을까?

그의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를 그런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했을까?

그의 삶과 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로저 스티어 저/ 안보현 역, 생명의 말씀사, 신국판 176면 · 값 4,700원



## 중국 교회 체험기 (15)

# 마게도니아의 외침

전 중 인

구름층을 뚫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양자강의 양안에 드넓게 펼쳐진 작은 시골마을이 어슴프레 보였습니다. 마을 속으로 조용히 형제자매들에게 이별을 고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곳의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한 형제의 주선으로 내지의 농촌교회를 방문하여서 거기서 양육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도착한 후에 접한 소식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가지 마시오. 책임을 맡은 형제도 공항에 가서 당신을 마중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말씀을 묵상할 때, 신명기 1장 33절의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행보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응답에 의지해서 모든 여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만약 가정교회 형제자매들과 만나지 못한다면 신앙서적과 성경연구서적들을 좀 가져가서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과 형제자매들에게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믿고 행하다

홍콩에서 그곳 성도 몇 분의 전화번호를 찾아 놓았다가, 대륙에 들어간 후에 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로 연결된 분은 의사였는데, 그분은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제가 크리스천이란 것을 확인한 후에 그분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서야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니, 저는 바로 그분 집의 문 앞에 서서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도착하니 안에는 이미 두 명의 시골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비행장에서 나를 마중 나왔어야 할 A형제였습니다. 알고보니 저를 초청하고자 했던 편지가 공안에 의해 개봉되어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최근 백여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하나는 신부고 하나는 황후라고 하면서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린 한 이단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독을 마시고 승천할 날짜를 정했다가 공안에

這蘋果不錯，慚不慚? / Zhè píngguǒ búcuò, tiánbùtián?  
(저 사과 부추오, 티엔 부 티엔?) 이 사과 괜찮아 보이는데, 달아요?



장승원 그림

발각되어 무력 투쟁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 때 몇명의 공안이 다쳤기 때문에 그 일대의 교회는 엄한 감시, 체포, 단속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형제는 임시로 이번 집회를 취소하기로 통지하고 저와 만나는 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딸이 병이 나서 농촌에서 나와 의사를 찾을 때 저와 우연히 만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원래의 계획대로 함께 그분의 교회에 가서 형제자매들과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의심없는 길

그날 밤, 형제가 마이크로 버스(소바: 주로 홍콩에서 쓰이는 말)를 가져와서 몇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버스 한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5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버스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줄곧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마을에 이르러 그 형제의 집을 고작 2km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지점의 길가에 번호판을 달지 않은 지프차 한 대가 세워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몇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사람들과 차가 모두 낯설다면서, 차에 있는 한 형제에게 왜 밤 3시도 넘었는데 차를 길가에 세워 놓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차가 고장나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차 고칠 사람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고 추적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형제는 즉시 차에 기름을 채우고 급이쳐 들어간 곳으로 들어가서 뒤에 따라오던 차가 우리를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차 위의 한 어린 형제에게는 나를 데리고 논 가운데로 피하도록 하면서, 그

這是紅香蕉蘋果, 挺括的。 / Zhè shì hóng xiāngjiāo píngguǒ, tǐng tuān de.  
(저 스 홍상자오 핑궈, 텅 티엔 더.) 이건 붉은 바나나사과라고 하는데, 아주 달아요.



장승원 그림

들이 뒤에 추적해오던 차를 따돌린 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아침 여섯시쯤 되자 하늘은 이미 밝았고, 눈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피할 곳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시외버스를 타고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막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형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그 몇 대의 차들은 계속 그 형제의 집 문앞까지 따라왔다가, 제가 그 차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 또다른 마을

다음날 아침 B형제를 만났는데, 그는 A형제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난 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서 한 번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자신들의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들과 함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점심을 먹고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B형제의 집에 도착한 후 밤새껏 부근에 집회를 인솔하는 형제자매 30여명을 소집하였고, 다음날 일찍부터 일어나서 양육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아침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전심을 다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교회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을 토론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보았고, 또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함께 동역하시며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시고 범죄한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육을 시작한 후 다른 교회의 형제자매들도 소문을 듣고 집회에 함께 참석하게 되어, 끝날 때는 모두 6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헤어지기 아쉬워하면서 저에게 꼭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재삼

요청했고, 또 해외의 형제자매들에게 마게도니아의 외침을 말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인식하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농촌교회의 성장은 매우 빨라서 어떤 성도들은 초등학교의 학력으로 성경을 읽을 수만 있으면 영접하고, 반년이 안 되어도 집회를 인도하고 백여 명의 형제자매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외부의 형제자매와 목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도와주고, 교도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수망중화 98년1-2월호 중에서  
번역/ 여수옥, 자원봉사자



현지에서 온 소식

# 예수 마을

작은자

현장을 방문한 두 형제와 함께 최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지를 방문하였다. 신학교 동기인 윤 목사는 칙칙한 색깔의 점바와 후줄근한 바지, 밑창이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제과선교회장인 이 형제는 청바지에 하얀 운동화 차림이어서 윤 목사가 주의를 주었다.

## 현지인 사역자의 집

'미엔빠오차(面包車)'에 몸을 싣고 3시간여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려보니 차장과 약속했던 기차역이 아닌 생소한 곳이었다. 삼륜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동안 벌써 지쳤는지 이 형제는 아직 멀었는지 물었다. 역에서 1시간을 기다린 "쥬" 동역자와 함께 그 지역 복음사역자 대표자의 집으로 향했다. 5명의 동역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은 피곤에 지친 나그네를 위로하기에 충분하였다. 독신이며 21년 간 영어교사로 주를 섬겨온 자매는 우리 4명의 남자를 위해서 집을 비워주고 다른 동역자집에 가서 잤다. 다음날 아침 한 동역자가 어젯밤에 잠밖 잊었다며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 수십 년을 지하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겨온 나이 많은 동역자의 겸손한 자세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성경께서는 그분의 문제와 필요를 알게 해 주셔서, 기도를 마친 후 그에게 성경께서 감동으로 주신 내용을 전하며 위로해 주었다.

## 중국인 동역자들

농촌에 오기 위해 우리는 옷차림에 신경을 썼지만, 이 형제의 하얀 운동화와 청바지가 역시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그 지역의 교회는 교인들이 벽돌로 지은 창고 같은 독립건물로 아파트 한결에 있었다. 한 자매가 문결에 있다가 미소를 띠며 열린 문을 열어주었다. 긴 나무의자에 뻘뻘히 앉은 이들 대부분이 이 지역의 가정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라고 한다. 100여 명이 운집한 토요일의 집회는 매달 한 번 북쪽 지역 교회의 지도자, 동역자들이 이 한나절을 함께하며 찬양학습과 설교를 듣는다. 강사들은 대개 교사출신 지식인 동역자들로서, 뜨거운 헌신으로 교회회사와 전도를 하면서 핏박을 체험한 이들이다. 아무도 이 일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 말하자면 텐트메이커들이다.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퇴근 후에는 설교와 전도, 심방으로 시간을 보낸다. 1년에 몇 차례는 성(省)을 넘어 장거리 순회설교를 나간다. 그러다 공안에 붙들리면 옥살이를 당하지만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그저 기쁨으로 계속한다.

내가 설교를 마친 후 그 곳 지도자의 집에 쉬고 있을 때에도, 전도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방금 돌아온 두 자매를 보았다. 이 지역의 일꾼들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힘에 넘치게 한다. 교육전도사, 심방전도사, 담임목사의



### 현지에서 온 소식



장승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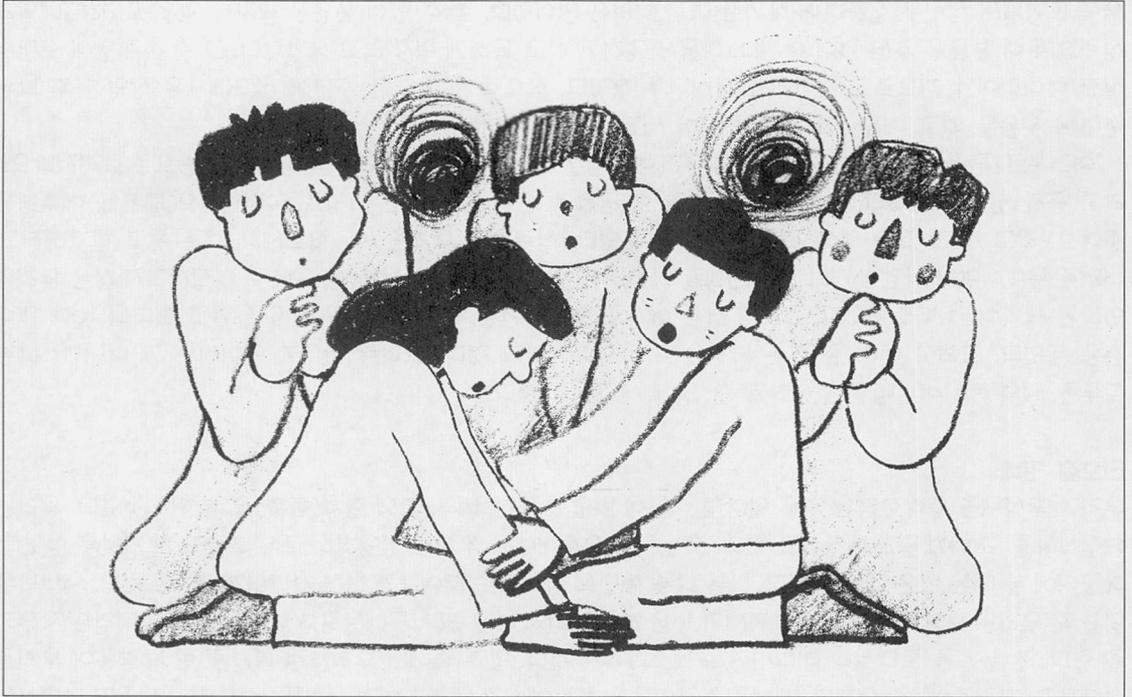
사역들. 그 외에도 위험한 사역을 감당하며 자급자족하기 위해 생업에도 열중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가운데 아무도 신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심적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나니, 지금까지 내가 받은 신학교육과 선교훈련은 바로 이분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곳에서 내가 가장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다. 단에 오르니 이 남고 댜새나는 교회에서 비좁게 앉아 말씀을 사모하는 열기에 가득찬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몽글한 감동으로 함께 주를 찬미하였다. 주 안에서의 위로와 참된 소망,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얻을 아름다운 열매와 선교적 사명을 나는 내가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2시간이나 뜨겁게 전하였다.

### 그들이 내린 헌금

모임 후에 많은 동역자들과 한 집에 모여서 풍성하게 차린 식탁을 마주 대하고 앉아 교제를 나누었다. 주를 향한 그들의 열심과 결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식사 후 친숙한 한 자매가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별안간 돈을 꺼내어 건네주었다. 놀란 내가 무슨 돈인지 물었더니 교회분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 현지에서 온 소식



장승원 그림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감사헌금을 해서 1,000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교인 300명인 농촌교회가 한 달에 한 번 헌금상자를 개봉하는데, 약 500~600원이 모인다고 한다. 자신들의 두 달치 헌금전액을 겨우 두 시간 설교한 나에게 주고자하는 그들의 거룩한 정성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주를 찬양했다. 나의 간곡한 말과 함께 다시 헌금으로 그들에게 되돌아 갔지만, "선교지에서 사랑을 베풀 때보다 받을 때 진짜 사역이 시작된다"던 선배님들의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이 무척 기뻐다.

### 최입선 교회

이미 어두워진 길을 바쁘게 걸어오면서 친구에게 설교할 것을 권했으나, 그는 여전히 사양하기만 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산상복음을 강해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교인들이 꽂 들어차 있는 교회로 들어갔다. 교회의 앞자리에 아이들 20~30명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였다. 또 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만 준비했는데, 나의 중국어는 아직 모든 청중이 100% 알아듣는 수준도 아닌데다, 하물며 아이들이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경을 바빠 뒤적이면서 기도했으나 어른, 아이들을 쉽게 만족시킬 만한 본문이 잡히질 않았다. 성도들은 시편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땀을 흘리면서 설교본문을 찾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중국어성경인 데다가 집회가



## 현지에서 온 소식

워낙 뜨거워서 정신을 집중하여 찾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할 수 없이 본문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고 "원래 성경께서 이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독하게 먹지"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평안이 오면서 설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줄거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참으로 번개 같은 순간에 설교내용을 장악한 후 나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여유있게 성도들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느껴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나요?" 라고 묻자 침묵이 흘렀다. 짧은 침묵을 깨고 한 남자가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예수 하오(耶穌好-예수님은 좋아요)"라고 했고, 그의 말에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성경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자 때론 웃고 심각해지고, 어깨를 들먹이면서 시간이 지나갔다. 설교를 마치려 할 즈음에 그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했더니 10여 명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이어 손을 든 사람은 모두 일어서라고 했다. 그러자 모두가 일어서는 게 아닌가! 나는 모두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뒤에 설교를 마쳤다.

### 단오절 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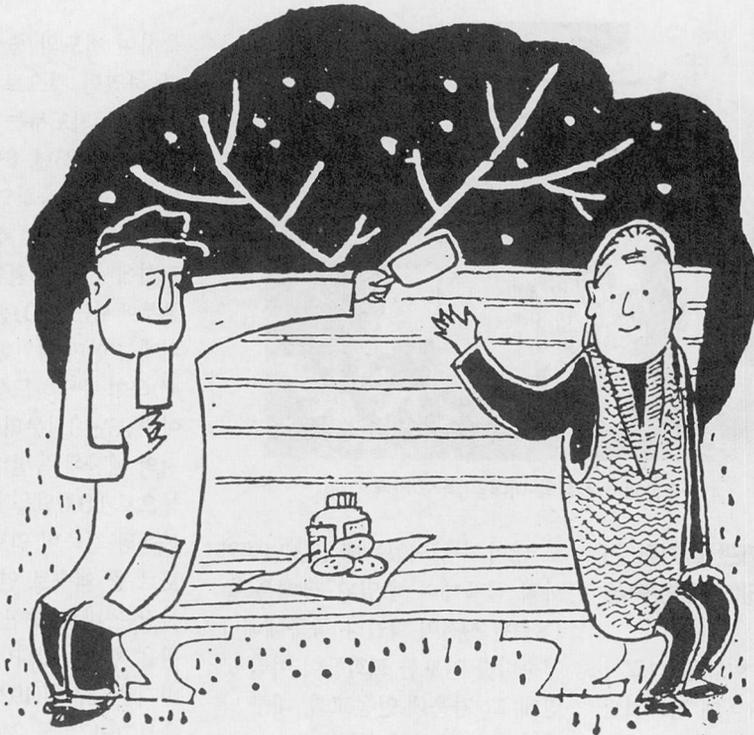
우리가 푸성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챈 이들이 텃밭의 무청, 배추, 파와 향채(香菜)를 뽑아다 놓았다. 우리는 아침식사를 그 야채들과 된장으로 했다. 오늘은 단오절이어서 우리는 찬양하며 먹을 계란과 오리알을 삶았다. 아궁이에 불 때는 일은 내 차지였다. 나는 나를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새벽밥을 먹은 후 우리는 보따리를 싸들고 대기시켜 놓은 리무진 마차에 올랐다. 동네사람과 아이들도 타고 더러는 자전거를 탔다. 긴 농로를 오다보니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린다. 안개 속에서 우리처럼 마차를 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외친다. 대체로 중국인들은 표정이 무표정인데 여기 사람들은 잘 웃는다. 좀더 가다보니 수많은 성도들이 마차나 자전거를 타고 즐지어 모이는 장면이 참으로 장관이다.

집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흥집교회 앞에는 말들과 마차가 즐비하고 숲 속에서는 600여 명의 성도들이 원을 그리며 모여 있었다. 원 안에는 중심되는 동역자들이 찬양과 울동을 인도하며 빙빙돌고 있다. 나도 그 속에 합류했다. 찬양을 부르며 추는 춤은 아프리카 단기선교 때 마사이부락에서 경험하고는 처음이다. 이들은 이렇게 반주나 밴드도 없이 숲 속에 모여 하루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단오절을 보낸다고 한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기쁨의 흥조만이 있었다.

몇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다가 우리는 춤판을 뒤로하고 조용히 떠났다. 동행했던 윤 목사는 펍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다른 지역에 가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고 했다. 기술선교회 회장인 이 형제는 말로만 듣던 선교사역이 이렇게 장애가 많고 극복하기 힘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회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냐며 감사하였다. 동행했던 두 형제가 언어소통과 문화습관의 차이로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화"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곳에서 보낸 4년 반의 인고의 세월은 그냥 흘러간 헛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 남녀 사이엔 거리가 없다?

우 싱 홍(吳興宏)



날로 날로 성문화가 개방되고 있다. 이제는 거리에서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남녀들의 노출된 모습은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성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개인주의가 강한 중국도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지난날, 우리 어른들이 수줍은 듯 서로를 바라보던 이 모습은  
이 땅을 사는 청소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까?

# 토비도 감동시킨 이대영 목사

## -이대영(李大榮) 목사(2)-

김 교 철



산동선교사 시절의 이대영 목사 가족

### 1. 즉묵(卽墨)전도기관 설치의 건 (즉묵예배당-선도당(宣道堂)/복음당 건축)

1925년 총회에서는 이대영 선교사의 연임과 동시에 즉묵에 전도기관을 설치하는 건이 통과된 고로 선교사 이대영 목사는 본국 조선장로교회들을 순회하며 연보를 청하였다. 이대영 목사의 본국교회 순회시기가 언제였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확실치는 아니하나, 1925년 9월 총회 이후 일정기간 동안 174원 20전을 본국순행비로 사용하면서 순회하며 선교비를 호소하였다. 순회청연한 금액은 총 3,512원 47전이었고, 그 밖에 물품대(119원 43전)

도 많이 수입되었는데 1926년 8월까지 물품대와 수입된 금액은 총 1,889원 29전이 되었다. 즉묵예배당 건축비를 연보한 교회들이 여러 곳인데, 그 가운데 안동교회, 대구 남성정교회, 대구녀성경학교도 연보에 참여하였다. 즉묵전도기관이란 것은 즉묵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으로, 즉묵에 중국교인들은 있으나 예배당이 없는 고로 예배당건축비용과 전도사역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즉묵선교사 이대영 목사는 즉묵에 선교기지를 두고 활동하기 위해서도 그의 중국 선교 사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즉묵에 예배당을 건

축하여 전도의 중심기관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총회외국전도부는 즉묵예배당 건축비로 1926년 8월 말까지 우선 1,555원을 지출하였고, 1927년 예산에 즉묵전도기관 설치 비용으로 선교회에서 2,660원을 청구하였으나 본부에서는 1,000원만 허락하고, 그 외에는 이미 청연한 금액을 수봉(收捧)하여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 9월부터 1927년 8월 말까지의 예산에 특별비(즉묵복음당)항목으로 1,000원을 책정하였다. 즉묵복음당 건축비 연보 가운데 개인연보로 큰 액수로 연보한 사람 중 한 사람은 바로 주현칙 장로이며 200원을 현금하였다(즉묵복음당 건축비지출 374원(1927.9-1928.8월 지출보고-17회록 24쪽).

즉묵성 복음당과 전도실 건축위원으로 박상순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박 목사의 통지를 받고 순회전도사역에 임하던 이대영 목사도 참여하여 정초식을 거행하였다. 조선장로교회의 전적인 재정보조에 의하여 즉묵에 건축하였던 복음당은 중국동란의 위협 중에도 1927년 8월에 무사히 준공되었다.

**2. 이대영 선교사 담당 지방 및 교회 상황(1925.9월-1933년)**

중국어를 배우며 준비 중에 있던 선교사 이대영 목사는 1925년 연임결정 이후부터 홍승한 선교사가 담당하던 지방과 함께 추가로 대인관지방 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대영 선교사가 담당하였던 지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5. 9-1926. 8/즉묵성(即墨城), 궁가장(宮家庄), 박자(泊子), 오산위(鰲山衛), 대인관(大仁觀), 지방(芝坊).

1926. 9-1927. 8/상동(6개지방 담당).

1927. 9-1928. 8/즉묵성, 궁가장, 박자, 오산위, 대인관, 풍성(豐城)(풍성이 추가되고 지방이 삭제됨)

1928. 9-1929. 8/상동(6개지방 담당).

1929. 9-1930. 8/상동(6개지방 담당).

1930. 9-1931. 8/상동(6개지방 담당).

1931. 9-1932. 8/상동

1932. 9-1933. 8/상기 6개 지방교회 외 괘리(藪里)가 추가됨(7개 지방 교회 담당).

이대영 선교사는 즉묵을 중심으로 향촌교회들을 담당하여 순회하며 활동을 하였으며, 지방교회 중국 전도인들을 재정적으로 보조를 하였다. 이대영 선교사는 6개 지방을 담당하다가 1932년 9월부터 1개 지방을 추가하여 7개 지방 교회를 담당 사역하였다. 담당하였던 지방교회들에 관하여서는 간략히 소개하

고 다음 기회에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즉묵성교회**

조선장로교회의 즉묵선교사는 1922년부터 홍승한 선교사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즉묵에는 이미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즉묵선교에 착수한 홍승한 선교사는 중국인 남녀전도인과 동역하였으며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홍승한 목사가 본국총회의 소환으로 귀국하게 되자 박상순 목사가 대리하였고, 1925년 9월부터는 이대영 목사의 담당 선교지방에 포함되는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다. 즉묵에 선교기지를 둔 조선선교사 이대영과 박상순 목사에 의해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1927년부터 193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균 50~60명이 모이는 교회로 유지되었다.

1933년 이후의 기간에는 중국인 목사 범순청 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여 교회를 유지시켜 나갔으나 중일 전쟁과 국공내전, 중국 공산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으며, 이대영 선교사의 적극적인 모금으로 건축되었던 즉묵예배당(宣道堂)은 흔적조차 찾을 길 없게 되었다. 1998년 현재, 즉묵에는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한 개 있는 형편이다. 즉묵예배당이 건축되었던 즉묵 하남(河南)거리를 돌아보면서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원하였다.

**2) 궁가장(宮家庄)교회**

궁가장교회는 미국선교사들의 선

교적인 노력에 의해 설립되었던 교회로 조선선교사들이 맡게 된 교회이다. 1920년 당시 장로 1명, 집사 2명, 남녀 전도인 각 1명, 세례교인 80명이 있는 비교적 큰 교회였다. 박상순, 홍승한에 이어 이대영 목사가 담당하는 지방교회가 되었으며, 1928년에는 장로 3명, 집사 4명, 남전도인 1명, 세례인 128명이었고, 매주일 7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이대영목사가 담당하던 지방교회 중 가장 큰 교회였다.

**3) 박자(泊子)교회**

박자교회는 교동노회 소속교회로 1920년 6월부터 조선선교사들이 담당하여 목양하는 교회가 되었다. 역시 박상순, 홍승한 목사가 담당하다가 이대영 선교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1929년 통계표를 보면 세례인 20명만 있고 중국인 교역자나 집사도 없던 교회였다.

**4) 오산위(鰲山衛)교회**

1925년 9월부터 이대영 선교사 담당 지방교회가 된 오산위교회는 당시 남전도인 1명이 사역하였으며, 19명의 세례교인과 망우(望友-학습교인에 해당) 2명이 있는 미조직, 미자립 지방교회였다. 오산위교회의 위치와 교회 형편을 잘 알 수는 없으나, 1932년에도 남전도인 1명이 섬기고 있음과 세례인 21명에 교인 포함 26명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대인관(大仁觀)교회**

대인관교회 세례교인은 1926년에 9

명이었고 망우는 2명뿐인 교회였다. 1932년에는 세례교인 7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명이 별세하였기 때문이었다. 본토전도인도 없고 예배당도 없었던 교회로 장소가 불확실한 예배처에서 회집하고 있던 교회였다.

6) 지방(芝坊)교회

1926년에 지방(芝坊)교회에는 중국인 남전도인 1명과 여전도인 1명, 합 2명의 전도인이 활동하였으며, 세례인 11명과 망우 9명이 있던 교회였다.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지방(芝坊)교회는 1927년 8월로 사역이 마감되었다.

7) 풍성(豐城)교회

1927년 9월부터 이대영 목사의 담당지방이 된 풍성교회는 중국인 남녀전도인 2명과 세례교인 13명, 망우 12명으로 교인도합 25명에 주일 평균 15명이 회집하는 교회였다. 1933년에는 남녀전도인 2명에 세례교인 41명으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이대영 목사가 담당하던 지방교회 중 두 번째로 세례교인이 많은 교회였다. 세례교인 41명과 원입교인(학습교인에 해당) 35명으로 교인 도합 76명에 주일평균 60명이 회집하는 비교적 활발하던 중국인 지방교회였다. 1933년 당시 풍성교회는 216 원을 교회 경비로 사용하였다.

8) 괘리(藺里)교회

괘리교회는 1932년 9월부터 이대영 목사 담당 지방교회가 되었으며 당시에 중국인 장로가 3명이나 시무

하던 교회였고, 중국인 집사도 2명이나 시무하였다. 그러나 전도인은 없었으며 세례교인 39명에 교인 도합 67명이던 교회였다.

3. **래양(萊陽)화동성경학교(華東聖經學教) 강의**

래양 화동성경학교는 방효원 선교사의 노력으로 1923년 1월 1일 산동 래양 남관에 설립되었다. 교회사역자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래양 화동성경학교 교장은 방효원 목사였고, 조선선교사 동료들도 협력하였다. 8명의 성경학생으로 출발한 성경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복음당을 빌려 수업을 진행하였다. 1년 2학기(동기, 춘기)로 한 달씩 집중교육을 받았으며 3년 간 공부하였다. 이대영 목사가 중국에 도착한 다음해부터 시작된 성경학교 사업에 그가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1927년에 나타나는데, 래양 화동성경학원에서 2개월 간 교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래양 화동성경학교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다가, 1935년에 교장 방효원 목사가 선교사직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서, 이대영 목사가 교장직을 맡게 되었다. 1936년도 보고에 의하면 래양성경학교는 겨울에 2개월 간 개학하였고 28명의 성경학생들이 공부하였는데, 그 중에 중등학력을 가진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936년 11월 26일부터 1937년 1월 23일까지 성경학교가 실시되었는데 상반기에 17명, 하반기에 12명이 공부를 하였다. 1937년 당시 성경학교 교장은 박상순 목사였고 동사장(이사장)은 이대영 목사가 되었으

나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래양 화동성경학교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대영 목사는 동료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중국교회 사역자 배양에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대영 목사 시모(김부석)의 선교활동과 득남(1927년 7월)**

이대영 목사 사모는 남편을 따라 유아 1명과 함께 산동 래양에서 즉묵으로 1923년 4월 30일 이사하여 생소한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다음해인 1924년 7월 7일 딸을 출산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조선인 의사 주현칙 장로가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으며 자녀들을 돌보기도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홍승한 선교사 가족이 귀국하자 래양에 거주하던 박상순 목사 가족이 즉묵으로 이사하여 같이 활동하게 되었는데, 박 목사 사모와 이 목사 사모는 집에만 있지 아니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 같이 교제하며 즉묵성부근의 각 중국인 가정집을 방문하여 전도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즉묵주일학교 일을 보면서 남편 선교사를 돕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27년 6월에 박상순 목사 가정에 딸이 태어나게 되었고, 7월에는 이대영 목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경사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중국선교지에서 두 번째로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1927년에 이대영 목사 부부와 3명의 자녀가 중국동란으로 어려운 시대였으나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您這是兩塊，找你五分。 / Nin zhè shì liǎng kuài, zhǎo nǐ wǔ fēn.  
(넌 저 스 량 콰이, 자오 니 우 펀.) 2원을 주셨으니까, 5전을 거슬러 드리지요.

별 곤란없이 생활하며 선교하였다.

### 5. 중국동란과 선교사 피난문제

1927년 당시 중국은 내란으로 인하여 모두가 불안함과 소란 중에 지내고 있던 바 중국은 광대한 지역이고 중국전역에서 선교사업에 종사하던 선교사 8,000여명 가운데 내란 발생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은 대략 800여명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선교사들이 선교하던 산동성 지역 역시 내란의 영향이 있던 지역으로, 이대영 목사를 포함하여 조선선교사들의 피난문제로 본국 총회외국전도부(부장 차재명)사무국이 회집하여 선교사 피난여부를 의논하였다. 당시 중국동란으로 인하여 타국선교사들 가운데 피란하는 이들도 있으나, 대개는 그 위험한 전란 중에서도 선교사업을 지속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1927년에 중국선교사 중에 200여 명의 서구선교사들은 조선으로 건너와서 흩어져 거하고 있었다. 중국 각지에서 선교하던 미국선교사들의 총수는 5,000명 가량이었는데, 선교사들의 진퇴문제는 미국영사관에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한 지역은 떠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이대영 목사 등 조선 선교사들은 피신치 아니하고 각 교회를 심방하며 안위해줌으로 중국교우들과 선교사 간의 애정이 더욱 친밀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국동란이 있던 그 해에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여 1927년 8월에는 즉묵성에 웅장한 모습의 즉묵예배당이 건축

조선 선교사들이 선교하던 산동성 지역 역시 내란의 영향이 있었으나, 이대영 목사 등 조선선교사들은 피신치 아니하고 각 교회를 심방하며 안위해 줌으로 중국교우들과 선교사 간의 애정이 더욱 친밀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되기도 하였다.

### 6. 애도(愛道)학교

조선교회의 중국 산동 즉묵선교 개척자로 사역하였던 홍승한 목사는 1922년 7월, 즉묵으로 이사한 후에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애도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이 되었고, 교원으로 왕서진(王瑞眞) 양을 임명하였다. 애도학교는 소학교과정으로 중국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켰는데, 1922년 9월부터 1937년까지 어렵지만 운영이 되다가 1937년 전쟁관계로 중단되었다. 1937년 당시 남녘어린이 45명 재적에 6명이 졸업할 하게 되었다. 홍승한 목사가 귀국하자 애도학교 업무는 즉묵거주 선교사가 계속하여 담당하게 되었는데, 1926년 당시 이대영 목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선교구역 내에 설립되었던 일반학교의 전체업무는 박상순 목사가 담당하였다.

### 7. 중국산동 포도사업(布道事業) 및 남포도단(南布道團) 활동

1) 전도대 조직 전도 봄철 순회전도 (1927. 3. 14부터 2개월여의 기간)

중국선교사로 계속 일하게 된 이대영 목사는, 언어공부를 계속하는 한편 자신이 담당하게 된 선교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활동하기 시작하게 된다. 홍승한의 귀국 이후 이대영 목사는 즉묵과 향촌을 담당지역으로 맡아 활동하였고, 래양과 향촌은 방효원 목사, 그리고 래양, 즉묵 서편 향촌은 박상순 목사가 담당하여 활동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은 선교지역을 나누어 현지교회들을 돌보며 전도 활동에 참여를 하였다. 방효원 목사는 1926년 8월부터 장막전도를 하였고, 1926년 12월에는 서하현 사와 박에서 큰 눈을 만나 냉방에서 거처하다가 신경마비증에 걸려 고생을 하기도 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1926년 봄부터 1927년 봄까지 남녘교우 21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이미 언급한 대로 래양 화동성경학교에서 2개월 간 교수하였고, 1927년 3월 14일부터는 지방전도인 4명과 같이 전도대를 조직하여 축음기와 예수행적환등 그리고 장막을 다른 목사에게 빌려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였다. 이대영 목사의 전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즉 매일 새벽

你是不是算錯了? 請再算一遍。/Ni shi bushi suan cuo le? qing zai suan yi bian.  
(니 스부스 수안 추오 러? 칭 짜이 수안 이비엔.)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도활동 결과로 교회 및 복음당도 4~5처에 설립하였고, 새 신자를 많이 얻게 되었으며 교우들도 열심이 생겨 중국전도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기도회를 한 후에 오전 11시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11시부터 나가서 전도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전도할 동리, 동장을 교섭하여 장막칠 장소를 정하고 전도할 때에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할 지역의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인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전도의 기반을 조성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교섭 후에는 찬미와 기도로 개회하고 축음기나 혹은 찬미, 여학생들의 창가(唱歌) 등으로 중국 군중을 회집하게 하여 전도강연을 하였고, 밤에는 환등을 하면서 전도강연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전도하여 환영을 받은 지역도 있고 핍박을 당한 곳도 있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와 동역하였던 중국 전도인 4명(즉묵:남전도 1명, 여전도 1명, 지방(芝芳):남전도 1명)과 같이 79처 동리를 방문, 전도하였고 24,100명의 산동 향촌인민들이 복음을 들었고, 전도지 25,000장을 배포하였다. 이대영 목사가 경북노회에 보낸 보고에 의하면 전도활동 결과로 교회 및 복음당도 4~5처에 설

립하였고, 새 신자를 많이 얻게 되었으며 교우들도 열심이 생겨 중국 전도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그중에 공가장교회에서는 전도인의 한 달 월급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지방교회에서는 예배당건축을 위하여 대략 380원 가량을 연보하였다. 그리고 새벽기도회때 죄를 회개하는 눈물과 금식하는 기도도 있어서 집사장로 간에 불화하던 일이 화해되며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27년은 중국동란으로 서양선교사들은 피난을 가기도 하였으나 조선선교사들은 여전히 전도활동을 하며 선교사업을 진행하였다. 1927년 3월부터 착수한 전도사역 기간 중에 불신중국인이 다과의 향응과 조식을 마련하여 대접하면서 며칠간 더 강연하여 달라고 하며 혹은 2개월에 1차씩 이러한 강연이 있으면 범죄하는 사건이 적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어떤 중국 청년은 작별하기 서운하여 멀리까지 전송하던 일도 있었고, 다른 교파인 루터교(?) 교회에서도 3일만 더 유하라 하면서 전도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대영 목사와 전도인 4명

이 즉묵과 향촌을 순회하면서 전도할 때에 환영을 받기도 하였으나, 반대와 핍박도 받게 되었다. 어떤 곳에서는 환등할 장소를 허락치 아니하였으며, 시국의 불안과 계엄을 빙자하여 추상같은 호령으로 구축(駒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전도할 때에 계엄을 빙자하거나 목탁을 두드려서 전도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도 하고, 일부러 큰 소리를 질러서 전도하는 장소를 요란케 하기도 하였다. 더욱 심한 곳은 전도하는 옆에서 총을 발사하여 군중을 해산시키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대영 목사와 전도인들은 방충해산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계속 전도하였다. 이대영 목사와 중국전도인 그리고 조선선교사들은 1927년에 열심히 순회전도하여 중국인 53,180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전도할 때에 위험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전도하는 중 토비가 습래(襲來)한다는 말에 청중이 놀라 흩어지기도 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그의 편지에서 전쟁소식은 습관이 되어 관념치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토비는 주의 아니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순회전도 지방을 선정할 때에 토비가 적은 지방을 찾아서 전도를 시작하여 제일 심한 곳까지 전도를 다녔으나 2개월여 기간동안의 전도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2) 전도대 조직 4개월 간 순회전도 실시(1927년 후반기에서 1928년 가을 이전 시기)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1928

년 선교보고에 선교사들이 전도대를 조직하고 각각 4개월 간 107개소를 순회전도하여 오만여명의 중국인들이 복음을 들었으며 전도지 33,000장을 선포하고 단권복음 4,700권을 발매하였다. 단권복음의 경우는 무료로 나누어주지 아니하고 팔았던 것이다. 복음을 들은 자가 5만여 명에 달하였으나 믿기로 작정한 자는 99명이었고, 그리하여 예배당과 처소가 신설되었다. 4개월 간의 순회전도 기간 중에도 환영을 받기도 하였으나 거절하기도 하고 식료품 팔기를 거절하는 곳도 있었다. 이대영 목사는 순회 중에 토비를 만나게 되어 많은 힐난(詰難)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토비들에게 감동을 주어 선교대사업을 대찬성한 일도 발생하였다. 1928년 전도활동 시기에는 조선선교사 이대영 목사 등과 같이 단기간이나마 전도하였던 인물이 있는데 그는 중국 남경 금릉신학교를 거쳐 산동 화북신학을 졸업, 중국 산강(山江)노회에서 목사안수 받은 崔默(최재화)목사였다. 당시 최목사는 중국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며, 조선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래양과 즉묵지경까지 가서 이대영 목사와 같이 큰 부흥을 가져오게 하였다.

3) 남 포도단 사업(1928년 10월 2일~1929년 1월 23일까지 그리고 1929년 2월 14일~1929년 7월 18일) 이대영 목사와 동료 조선선교사 박상순, 방효원 목사는 시국 혼란과 각처에서 각종 군대의 무질서한 행동과 토비의 피해로 인심이 불안한

중에도 선교사업을 지속하였고, 전도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은 현지 전도인들과 같이 포도단을 조직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중적인 전도를 실시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이 담당하던 산동성 래양, 즉묵 두 현을 중심으로 남북 포도단을 조직하였다.

북 포도단은 방효원 목사와 중국인 루서범 목사, 중국 남녀전도인 수인으로 구성하고, 1929년 3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36개 촌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여 복음을 들은 자가 22,500명에 달하였고, 67명이 믿기로 작정을 하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 남 포도단은 이대영 목사와 중국인 남녀전도인 수명으로 구성되어 1차 포도기간(1928년 10월 2일~1929년 1월 23일) 동안 산동성 외촌 지역에서 개인전도와 순회전도 등으로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 남 포도단에는 이대영 목사 그리고 중국인 남전도인 3명과 중국 여전도인 2명이 동역하여 예수행적 환등과 축음기 등을 휴대하고, 교회 있는 곳에서는 특별기도회와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현지 교인들의 신앙을 부흥하게 하고 교회 없는 지역에서는 개황(開荒)전도를 실시하였는데, 핍박도 당하였으나 환영받은 곳이 더 많은 전도사역이 되었다. 남 포도단은 1차 포도기간 중인 1928년 가을, 즉묵의 동해 해군 근거지에 들어가 전도하던 중, 당지 주둔 해군부대 해군부관이 병졸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보고 전도를 금지하며 퇴거령을 내린 일이 발생하

였다. 그리하여 전도인들이 실망하고 나오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부관에게 가서 교섭한 결과 전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풍성한 은혜를 받기도 하였다. 1차 포도기간 중에 39처 동리(洞里)를 방문 전도하여 13,412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전도지 9천여 장을 배분하였다.

남 포도단의 제2차 포도기간은 1929년 2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이대영 목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지방을 1929년 2월 10일경부터 3월 13일까지 순회전도하여 새 신자도 많이 얻고 헌신한 전도인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순회전도 사역은 4월에서 5월까지 전도대를 조직하여 69처 동리를 다니며 전도하였다. 복음을 들은 중국인이 10,080명에 달하였고, 3,000권의 단권복음을 판매하였으며 전도지 13,000장을 배포하였다.

1929년 봄에 장관채 부근에서 관병과 목국회(무국회-일명 홍창회)의 교전으로 소란함을 무릅쓰고 입촌하여 전도하여 교인들에게 위로와 주고 촌민들에게 위안을 주게 된 일도 있었다. 남 포도단의 1,2차 전도사역은 1928년 10월 2일부터 1929년 7월 18일까지 진행되었는데, 148처 촌리를 방문하여 전도한 결과 45,165명의 중국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다량의 복음책 판매(4천여 부)와 39,000장에 달하는 전도지를 배포하였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김교철/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연구원, 부개동교회 외국인 예배 담당목사

# 고난을 통해 진리로 돌아감

진리로 돌아간 어느 호함파 지도자의 간증문

-원 린(文林)-

## 음력선날

어느 이른 아침. 기도 소리는, 공중에서 간간히 흘러내리며 내리는 흰 눈을 따라 멀리 하늘까지 울려 퍼지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조용하다. 세밀 추위가 한창이지만, 이 추운 날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둘둘 말은 이불에서 기어 나온 후 맞은, 살을 에일 듯한 차가운 바람도 나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고, 나즈막한 방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만큼은 가두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막 큰 공터로 모여들고 있었다. 이 공터는 이전에 농민들이 함께 모택동 어록을 읽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대회를 여는 장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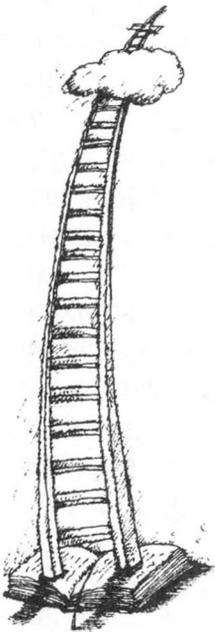
이 겨울의 집회는 삼자교회의 집회도 아니고 당중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활동도 아닌, 바로 이 지역의 '복음의 달' 집회인 것이다. 몇몇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시작된 '1대1 복음 전도 활동'은 복음을, 구원의 은혜

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일부 공안국의 사람들이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로 보지 않았고, 크게 괴롭히지 않았다. 많은 자매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200~300여 명의 지체들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느라 하루만에 목이 다 쉬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다 보니, 나는 4년 전의 그 광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 이들에게 임한 주님의 치료

4년 전 내 아들은 간경화였다 폐결핵 말기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 저곳 명의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병의 상태는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갈수록 악화될 뿐이었다. 우리 모임은 지도자가 잠깐간 이후로 대부분 흩어져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몇 명만이 남아 있었다. 신체적으로도 연약할





장승원 그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했던 그때, 나는 오로지 무릎꿇고 기도만 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일 관 형제에게 가보아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의아해했다. 관 형제는 지금 옥에 갇혀있는데, 병으로 고통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가? 그러나 받은 감동이 더 뜨거워져서 감옥에 면회를 갔다.

공안들은 내가 온 이유를 묻더니 탁자를 내리치며 “안돼요. 보는 것이 허가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였다. 좋은 일에는 분명 방해가 많은 법이지만 가능한 강경한 태도로 “어쨌든 만나봐야겠습니다.”라고 소리를 쳤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듯이 말이 오갔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내가 약한 듯 하

면서도 강하게 강은양책(強穩兩策)으로 나갔더니, 공안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며 결국은 관 형제를 만나보게 해주었다.

그의 여윈 얼굴을 보고서, 나는 마음 속으로부터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관형제는 이전에 이상수(李常受)의 대제자 가운데 중의 한 사람으로, 동료들의 죽음과 쇠퇴가 이루어진 후에 유일하게 호합파의 뜻을 계승하여 호합파의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를 위하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이미 감옥에서 11년이나 보냈던 그가, 이번에 또 붙잡혀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를 보니 그가 강단 위에서 매번 복음을 전하던 장면이 갑자기 눈앞에 떠오르는 듯했다.

여름 혼란 때는 비같이 내리는 땅을 밟으며, 겨울에는 또 종일 차가운 바람을 무릅쓰고 쌓인 눈을 밟으며 집회에서 또 다른 집회지로 다녔다. 가을에는 곡식 창고 안에서 그가 설교할 때면 침이 사방으로 튀었고, 화창한 봄날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비단같이 피어 있는 정원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공부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이런 일이 그에게는 혼란 일이 되어버렸으니 가슴이 매우 아팠다. 그는 안수기도 하기 전에 내게 계속 물었다.

“당신은 교회에 나갑니까?”

“당신은 성경구절을 외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읽습니까?”

당시 나는 이중 한 가지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내 자신이 신앙의 공백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괴로웠다. 그는 내 마음 속의 부끄러움을 알고서 공간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나올지라.”

“가서 가정을 개방하십시오! 가서 집회를 하십시오! 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덧붙여 말했다.

그 후 시골 들판의 누런 진흙길을 걸어 집에 돌아온 뒤에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아들이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한 것이다. 이전에는 식욕이 없었던 아이가 갑자기 식욕을 느끼게 되었고 병의 증세도 점점 안정되고 호전되었다. 나는 이 상황을 보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과 내가 이를 간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도 역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달콤함과 완전함을 더 깨달았고,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나는 즉시 집을 개방하여 잃어버린 양떼들이 우리집에 와서 모이도록 했다. 하나님이 나의 아들에게 행하신 기적에 감사하여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특별한 열심을 쏟았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연약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께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뜻밖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나는 걱정하며 가슴을 태운 나머지 하나님께, 저의 죄를 사해주시고 남편을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였고, 다시 가정을 개방하여 신도와 함께 모였다.

얼마쯤 지나자 나는 또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의 의심을 품고 있을 당시 가족 중에 정신병자가 생겼다.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일개 농부에 불과한 내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기묘하신 섭리를 알게 하셨다. 나는 매일 새벽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성경읽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동일한 평안을 즐길 수 있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던 차에 우리 호환과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로 연합하는 일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 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관 형제는 석방이 되었고 형제자매들은 그가 무리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을 기쁘게 맞이했다. 그러나 관 형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존경하는 것을 마다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상수는 주’(李常受爲主)라고 칭해왔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다. 그는 “만약 이 11년 간의 옥중생활이 없었다면 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호환과가 광주에 나를 위하여 집을 사고 재산을 준다 할 때 그곳에 가서 목양자가 될 생각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4개파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 자신의 전부를 드려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는 동역자된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데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요, 주님의 동역자이니 진리를 전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목하면 아래에 있는 양떼들도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됨이란 바로 먼저 교제하고, 영적인 내면을 갖고 진리의 도를 구하는데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후 손뼉을 쳐야겠으면 손뼉을 치고,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울고 싶으면

울고, 각양의 방식으로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됨이란 어느 교파가 크다고 그 교파의 말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오로지 선입견을 없애고, 영적인 내면과 진리의 도가 하나되기를 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신기한 간증

관 형제가 출옥한 후 그의 아내가 작은딸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작은딸은 첫딸을 낳은 지 16년 만에 얻게 된 딸이어서 더욱 기뻐이 컸다. 그의 큰딸아이가 18살이고 작은 딸이 1년 10개월 되었을 때, 큰딸이 작은딸을 안고 4층 베란다를 지나다가 부주의해서 그만 작은딸이 베란다에서 떨어졌다. 작은딸은 놀라서 눈의 초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고, 입은 벌어진데 울음소리는 나오질 않았다. 땅 위에는 자갈들이 많았으나 머리가 조금도 깨지거나 피를 흘리지 않았다.

관 형제는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 만약 하나되는 일이 당신의 뜻이거든 이 번 사단의 공격에서 딸아이가 능히 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작은딸아이는 곧 울기 시작했다. 후에 관 형제는 또 하나님께 “주님! 우는 것은 정신이 정상인지 알수 없으니 그의 정신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몇 주간에 걸쳐 지켜본 결과 작은딸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고, 관 형제는 곧 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어 섬겼다.

관 형제가 당초 교회에 돌아왔을 때를 돌이켜 보면, 이전의 배경을 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거듭 숙고하여 진실로 연기 힘든 귀중한 경험을 한

것이었다. 11년 동안 교회와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그에게 다시 새롭게 적응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호합파가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며, 다시는 '이상수를 주'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는 호칭으로 바꿔 불렀다. 또한 본 성경을 회복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화합본성경을 고쳐 사용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두 하나됨을 앞당기는 선결조건이 되었다. 하나됨은 실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 11년 간의 옥중생활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그의 아내 또한 일찍이 핍박과 고독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의 식구 모두가 주님을 섬겼고 아무런 불평의 말도 하지 않았다.

### 옥중에서 쓴 시

관 형제의 간증 이외에도 이 지역의 '복음의 달'에는 주를 위해 전심으로 일하는 형제자매들의 간증거리 또한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어떤 백발이 성성한 왕씨라는 노인은 특별히 와서 한 젊은이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 줄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신 구원의 은혜를 말했다. 왕 노인은 일찍이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 그는 종일 밖으로 다니며 분주히 일하느라 집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에게는 모두 6명의 손자가 있는데, 어느날 집에 갔더니 손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 댁에 가도 되요?"라고 물었다. 왕 노인은 하지장(賀知章)의 회향우서(回鄉偶書)를 떠올리게 되었다.

"젊어서 떠난 고향 늙어서 돌아왔네.

고향 말 변함 없으나 머리는 쉬었구나.

어린아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웃으며 어디서 오시는 나그네인가를 묻네"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자신이 아닌가? 비록 혈육이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그는 주를 위해 일하다 이렇게 되어진 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 속으로 남다른 평안을 얻었다. 이러한 가정교회지도자들이 옥중에서 겪은 간증거리는 종종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람이 잡혀가거나 갖는 것으로 인해 복음의 불씨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며,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멀리 퍼져 나가도록 만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다.

농촌에 공안들이 사람을 잡으러 오면, 나이는 자매들은 땅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공안국 사람들의 허벅지를 물어 교회사람들이 도망가도록 하였다. 공안들이 아파서 소리소리 지르면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뛰어나와 우리를 보호해 주며 우리를 위해 화를 내면서 공안들을 위협하여 물러가게 했다.

공안들은 돈 많은 자매들을 잡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들은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돈액수를 맘대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니, 공안들이라 할지라도 크게 부흥하는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인생에서 광풍, 거센 파도, 천둥, 번개를 만날지라도, 인생의 방향키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응답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도 그치지 않는 사랑을 꼭 붙잡아야 한다!

깊은 밤이 되어 '복음의 달'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물결이 점차 빠져나갈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감옥 안의 고난이 주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시편 23편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자들이고, 주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길을 뛰어들어도 주님께서는 늘 동행하신다. 여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주님을 위해 일하다 감옥에 갇힌 한 형제가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남겼다.

보라! 손엔 황금으로 된 수갑이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십자로 앞 형거 아래 무수한 눈들이 바라보네.

이것은 배우를 더 두드러지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분명 하나의 연극구경 같구나.

관중들은 쳐다보고 있다. 보라! 무장한 병사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다.

총기는 무섭고도 장엄하다 수많은 성난 눈들이 응시하고 있다.

마치 약자가 큰 적을 만난 것과 같다. 왜 그가 그러한 상황을 몸소 겪어야 하나, 주님은 말씀대로 정해진 것을 명백히 알고 계셨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저를 부인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빛나는 면류관을 주시리라.

수욕과 비웃음이 다 무엇인가? 헛된 영화는 도망치듯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 정경을 대하니 내 마음은 평안하다. 거리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미소를 띄운다.

주님이 함께하시므로 나의 심령은 부족함이 없다.

출처/ 中國興福音 19期 (1997.7-8)  
번역/ 안유정(자원봉사자)

공산당 치하 9년,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매일 매일이  
기적의 생활.

중국 복음화를 위해 살아온 21년 동안의 삶을 적으려 하니, 지난 일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중국대륙을 밟았다. 아니, 보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중국에서 나의 첫 사역지는 공맹(孔孟)의 근거지였다. 공맹의 도의적 윤리사상과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 이제 이를 다시 생명의 도(道)로 되갚게 된 것이 매우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내가 중국에 간 지 얼마 지나지않아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그 바람에 지난 20년 간을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묻혀 지내다시피 했다. 일제 치하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박해는 매우 컸다.

그후 정세는 다섯 번이나 뒤바뀌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상황을 몇 차례씩 당하다보니 민심이 수심(獸心)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이리,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가 도리어 수심을 가진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일본군이 쳐들어온 때는 현지 치안이 낮으면 일본 천하요, 밤이면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었다. 당시 한국도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전시에 의

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금지 되었는데, 1945년 일본군이 투항하기까지 선교비를 본국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일본군이 투항한 이후, 우리는 모두 잠시 동안 광복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공산군이 중국대륙을 장악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돌아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 변화의 상황 속에서 갖은 고비를 다 넘어 본 셈이다. 지금도 사역지를 떠나던 그 때의 심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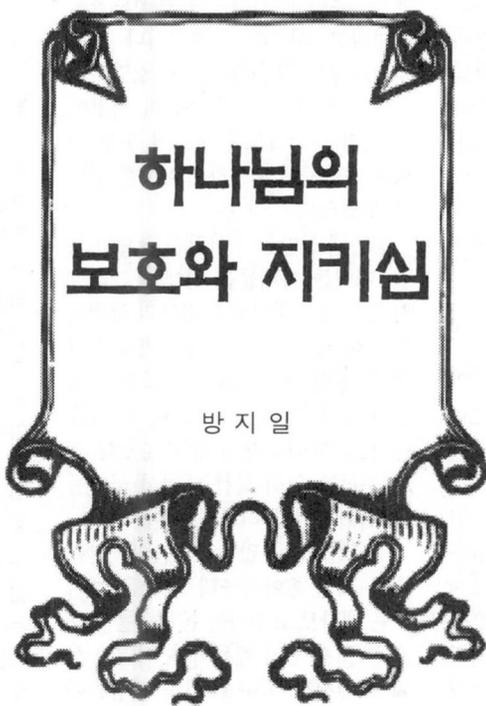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몸소 체험하였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하나님은 나의 선교 생활

20년을 통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진리를 바로 알게 하셨는데, 몇 가지 큰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첫째, 공맹의 근거지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다. 한번은 공자의 고향인 곡부(曲阜)에 간 적이 있다. 그곳에 기념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심 리 밖에서도 보일만한 큰 현수막이 있었는데, 「지성대성문성왕(至聖大聖文聖王)」라고 쓰여 있었다. “지성은 오직 공자, 대성은 그분뿐”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문(文)에는 성왕(聖王)이 오직 공자라 하여 성(聖)이



방 지 일

這苹果不錯，懣不懣? / Zhè píngguǒ búcuò, tiánbùtián?

(저 사과 부추오, 티엔 부 티엔?) 이 사과 괜찮아 보이는데, 달아요?

## 중국선교의 발자취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자신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방지일 목사.

라는 글자를 다른 데 못 쓰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에서 믿는 사람을 성도(聖徒), 그 집을 성전(聖殿), 그 글을 성경(聖經), 그 모임을 성회(聖會), 하는 일을 성사(聖事) 등등의 표현을 보고, 어떻게 공자님에게 국한된 「聖」자를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쓸 수 있느냐며 그들은 벌컥 화를 냈다. 그래서 나는, 공자님께 돌린 「聖」자를 우리는 안 쓰고, 다만 구별된 그 뜻을 이렇게 표현 것뿐이니 「聖」자는 전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하라고 말해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게 적절히 대답할 말을 주신 것이다.

둘째, 일본의 탄압, 특히 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었다.

셋째, 전쟁 중 배일사상이 중국 사람들의 머리 속에

깊이 박혀있었던 터라 일제 치하에서 교육을 받은 자는 곱게 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이주지 않았던 것도 당시의 정황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넷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뜰하게 서로 나눌 수 있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느끼고 체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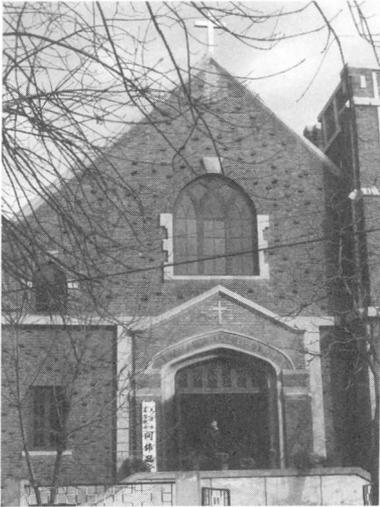
나는 선교사로서 그만큼 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주님이 받을 대접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자부심도 가져 본다. 나를 위해서라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까와하지 않았다.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도 주려는 모습에서 공산당도 당황했을 것이다. 내가 홍콩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생명을 건 기도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 역시 그들을 사랑하였고, 극히 존경하였으며, 신뢰하였다. 그들에게는 못할 이야기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말한다 해도 나와 함께 했던 지체들은 나에게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너무 많다. 이런 우정,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깊이 맞본 사람으로서 이 기쁨은 도저히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공산 치하에서의 9년 동안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그들의 유혹도 대단하였으나 나는 유혹에 휩쓸리지 않았다. 강압에 약한 듯 하면서도 강하게 대응해 나갔고, 저들과의 대화에서도 묻는 대로 막힘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을 지혜의 말로 채워 주셨다.

최후에 내 사역지에서 추방당했을 때도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갈 곳은 파송한 본부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주신 말씀이었으므로 순종할 수 있었다.

**방지일/ 전 산동성 선교사 ·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這是紅香蕉果, 挺括的。 / Zhè shì hóng xiāngjiāo píngguǒ, tǐng tuān de.  
(저 스 홍상자오 핑궈, 텡 티엔 더.) 이건 붉은 바나나사과라고 하는데, 아주 달아요.



## 대륙 동쪽 끝자락에서 키워가는 하늘나라의 꿈(2)

중국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도시들에서 만나게 된 젊은 동역자들은 한결같이 힘이 넘쳤으며, 미래를 소유하는 눈빛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더욱 고마운 것은 이들이 아주 사려깊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종구

### 웨이하이시 교회

#### —성도들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

웨이하이(威海)시는 인구 40만의 소도시지만 일찍이 개방된 항구로서 단아한 모습과 선진적인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다. 깨끗한 시가지는 산뜻한 조경을 이루고 있으며, 눈을 돌리면 곳곳에 고층빌딩들이 솟아 있다. 특별히 눈을 끄는 것은 시 정부청사 건물로, 시 중심가의 정복쪽에 있는 산중턱에 지어져 전 시가지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 모양새가 티벳의 유명한 사원 '포탈라궁'과 흡사한 관계로 사람들은 모두 이를 '포탈라궁'이라고 불렀다. 저녁이 되면 포탈라궁으로부터 시 중심까지 휘황찬란한 러시아양식의 가로등이 아름답게 켜지고 포탈라궁은 전구장식으로 궁전처럼 빛난다. 그리고 그 앞 광장에는 대형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시민들이 즐거운 무도를 즐긴다.

웨이하이의 기독교 선교는 1880년 영국 형제회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산동성 전역을 위한 교회인쇄소가 역시 형제회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어 문서선교의 중심지로 자리하였다. 이후 영국성공회가 들어왔으며, 1901년 웨이하이는 화북 영국성공회의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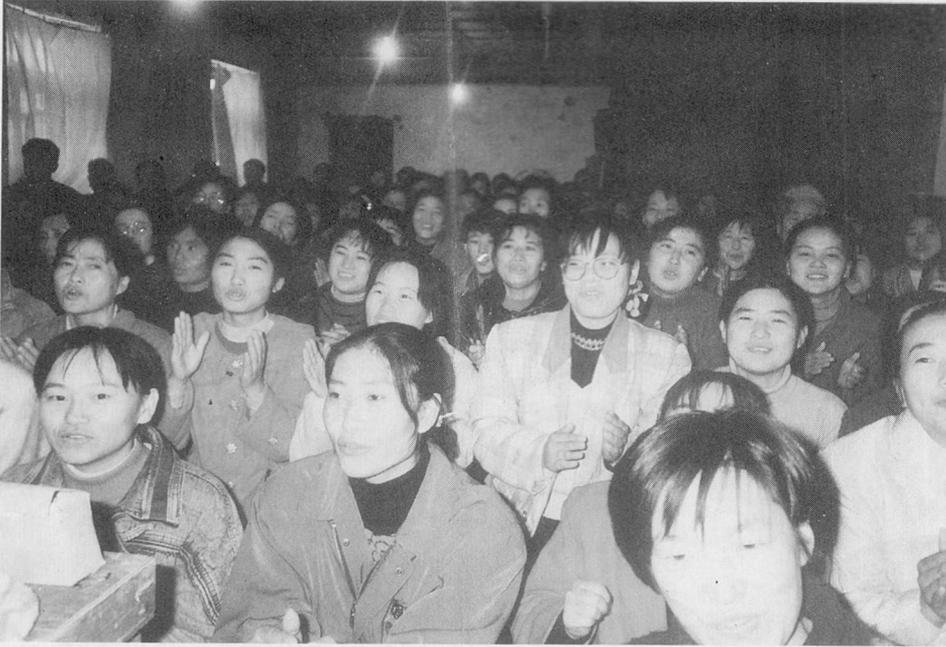
기구로 지정되었다. 많은 교회당들이 지어졌으나 지금 까지 남아있는 곳은 전혀 없고, 이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웨이하이에는 기독교만이 협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웨이하이기독교회는 교회당건물이 없어서 빌딩의 한 층을 세내어 사용하고 있다. 신도 수는 약 3천여 명으로 시내의 교회당과 교외 농촌지역의 처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시내에 있는 교회당은 약 700여 명의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조선족집회는 많을 때는 150명에 달했던 적도 있으나 최근에는 교회 내부사정으로 약 5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웨이하이시 기독교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뤼샤오스(呂昭十) 목사는 웨이하이시 기독교회의 당면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는 성도들간의 화해와 일치이다.

항구도시이므로 외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남방에서 온 기독교인(특히 윈저우(温州) 출신)들이 교회



웨이하이기독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없어서 빌딩의 한 층을 세내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삼자교회 예배장면)

의 젊은 신도들을 유인하여 자신들의 집회장소로 끌여가는 일이 종종 발생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취직, 혹은 자신들이 참 복음이라는 감언이설로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편, 한족교회와 조선족교회의 단결도 중요한 과제이다. 목회자가 없는 이 지역 조선족집회는 성례전을 뤼 목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있는 성찬식은 설교와 성례전 집례과정이 조선어로 통역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조선족에게도 중국어통역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불만이 제기되었다. 급기야 조선족들은 언어상의 장애를 이유로 성찬식을 일 년에 두 번으로 줄여줄 것을 호소해왔고, 뤼 목사는 이에 대해 계절에 한 번, 즉 일 년에 4번으로 하자며 절충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동북에서 청빙되어온 평신도지도자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성찬식을 자주하는 것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이 성찬식을 줄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설명

하였다.

둘째로, 교회당을 마련하는 것이다.

뤼 목사는 새로 지어지는 교회당은 한족집회, 조선족집회, 그리고 현지의 한국인집회가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소망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교회당 건축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내 곳곳에 교회재산이 많이 있지만 모두 병원, 학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차지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이와 교환할 좋은 땅 다섯 무(다섯 마지기)를 보아두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형편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당은 일 년에 6만 위엔을 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혀 재정상의 어려움이 없었지만, 매년 이사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월세로 나가는 돈이 차라리 선교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당 건축을 준비 중이다.



셋째로, 교회도서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뒤 목사는 목회의 중심되는 과제로 성도들의 건전한 신앙적 성숙을 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다양한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교회도서관을 구상하게 되었다. 현재는 자신의 서재에 조그맣게 꾸며놓고 있으나, 앞으로 교회당을 짓게 되면, 제법 규모를 갖춘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자신의 도서와 성도들의 기증도서를 합하여 목록을 작성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도서의 마련'이다. 어디서 신학책을 구하겠는가? 그는 이미 웅만한 국내출간 신앙, 신학도서는 다 구비하였다고 한다.

## 엔타이시 교회

###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

엔타이(烟台)시는 천진조약에 의해 서양에 개방된 항구 중의 하나이다. 제2차 아편전쟁기간에, 프랑스군이 엔타이를 점령하고 북경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는데, 이 때 군대와 함께 온 선교사들은 이후 천진조약이 맺어진 후에는 군대를 따라 귀국하지 않고 엔타이시에 남아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벌임으로써 엔타이시의 기독교역사는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개방항구로써, 선교지로서는 물론이고 중국내지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의 주경로가 됨으로써 해외선교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어 이후 전세계의 각종 교파들이 경쟁적으로 밀려들어와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49년 당시에는 14개 교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교파간에 상호공격하고 반목하는 양상이 빚어지다가, 58년 교파통일로 연합교회의 길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개혁개방 후 전국8대 개발구 중의 하나로 지정되면서 공공업부분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한국의 군산과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이다. 한편 한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동북으로부터 많은 조선족들이 유입된 결과, 현재 조선족집회는

세군데 처소에 무려 200여 명의 교인으로 성장하였다.

엔타이시에는 13개 현과 현급 시가 있는데, 이 중 11개 현에 기독교인과 예배처소가 있다. 2만 2천 명의 신도가 열 다섯 곳의 정식예배당과 그외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현재 엔타이 시에는 두 군데 예배당(승리로-1924년 건립, 기산-1916년 맥멀란 선교사 건립)이 있다. 30여 명의 목회인원 중에는 5명의 목사아와 19명의 장로, 그리고 신학교를 갖 졸업한 전도원들이 있다.

지금도 이전의 교파배경에 따른 견해 불일치로 신도들간에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구동존이(求同存異),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극복해가고 있다. 참고로 승리로 예배당에서는 한족들이 주일예배(약 1천 명)와 저녁예배를 드리며, 조선족예배는 오후에(약 60여 명 참여) 드린다. 조선족예배는 한족집회와는 달리 매년 야외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으며, 성탄절, 부활절 등의 예배는 춤과 음악으로 찬양예배드리는 전통을 갖고 있고, 이러한 민족고유의 예배전통은 존중되고 있다. 그외의 교회의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화요일 오후 - 세례 학습, 토요일 오후 - 사경회(40여 명), 저녁 - 청년회(100여 명)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자신도가 숫자적으로 우세한 것은 물론이고(85%), 봉사와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첫째, 둘째 주일 예배 후에 드리는 성찬예배는 거의 여신도들에 의해 준비되며 또 진행되고 있다.

기타 엔타이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선교활동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고 있었다.

1) 의료봉사: 은퇴의사(중의, 서의, 피부과,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등. 시 기독교협회 회장인 뤼싱산(羅星三) 목사도 소아과 의사이다.)들 중심으로 의료상담, 진단, 처방 등 봉사활동을 부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종합진료소로 발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공간과 재정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영어학습반: 4년 전 지역 내 인재배양과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저렴한 수강료(4개월 100위엔, 주 한 시간)와 양호한 실력(5~6명 외국 인교사 봉사: 미국 남침례회소속 교사들이 교사로 자



엔타이시의 승리로 교회

원봉사하고 있다)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다. 현재 150명의 수강생들이 초, 중, 고, 청년반(2반)에서 각각 수강하고 있다.

3) 신학 졸업생 기금회 : 엄밀히 보아 목회자 생계대책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매년 10월~11월 중의 한 주간 현금을 모아 적립하여 신학졸업생 중에서 소속 교회가 전혀 생계 및 목회비를 제공할 수 없는 목회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역의 내용과 신도들의 반응에 따라 수혜자 결정하는데, 올해 10월에 첫 현금을 거두었는데, 약 2만 5천 위엔이 건졌으며, 이 중 약 6천 위엔을 해당 목회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4) 영문서적 도서관 : 현재 장서는 대부분이 엔타이시의 외국인교사들이 기증한 것이며, 교회 밖의 외부인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다.

5) 한국어반 시작 : 10여명 참가하는 소규모이며, 교사는 한 한국인 유학생이 봉사하고 있다.

6) 가난한 시골학교 지원.

7) 농아학교지원(105년 전 기독교에 의해 설립된 학교).

때마침 승리로 교회당에서는 평신도지도자 훈련반이 진행되고 있었다. 약 60명의 정규학생과, 그 외 약 30여

명의 청강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엔타이시 기독교협회 회장인 뤼 목사도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강의를 진행하는 천자이에(陳迦業) 목사님은 82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성경개론'을 힘차게 강의하고 계셨다. 그는 젊은 시절에 무한대학에서 영어, 일어, 러시아어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는 평라이(蓬萊)현의 교회당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교회당은 1987년에 20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무려 1,000여 명으로 성장하여 근처교회는 물론 외국교회에까지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뤼 목사가 귀뜸하여 주었다.

**방문을 마치며**

웨이하이에서 엔타이로 가는 길은 시원하고 깨끗하게 뚫린 고속도로였다. 구비치듯 돌아드는 해안이 풍겨내는 푸르른 바다내음 사이로, 새로운 공간들이 힘있게 들어서고 있었다. 중국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도시들에서부터 소리없는 변화의 함성을 듣는 듯하였다.

그 함성은 교회에도 있었다. 방문지역마다 만나게 된 젊은 동역자들은 한결같이 힘이 넘쳤으며, 미래를 소유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더욱 고마운 것은 이들이 아주 사려깊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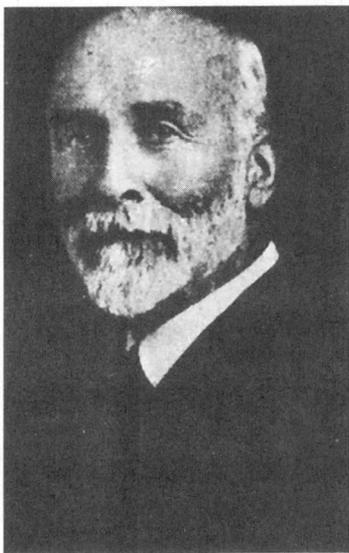
지역경제의 성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난한 목회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뿔어오르는 복음에의 열정으로 하늘나라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이번 방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이국의 동역자를 따스하게 대해준 그들의 넘치는 사랑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출처/ <중국교회>제 14호  
김종구/ <중국교회>편집자

# 부흥의 불길을 몰고 다닌 선교사

-조나단과 로잘린드 고포드 부부-

루스 터커



중국,만주,한국에 복음을 전한 조나단 고포드



조나단 고포드의 아내 로잘린드

## 조지맥케이의 열매, 선교사 고포드

고포드는 1859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서부의 한 마을에서 11명의 자녀 중 일곱 번째로 태어났다. 그는 18세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의 회상록」을 읽고서, 즉시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그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은, 대만(臺灣)에서 활발히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조지 맥케이 박사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나서부터였다.

맥케이 선교사는 2년 동안 캐나다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대만에 건너와 선교사역에 헌신할 것을 도전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치 그의 순회설교는 실패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의 설교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고포드였던 것이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그는 녹스

##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양에서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조나단 고포드보다 선교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허버트 케인은

그가 중국에서 가장 탁월한 전도자였다고 했다. 그의 활동의 주된 본거지는 중국이었으나 한국과 만주에서도 사역하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대학(Knox College)에 입학했다. 그는 학교에서 크리스천들과 함께 열성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자신만이 선교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강조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많은 신학생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졸업할 즈음에는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1885년 봄, 도시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있던 고포드는, 풍부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그러나 선교사의 아내로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로잘린드 스미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초라한 옷'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훌륭한 면을 발견하였고, '이 남자야말로 내가 결혼해야 할 사람'임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그해 말 약혼하였고, 로잘린드는 그 때부터 평생 동안 선교사인 조나단 고포드의 아내로서의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고포드는 녹스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중국내지선교회에 지원하였다. 그가 내지선교회로부터 회답

을 받기 전, 녹스대학 출신의 장로교파 소속의 학생들이 모여 그의 중국 파송에 필요한 재정을 담당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중국으로 가기까지 캐나다 전역을 여행하면서 선교에 관하여 열정적으로 설교하였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이 있었다.

### 자기 집을 넓게 열어 중국인들을 친구로

1888년 중국으로 건너간 고포드 부부는 먼저 허난(河南)성에서 사역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깊은 고독을 맛보았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11명의 자녀 중 5명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야 하는 깊은 슬픔을 겪기도 했다. 화재와 홍수, 심지어 도둑까지 그들의 물건을 쓸어가기도 했다. 목숨의 위협을 받은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화단사건으로 1,600km나 되는 먼 길을 참담하게 쫓겨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중국 영혼들을 향한 그들의 비전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중국에서 고포드는 사역 초기부터 능력있는 전도자로 알려졌다. 그

의 설교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그는 불신자들 앞에서 처음 설교할 때는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한 선배 선교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중국인과 접촉하기 위한 고포드의 방식은 그 당시 선교사들의 방법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고포드의 집은 유럽풍으로 지어졌고, 집안에는 주방용 난로, 재봉틀, 오르간 등이 갖춰져 있었으므로, 당시 중국인들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가정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였으며 그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이런 일이 소문이 나면서 몇 십 리 밖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으며,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였다. 그 때마다 고포드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더 듣고자 며칠을 더 머무르기도 했다. 그는 매일 평균 8시간 이상씩 설교했으며, 다섯 달 동안 2만 5천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로잘린드도 부녀자들을 뜰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다. 훗날 그가 각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을 방문



서양인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를 보여 주는 그림

하여 그와 친구가 된 중국인들 덕분이었다. 그가 중국인 친구가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의 주위에 모여 “우리는 당신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 때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친구처럼 대해주었지요.”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앓을 의자와 성경을 퍼놓을 수 있는 책상을 가져다 주었으며 차도 대접하였다.

### 고포드의 순회전도와 부흥의 물결

1900년 중국에서 의화단사건이 일

어난 당시 고포드는 대지역 순회복음화 사역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한 달 가량 머무르며 복음사역을 하고자 하였다. 그의 계획을 알게 된 로잘린드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의화단사건으로 중국 각 지역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데다가 이미 4명의 아이들을 중국 땅에 묻은 그녀로서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마을에 아이들을 두고 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역이 하나님 뜻임을 확신하였으므로 계획

대로 추진해나갔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한 달 정도 머무르며 낮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마을과 거리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으며, 그녀는 동네 여인들을 모아 복음을 전했다. 밤에는 찬양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하여 신자가 생기면 그 지역을 다른 동역자에게 맡기고 그들은 또다른 곳으로 갔다.

1907년 그는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던 부흥의 물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일은 그로 하여금 중국의 부흥에 간절한 열망을 갖게 했으며 순회전도 사역의 계기가 되었다.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각 지역을 다니며 부흥회를 열었고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 교회와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이 놀랍게 성장하였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목격한 후 시작된 고포드의 순회전도사역은 그 후 계속된 부흥의 주춧돌이 되었다.

복음을 든 그의 발걸음은 먼 북쪽의 만주에까지 미쳤다. 처음 그가 만주에 갔을 때 선교사로서 그의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몇 주 후 그로 인해 놀라운

부흥이 그 지역에 일어났고, 곧 그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선교사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심지어 비난하는 선교사들과 후원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집회에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사람들이 흐느껴 울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에 대해 심히 우려했으며, 어떤 사람은 ‘광신적이고 오순절적인 운동’이라고까지 비난했다. 그러나 고포드는 이와 같은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그가 연 부흥회 중에서 절정이었던 것은 1928년 기독교인인 펑위장(Feng Yu-Hsiang) 장군 휘하의 병사들을 상대로 열었던 2주간의 집회였다. 부흥회가 끝날 무렵 5,000여 명의 병사들과 장교들이 큰 은혜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였다.

### 신학적 노선의 차이로 생긴 갈등과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헌신한 선교사에게도 역경과 시련은 있기 마련이다. 선교사역 초기에 고포드는 허난 북부지역에서 생거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카톨릭의 공격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카톨릭은 그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였는데, 그가 1년 간 전도하고 수고하여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모두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고포드가 직면했던 또 하나의 어려움은 선교회 내의 노선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장로교의 엄격하고 경직된 규칙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다보니 종종 허난의 장로교 회원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그는 자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행한 일이 동료들에 의해 방해받고 억제당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런 생각 때문에 그와 사이 좋게 지내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한 선교사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는 그가 사역하는 동안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 이런 식의 마찰이 절정에 달한 것은 1920년대에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적 논쟁이 격화될 때였다. 두 입장간의 신학적 논쟁은 본국의 교회를 분열시켰을 뿐 아니라 선교지인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는 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갈보리

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전했다.

### 순회 전도지로 생을 마감하다.

고포드는 칠순을 넘긴 나이에에도 여전히 열정에 가득 차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심지어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중국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며 선교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그가 중국에서의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간 것은 74세가 되어서였다. 캐나다로 돌아온 뒤로도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순회 여행을 하며 집회를 인도하였다. 75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다.

번역/ 박해근 · 옮김/ 안정숙

[편집자 주] 이 글을 『선교사 열전-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발췌한 것으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허가를 얻은 것이다.



# 실험대에 오른 마작 - 스포츠냐 도박이냐

장 신(江迅)

## 마작은

중국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놀이의 하나이다. 올해 초, 베이징(北京)에서는 역사 이래 최초로 체육경기의 한 종류로 마작 경기가 열렸다. 경기 진행도중 여러 부분에서 미숙한 면을 보였지만, 어쨌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에서는 마작이 오랫동안 도박으로 여겨 왔으나 지금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오락의 하나로 인식이 바뀌어 급기야 스포츠 경기의 하나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관념의 급변화는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춘계 ‘홍니우(紅牛)배’ 마작 시합이 베이징의 다오위 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국가 체육위원회 사회체육 지도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각 지역의 16개 대표단에서 60여 명의 운동선수들이 참여하였다.

### 제1차 전국 마작대회가 열린다

처음으로 열리는 춘계 마작 경기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베이징, 톈진(天津), 충칭(重慶), 전 국가체육위원회, 해방군, 대외우호협회, 전 국가체육위원회 간부국, 우한(武漢)체육 학원, 광둥(廣東) 순더(順德) 등 16개 단체의 64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여했다. 이 시합에서는 해방군과 전 국가체육 간부단이 각각 1, 2등을 차지했으며, 경기가 열리는 기간 동안 《중국마작협회》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이것은 처음으로 전국적인 성격을 띤 정식 시합이다.

시합은 국민관에서 거행되었고, 마지막 날 저녁 연회는 인민대회당 연회장에서 열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당시 선수들은 유명한 국화(國畫) “강산은 이와 같이 아름다우고”가 있는 빨간 카페트 위를 지나면서 “이렇게 우아한 곳에서 마작 경기를 하다니”하고 감격하였다.

폐회식에는 전인대(全人大) 부위원장인 왕광잉(王光英), 역대 국가체육위원회지도자를 지낸 롱가오탕(榮高棠)과 리명화(李夢華), 루진둥(路金棟), 쉬차이(徐才), 우샤오주(伍紹祖), 리우지(劉吉) 등 고위층 간부들이 참여했다. 마작이 경기로 나오게 되자 마작의 미묘한 매력으로 꽤 높은 대우를 받았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작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통계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인이 있는 곳에 마작이 있고, 마작이 있는 곳에 중국인이 있다’고 할 만큼 마작은 세계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명함과 같은 것이다. 20세기 초 신문화운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호적(胡適-중국문학가)은 “단지 마작만이 독서를 잊게 하고 독서만이 유일하게 마작을 잊게 한다.”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겼다. 《호적일기(胡適日記)》를 보면 거의 매일 마작을 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상하이(上海)의 문화인인 쉬후성(徐滬生)은 “마작패를 노는 것은 삶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내용’이다. 마작패로 돈을 따러는 도박꾼도 있지만 그냥 놀이로서

您這是兩塊，找你五分。 / Nín zhè shì liǎng kuài, zhǎo nǐ wǔ fēn.  
(넌 저 스 량 콰이, 자오 니 우 편.) 2원을 주셨으니까, 5전을 거슬러 드리지요.

## 중국을 지금



마작이 '도박오락'에서 '정식 스포츠'중 하나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하는 사람이 더욱 많다. 문제는 돈을 따든지 잃든지 간에, 도박적 요소가 있으므로 중국에서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은밀하게 행해지던 '도박오락'에서 머리를 지혜롭게 하는 놀이로 인식되어 스포츠의 '정식 경기' 중 하나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했다.

### 마작은 동방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작과 서양 카드놀이의 브리지(Bridge)는 넷이서 하는 놀이이다. 어떤 사람은 동서양 사람의 민족 성격을 나타내는 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인은 일을 마작하는 것처럼 한다. 뒷사람을 기억하고 앞사람을 방어하며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말했다.

서양사람들도 때로 마작을 카드놀이하는 것처럼 해서, 둘이 단결하여 상대방을 공격한다. 사실 무엇이 옳든 그르든 간에,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마작과 브리지가 생겨난 것이 공통점이라할 수 있으나 그 둘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큰 차이점도 있다.

마작을 '브리지'로 만들거나 브리지를 '서양 마작'으로 만들려는 데는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브리

지는 도박에서 시작되어 4단계의 발전을 거쳤다. 30년대 미국인 카터슨은 일종의 국제 규정을 실은 '대패단위규법(大牌單位叫法)'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제 브리지계에 승인을 받아 전세계에 유행되었다. 브리지 전문가인 리우웨이(劉雪)는 "마작 경기는 브리지가 따랐던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고 경기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복식으로 바꾸고 마작이 지닌 투기성은 줄이고 과학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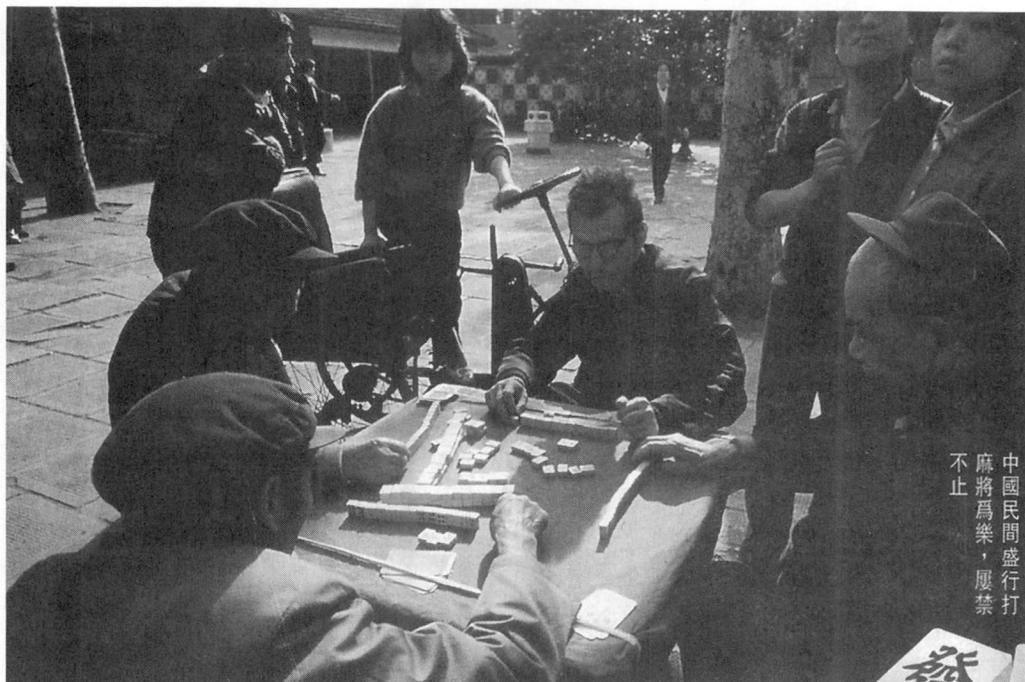
바둑도 마작과 마찬가지로 중국사람이 발명한 것으로 '중국식의 지혜'를 드러낸다. 바둑은 고대 중국에서 도박의 일종인 '보시(博戲)'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역사는 3천 년 이전을 거슬러 올라간다. 몇 천 년 동안 세상이

변했지만 마작은 계속해서 그 매력을 잃지 않았다. 마작은 여가시간이나 명절때 기쁨의 동반자가 되었다. 만약 마작이 따는 재미가 없었다면 마작에 흥미를 가졌을까? 그렇다면 마작은 도박인가? 베이징의 전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서의 사회체육지도센터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조사하고 연구하여 기존의 마작을 '스포츠 경기 마작', '여가성 마작', '도박성 마작'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첫째, 경기 마작은 마작패를 체육기구로 여기고 통일된 규칙과 경기방법에 따라 경기를 벌이는 일종의 운동 방식이다. 안후이(安徽)성 체육위원회가 앞서 조직하여 '89년부터 실시해온, 《전국 퇴직 정계인사 '중국패' 경기》가 올해로 10회가 되었다. 현재는 정식 경기규칙이 생겨났고, 경기 표준기구와 주요 단체가 있다. 둘째, 여가성 마작은 즐기는 사람이 가장 많다. 여가 마작은 주로 한 가정 내에서 가족끼리 한다든지, 소그룹이 모여 하는 것이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마작을 할 때, 경쟁과 자극을 증가시키기 위해 작은 경품을 걸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마작은 여가활동에서 교제의 한 형

你是不是算錯了? 請再算一遍。/ Nǐ shì bùshì suàn cuò le? qǐng zài suàn yí biàn.  
(니 스부스 수안 추오 러? 칭 짜이 수안 이비엔.)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 중국은 지금



中國民間盛行打  
麻將為樂，屢禁  
不止

길가에서 마작을 하고 있는 모습 (중국 민간에서는 마작이 오락으로 성행하고 있어서 아무리 금지를 해도 속수무책).

태로 나타나는 가장 소박한 오락 형식이다. 셋째, 도박성 마작은 마작패를 도구로 돈을 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베이징 당국이 엄격히 금지하는 것인데, 이 마작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사람들 간에 빠르게 유입되어, 갈수록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설 도박장이 생겨 '도박왕'이 횡행하기도 한다. 어떤 도박판에서는 도박의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심지어는 '만(萬) 자(字)를 없애고 '병(餅) 자와 '조(條) 자만을 도박의 도구로 삼는다.

마작은 사실, 생동감이 없는데다 옹고 그림도 없는 총과 같아서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서 마작은 도박은 아니다. 만일 마작을 도박의 위치에 둔다면 이 오락에 대하여 너무 단순하게 대하는 것이다. 마작 오락은 널리 보급되어 중국 마작 산업의 발전을 이룩했다. 현재 마작은 3대 집산지로 광둥(廣東), 쓰촨(四川), 장쑤(江蘇)에 분포되어 있다. 광

둥 순더의 마작 시장은 매년 매출액이 인민폐로 수억 원에 달하며, 몇 천만원에 달하는 이윤을 남기고 있다. 장쑤성 타이저우(泰州)지역에도 일명 '마작성'으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성의 모든 사람이 마작을 주업으로 삼아 집집마다 마작기구를 만들어 적지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고도의 과학 기술로 만든 전자동 마작제조기로 시작해서 마작에 필요한 부품인 마작용 탁자, 마작용 깔개 등도 생겨나고 있다. 쓰촨의 다방에는 옛날부터 마작과 같은 놀이들을 벌여놓았다. 또한 현재 많은 다방이 마작관으로 변했고, 크고 작은 거리 또는 골목에서 몇 십 명의 사람이 마작하는 사람의 주위를 둘러싸고는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쓰촨성의 일대 경관이 되었다. 쓰촨은 최근에 하나의 새로운 풍속인 '다쌍(打喪-재앙을 없앤다)'이 생겨났다. 집안에 결혼이나 초상 등 일이 생겼을 때 하객을 초청해 연회가 끝나면 모두 둘러앉아 마작판을 벌인다. 주인은

## 중국은 지금



손님들이 많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놀음판을 벌여서는 안 되지만 공안도, 이런 일은 민간활동에 속한 것이라 여기고 오히려 간섭하지 않는다.

마작이 널리 퍼져있는 사회현상은 정부와 민간주관 부서의 일로 중국에서는 정부가 마작에 대해 규제했다 풀었다 한다. 50년대 초에는 마작을 금했고, 문화대혁명 이후에는 규제가 풀렸지만 통일된 규칙은 없었다. 오랫동안 금지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공안에서는 ‘도박은 금하지만 마작은 금하지 않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도박은 계속해서 늘어나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고, 방입하는 것도 중국 국정에는 맞지 않았다. 이후, 정부가 제출한 기본 전략은 마작을 체육경기의 하나로 넣어 가정에서 사회로, 저속문화에서 고상한 문화로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국가체육위원회 산하에서는 작년에 마작 시합을 거행하여 마작을 정리하고 개조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 전문가의 여러 번의 논증을 거친 후 전국에 통일된 마작 경기 규칙(초안)을 제정하였다. 최근에 열린 ‘홍니우배’ 마작 경기는 제정된 규칙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전국적 성격의 경기가 열렸지만 주관자는 대중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식은 상하이까지 퍼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상하이 《청년보》는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 60%가 마작이 경기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과 또 경기 규칙을 찬성하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마작은 본래 사람과 사람사이의 좋은 교제 방식이라고 여기며 국가의 정신을 선양한다고 말했다. 또 마작은 변화가 많은 데다, 다양한 기교를 요구하기 때문에 잘만 인도하면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정당한 오락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마작은 이익이 하나도 없이 해만 있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낡은 풍속이라 여기고 마작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연 도박의 성질을 띠지 않은 ‘깨끗한 마작’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작을 즐기는 사람 중 73%가 관심을 나타냈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경기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상하이 시는 이 경기에 참여할 선수를 보내지 않았고, 단지 심판할 사람 한 명만을 파견했다. 상하이 체육위원회 관계자인 왕런(王任)은 “상하이는 이번 마작 경기에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에서 마작 경기를 개최한다면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하이 체육위원회 대중체육사업처에서 일하고 있는 리싱(李姓) 처장은 “상하이 대중 체육 활동의 항목은 매우 많다. 그러므로 마작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상하이 시 공안국 치안총부대의 한 관계자는 “어떤 물건이라도 심지어 돈에 쓰여 있는 부호도 모두 도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단속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마작이 단순한 경기 활동의 하나라면 치안부에서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마작 경기는 새로 개정된 《중국마작경기규칙》의 초안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베이징, 톈진, 상하이에서는 많은 노장 마작꾼들은 이 규칙을 보고 고개를 내저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방향성이 없다. 이 규칙으로는 도저히 마작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규칙은 중국마작, 일본마작 및 한국마작의 방법을 같이 지닌 것으로 많은 변화가 보인다.

중국에서는 남쪽과 북쪽의 마작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난다. 새로 개정된 마작 방법은 마작의 기교성, 예술성, 공평성, 과학성이 늘어났고 투기성이 감소했다. 규칙은 선수의 도덕, 품성, 예의, 행동에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출처/《亞洲週刊》“麻將牌晉身體育殿堂” 98. 4. 12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 홍콩의 중국반환 1주년 - 그 이후의 홍콩의 변화

강성광

90년대 초반 하여도 홍콩 사람들의 '97년 중국 반환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마치 세계 종말이라도 맞이한다는 듯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어느덧 그 요란스럽던 '97년 중국 반환이 우려와 환호 속에 역사의 분기점을 넘어 벌써 1년째 되어가고 있다.

사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일국양제'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메커니즘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만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볼 때 지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도 작년 7, 8월호 『중국을 주께로』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 홍콩의 중국 반환을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했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반환 이후 변화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변하지 않는 세계의 어떤 정치 체계나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그다지 의미 있는 견해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홍콩은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 정치적인 변화

우선 정치적인 면을 볼 때 당초 중국 당국이 주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항인치항(港人治港)'의 고도 자치(高度自治)가 외형적으로 볼 때 크게 손색없이 실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의 정치적 안정이 중국의 정치와 경제 안정과 발전에 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배려하여, 지금까지 큰 정치적인 마찰과 충격 없이 '일국양제'의 실현 약속을 지켜왔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예로 언론 매체의 자유와 변화를 볼 수 있다. 사실 중국으로 반환되기 약 1년 전부터 오히려 홍콩의 언론이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다룰 때, 전에 비해 조심하며 생존하기 위한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논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주목되는 것은 중국으로의 반환이후로 언론 매체들의 변화와 그 추세들이었다. 하지만 염려했던 것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환되기 몇 개월 전보다 더 융통성 있고 과감한 언급들이 보도되며 기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한 예로 97년 10월 말경, 한 홍콩의 일간지(信報)



홍콩은 '일국양제'의 외형적인 틀을 유지하고 중국대륙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에 중국의 최고 지도층 인사에 관하여 풍자적인 이야기를 빌려 비평하는 내용을 보고,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사실 홍콩 자치의 실현이 베이징 측의 의지 못지 않게 홍콩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울 2월경에 홍콩의 친 중국계 원로 정치인인 쉬쓰민(徐四民) 전국정협(정치협상회의) 상임의원이, 홍콩 사람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콩 텔레비전 방송이, 홍콩 행정 장관 등젠화(董建華)와 정부를 비평한다고 베이징에 가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 때 홍콩의 언론 자유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언론 매체들의 민감한 반응들이 있었다. 그 때 오히려 베이징 당국자들의 '일국양제' 수호 의지에 대한 발언으로 큰 염려를 면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홍콩 시민권자가 중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면에서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전보

다 더 중국 지방 당국의 따뜻한(?) 배려를 받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친 중국계 의원들로 구성되었던 임시 입법회의가 해산되고, 홍콩 특구 제1회 입법회의(국회) 의원들이 5월 24일 선거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다. 물론 60명 가운데 20명만이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민주과 의원들이 대거 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4명씩 선출하는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 운동 및 텔레비전 토론들을 볼 때, 전보다 더욱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경제적인 변화

경제적인 면에서의 변화와 자치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면 못지 않게 자율적인 운영과 융통성을 볼 수 있다. 본래 중국 당국에서도 경제는 완전히 홍콩 자유경제 체제를 유지, 발전시킬 것을 약속해 왔고, 그것이 또한



중국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야기될 요소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경제는 상호의존 보완 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연말 동남아 및 아시아 전체가 금융 위기에 고전할 때, 홍콩과 중국이 위험 범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상호의존과 지지를 통하여 인민폐와 홍콩 달러가 절하되는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 홍콩이 97년 중국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국과 홍콩 모두 경제적 재난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사회·문화적 변화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자율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사실 많은 중국 선교 관심자들이 홍콩의 중국 반환이후 홍콩 교회가 계속 자율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홍콩 교회와 중국 선교 단체나 기관들이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다.

그러나 염려와는 달리 지난 1년 동안 홍콩 교회의 자율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중국 선교 단체들도 자율적으로 조심을 하거나 이주해서 그렇지 대외적으로 드러난 조사나 간섭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많은 홍콩 교회들과 신학 기관들이 중국 교회와 신학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중국 선교에 기여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많은 홍콩 교회의 사역자들과 홍콩과 중국 선교 사역자들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 홍콩에서 외국이 관계하는 대형 전도 집회 개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래서 97년 5, 6월까지 많은 집회들이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반환 이후에도 여전히 홍콩 실내체육관 등에서 외국인 강사가 초청되는 대형 전도 집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홍콩의 각 대학들과 중국 내의 대학들의 교류

도 더 많아짐에 따라, 학생과 교수 요원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밖에 민간 사회 단체들의 교류와 방문들은 홍콩의 긍정적인 변화들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당국도 홍콩 인수를 성공적으로 함에 따라 인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 1년의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넘김), 체제에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로 말미암아 홍콩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사회에 개방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작년 본지 기고에서 필자가 예견한 것처럼, 홍콩의 성공적인 중국 반환과 정착은 홍콩의 안전과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자체의 발전과 개방, 그리고 중국 선교, 더 나아가 세계 선교에까지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다시 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그다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계 있는 주택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 취업이나 실업 문제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식인들의 경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홍콩과 광둥(廣東)성의 광저우(廣州)와 큰 격차가 없지만, 다른 것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제도나 체제적인 면에 있다가 보다도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면에 있다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 동력과 원인을 찾으려고 깊이 고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홍콩의 특별한 정치 메커니즘(일국 양제)은 외형적인 틀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는 내면적인 중국인의 가치관과 역사관을, 홍콩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중국 대륙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홍콩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강성광/ 홍콩 선교사, 본지 편집위원

# 기 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 55개 소수민족은 숫적으로는 불과 10%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소수민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윈난성의 소수민족 중 이족을 다루었다.  
중국 소수민족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가  
중국 소수민족 선교에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 소수민족선교의 필요성과 선교전략

김복중

## 머리말

사도행전 16장6절이하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계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즉 바울사도는 두 차례에 걸쳐 복음을 아시아 지역으로 전하기 위하여 애썼으나, 성령(聖靈)과 예수의 영(靈)이 허락치 않아,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통하여 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당시 야만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천시되던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유럽으로 전해진 복음은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대서양을 건너 북미주를 복음화시켰으며, 이어 태평양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하여져 중국과 한국 등지의 아시아 국가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이 복음의 전파행로를 "복음의 서진(西進)"이라 부른다.

"복음의 서진(西進)"과 오늘날의 중국선교, 나아가 중국 소수민족선교는 역사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소수민족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선교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국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선교의 흐름과 진행을 파악해야 하듯, 중국 소수민족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선교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여야 하며, 나아가 중국 소수민

족선교가 하나님 선교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때, 중국 소수민족선교의 의의와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사도행전 16:6~10절을 중심으로 본 복음의 서진(西進) 선교역사의 조명(照明)과 중국 소수민족선교의 필요성, 중국 소수민족 선교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동진(東進)이나! 서진(西進)이나!

왜 바울사도는 복음을 아시아 지역으로 전하기를 그토록 원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본인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름대로의 답안을 찾게 되었다. 바울사도는 당시 문명의 발생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며, 이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야만인보다는 문명인에게,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사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셨다. 바울의 원대로 아시아지역으로의 복음 전함을 허락치 않으심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되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신앙이 체계화되기 전에 복음이

這苹果不錯，既不酸？ / Zhè píngguǒ búcuò, tiánbutián?  
(저 사과 부추오, 티엔 부 티엔?) 이 사과 괜찮아 보이는데, 달아오?

장기간 아시아의 다문화권(多文化圈)을 거칠 경우 변질 또는 소멸의 길로 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복음이 아시아지역으로 즉 동진(東進)하였을 경우에, 복음은 아마도 AD 1세기 못 되어 중국에 전하여졌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슬람교의 중국 전파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sup>1)</sup>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사도의 제2차 선교여행(AD 49~51)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 바울사도의 소원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하여졌다면,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출발하여 삭막한 사막을 지나 30년만에 중국에 소개된 것 보다도 빠르게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전하여졌으며 이렇게 중국에 도달한 복음은 위에서 제기한 두 길 중에 한길을 걸었으리라 추측해본다.

### 첫 번째 길인 소멸(消滅)의 길이다.

AD 635년에 기독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안교(景敎)의 선교사인 알로펜(Alopen)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도착하여 약 200년 간 당황실(唐皇室)의 비호를 받아 당제국 내에서 활발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도교도인 당무종(唐武宗)의 도교숭상정책의 일환으로 두 차례(AD 843년과 AD 845년)의 칙령을 통하여 도교 이외의 종교를 핍박하였고, 네스토리안교도 핍박을 받아 3000명 이상의 네스토리안교도와 조르아스터교 사제들이 환속<sup>2)</sup>을 당하는 등 핍박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세력을 잃어 원대(元代)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네스토리안교가 중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오늘날 네스토리안교의 흔적은 시안(西安)의 비림(碑林)에 있는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敎流行中國碑, 781년)를 비롯하여 베이징(北京)의 방산현(房山縣) 등지에서 출토된 십자가와 역사서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네스토리안교가 200년간 중국에서 부흥 발전

하였으나 더이상의 발전없이 소멸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당시 당 무종의 도교 숭상정책에 의하여 마니교, 불교 등이 핍박을 받을 때, 네스토리안교도 같이 핍박을 받아, 정권과의 밀접한 관계가 깨어짐에 따라 정치적 보호막이 상실되었다. 둘째로 본 신앙의 정립, 발전 없이 성급히 토착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즉 유교, 도교, 불교의 사상이 중국의 네스토리안교 교리 안에 자리잡아 갔으며, 이는 선교토착화보다는 종교통합<sup>3)</sup>에 박차를 가하였다. 중국의 네스토리안교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시간이 흘러갔고, 허약해진 생명력에 외부의 큰 탄압이 있자 중국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며, 현재 중국에는 단 한명의 네스토리안교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 두 번째 길로는 변질(變質)의 길이다.

후한(後漢)시대인 AD 65년 경,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된 이래, 본격적으로 불교가 대대적으로 중국에 전파된 시기는, AD 630년 경에 당나라의 현장(玄奘) 법사가 불경을 인도(印度)에서 구해와 불경번역사업과 함께 당제국에 활발히 전파하던 때이다. 각지역으로 활발히 전파된 불교가 AD 7세기 경에 서남지역, 특히 티벳지역으로 전하여지면서 현지의 토착종교인 본교(本敎)등과 어우러져 라마교(藏傳佛敎)가 생성되었다. 라마교는 불교의 한 계파인 것 같으면서도 전통불교와는 또다른 면을 지닌 종교임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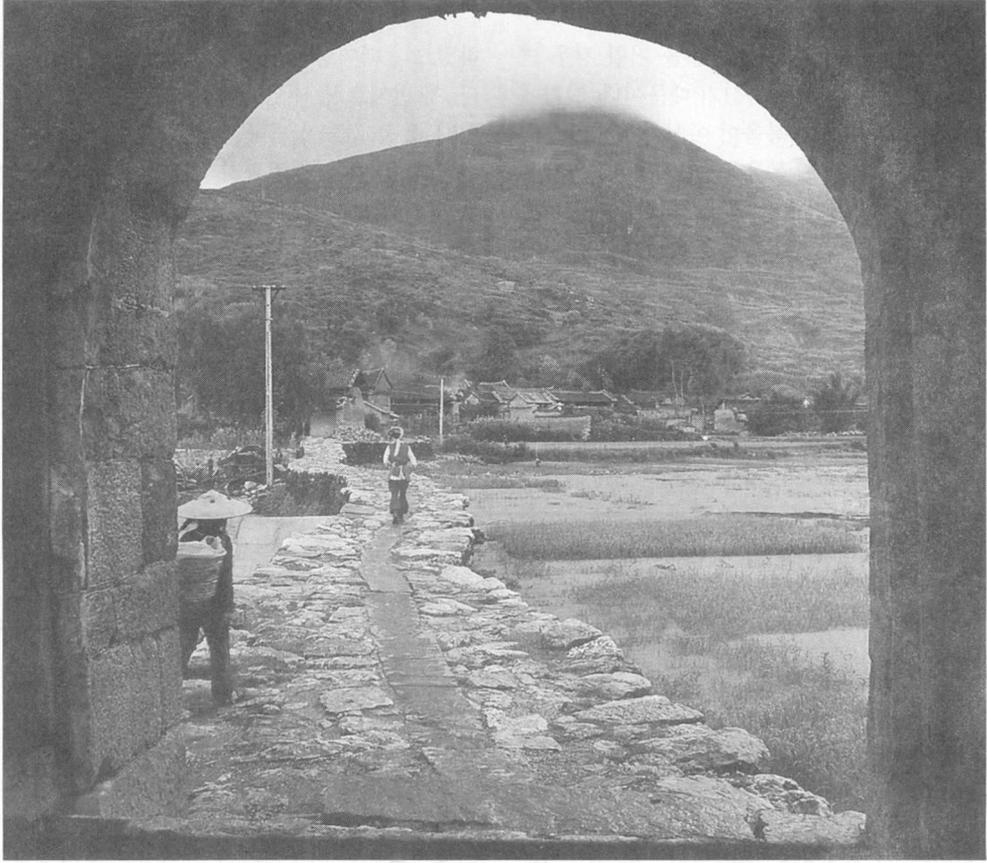
이렇듯 중국에 들어온 외부의 종교들이 소멸과 변질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갓태어난 기독교가 아시아지역의 수많은 종교들을 헤치고 다문화, 다민족지역인 중국에 들어왔을 경우, 이상에서 열거한 두 종교의 전철을 밟았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사도의 동진(東進)계획이 좌절되고, 서진(西進)으로 방향이 180도 바뀌어짐에 따라 유럽으로 복음이 전하여졌다. 이어 북미주로부터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왔으며, 이 복음이 오늘날 중국의 서북부 지역까지 전하여진 것이다. 2,000년간 복음의 서진(西進)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는 체계화된 완전한 신앙으로 정립되었으며 전세계의 역사와

1) 이슬람교는 AD 621년에 모하메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시작된 이후 30년 후인 651년(당고종)에 모하메드는 세 번째 칼리프인 장인인 울트만(Ulman)을 특사단장으로 임명하고 특사단을 당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지금의 서안)에 보내어 당시 페르시아만지역과 이슬람교를 소개하였다.

2) 사무엘 H. 마렛 지음, 김인수 역, 《아시아기독교회사 제1권》(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년), p.483.

3) 위의 글 p.485.



복음이 서진하기 위해서는 미전도지역인 소수민족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사진은 원난성 따리의 한 소수민족 거주지역).

문화와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위치가 되었다.

중국에 들어온 복음은 마지막 피치를 올리기 앞서, 그동안 중화사상(中華思想)에서 모든 외래종교가 흡수(吸收) 동화(同化)되는 환경을 극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기대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정치, 사회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국가로 중국을 변화시켰으며, 2,000년 전 사도바울이 그토록 애쓰던 아시아에로의 복음전파가 복음의 서진(西進) 종착점인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 이제 복음을 역(逆)수출 하기에 이른 것이다.

### 서진(西進)의 완성 !

#### "중국 소수민족선교의 필요성"

중국의 서북부에서 서남부를 기준으로 볼 때 영적 전쟁터의 휴전선이 그어져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 불교의 3대 세력이 중국의 서남북부 지역 밖을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교가 가장 강력하게 서진(西進)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외부상황과 내부의 정치, 사회, 종교의 껍박하에서도, 한족 중심의 중국의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수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며, 이제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전파하는 교회로 바뀌어 국내의 미전도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되었다. 이제 결집된 복음의 힘을 국내 사역뿐 아니라 복음의 서진(西進)에 투입하는 때, 견고한 이슬람의 보루(堡壘)를 뚫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복음의 서진(西進)을 완성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의 기독교전과 상황은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을 제외한 연안(沿岸)지역과 대도시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예배처소가 있을 정도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이 주거하는 지역 즉 진중국 국토의 60% 이상의 지역과 국경을 중심으로하는 소수민족지역에는 일부 지역과 민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지역이다.

특히 서진(西進)의 길목인 간쑤(甘肅)성, 칭하이(青海)성,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와 라마교의 본산지인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 등은 복음의 불모지(不毛地)지로서, 복음전파가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일전에 북한선교가 동북 변경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쉽게 북한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출입국시 여권 대신에 통행증으로 북한을 쉽게 출입국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 국경을 사이에 두고 각국의 변방에 동일민족이 주거하며 자유롭게 교류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중국과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현실이다. 이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중국과 북한 국경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같이 여권없이 통행증으로 자유롭게 인근국가를 오고 갈 수가 있다.

복음이 이들 소수민족들에게 증거되어 소수민족들이 복음화되고 내륙지방 한족과 소수민족들이 국경 밖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동안 정지되었던 복음의 서진(西進)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활발히 확장 중인 복음이 서진(西進)하기 위해서는 필히 미전도지역인 소수민족지역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 주거하는 소수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이미 자생력을 갖춘 내지 한족교회들이 전도단을 구성해 변방의 소수민족지역으로 파송하여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족교회와 소수민족교회가 복음을 중국 국경 밖으로 전하여 선교의 재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한족교회와 소수민족교회에게 세계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내지의 한족교회가 파송한 전도단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칭하이성, 간쑤성, 심지어는 라마교의 본산지인

티베트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 중국 소수민족선교전략

중국 소수민족은 크게 정치, 종교,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이기에 먼저 제한된 지역에 적용될 기본 선교전략 하에 중국 소수민족지역과 소수민족에게 적합한 개별적 선교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1. 제한된 지역에서의 선교전략

대부분이 미전도민족인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전략으로 현장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한된 지역의 미전도민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현지지역과 현지민족에게 현지의 관점으로 어떻게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sup>4)</sup> 미전도민족이 있는 지역 주변에 복음을 전할 교회와 기독교인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현지에 맞는 선교전략을 수립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 2. 중국 소수민족선교 기본전략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선교는 위에서 제시한 제한된 지역에서의 선교전략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일반적인 선교전략<sup>5)</sup> 이외에 기본적인 선교전략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선교사 개인이 직접적으로 소수민족에게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한족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소수민족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한족 교회와의 협력사역을 하였으면 한다. 즉 외부에서 선택된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변의 기존

4) John D. Robb는 그의 저서 "초점! 종족집단별 접근전략"의 p.25에서 "이미 정해진 해결책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그 상황 내부에서부터 전략을 개발해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복음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살고 일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독특한 삶의 방식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은 그가 접근하고자 하는 종족집단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과 사고형태를 고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5) 줄고 "중국소수민족선교전략" 미션저널 98년 봄호, 총회선교부, 해외선교위원회 참조

교회를 통하여 접근하자는 것이다.

수천만의 준비된 성도들이 존재하며,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자립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 교회에게 중국 내의 소수민족선교의 주도권을 주어, 중국 내의 미전도 지역과 소수민족의 복음화를 외국교회가 주체가 되지 말고 자국민 교회가 주체가 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중국인에게서 서방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인식되었던 부정적 이미지를 갱신하고, 중국의 미복음화 지역과 소수민족선교의 주체권을 줌으로써 고난과 상처로 연단되어온 중국 교회가 중국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주류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선교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선교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첫째, 기도의 씨앗을 뿌리자(시 2:8).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선교현지, 특히 사머니즘과 토착종교의 모습으로 현지 소수민족들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장악하여, 강력하게 선교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계를 뚫고 소수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선교현지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지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 선교사 자신이 기도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배후에서 선교사와 사역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손들이 있음을 확인해본다. 구체적으로 지역과 각민족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 둘째, 현지 한족 교회와의 친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자(고전 9:20).

중국의 소수민족지역에서의 사역은 제한된 지역으로서 정치, 종교, 문화,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기에서 여기에서 선교하고자 할 때 많은 준비와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먼저 제반적으로 중국을 이해해야 하고, 중국의 표준어인 만다린을 구사하여야 하며, 현지에 거주하기 위하여 확실한 신분확보 등의 전제조건하에 선택한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와 나아가 민족어와 사역언어의 학습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사역의 첫

기간은 4년 정도를 투자하여야 한다.

이런 투자 이외에 중국의 소수민족지역은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지역과 장기거주사역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현실가운데, 실질적으로 선교사들의 중국 소수민족사역은 민족지역의 중심도시에서의 개인전도와 소그룹인도,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역, 도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단기훈련사역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역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내 한족교회를 통한 선교이다. 한족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인 중국의 교회로서 성도들은 어느 지역이고 자유스럽게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쉽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기존의 한족전도자를 파송할 경우,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보다 현장작용은 물론 사역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한족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며 이들에게 소수민족선교의 비전 제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전도단을 소수민족지역으로 파송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한족 교회들은 자체 전도팀을 내뭉고, 칭하이성, 간쑤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장자치구 등지로 파송하고 있으며, 자체 조직 내에 소수민족전도단을 구성하는 등 활발히 소수민족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효율적으로 소수민족사역을 감당하도록 지원사역과 함께 말씀사역자를 한족 교회와 가정 신학교에 파송하여 한족 전도자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 한족 교회의 지원사역으로는

1) 성경과 신학서적 등을 공급하며 필요에 따라서 이들 서적을 인쇄할 수 있는 간이 설비와 경비를 지원한다.

2) 외국선교사가 중국에 거주할 때 일정한 신분확보가 필요하듯이 한족의 전도자가 소수민족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때 외국인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신분이 필요하다. 이들이 거주와 신분확보에 필요한 직업을 갖도록 지원한다(예: 간이 음식점, 소매점, 전기수리점, 공중전화점, 의류점 등 최소의 경비가 필요한 직업).

이런 지원은 현지교회와 전도단의 자립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역과 함께 장기사역을 할 수가 있다. 나아가 전체 중국 교회의 자립에 기여를 할 것이다.

3) 중국어로 강의와 설교가 가능한 선교사들로 구성된 순회강사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가정교회를 돌며 전도자양성을 한다(현재 대만과 홍콩 등지의 중국인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강의단이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사역이 진행되어 전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셋째, 도시로 진출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계 5:9~10).

사업과 공부 등의 이유로 많은 수(베이징에만 40여만 명)의 소수민족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비교적 개방적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캠퍼스 사역시 주위의 소수민족출신의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전도대상자를 선택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한 학생을 개인 양육을 통하여 기본적인 훈련 후 가급적 현지 가정교회 등에 연계해 현지 공동체에서의 교제와 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 졸업 후 귀향할 때 현지사역을 감당토록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 협력한다.

넷째, 소수민족지구와 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민 13:1~3).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는 소수민족을 알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여야 하는지, 복음이 소수민족에게 소개되고 정착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도록 현장성과 실효성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의 결과가 실제 현장사역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중국소수민족선교의 기본전략 등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전략들은 “나의 중심이 아닌 현지인 중심”에서 시작되며 중국의 소수민족선교를 하기 원하는 외국교회와 선교사들이 바르게 자신의 환경과 역할을 직시(直視)할 때 중국 소수민족선교에 유익한 많은 전략이 도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지역인 소수민족지역과 1억명의 소수민족이 오히려 복음의 대폭발 즉 집단개종 등이 이루어져 21세기 미전도종족선교의

핵심을 이룰것이다.

## 맺는말

이상에서 복음의 서진(西進)에 대한 선교역사를 통하여 중국 소수민족 선교는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선교의 주류(主流)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음의 서진 완성과 선교의 재창출을 함에 있어서의 중국 소수민족 선교의 필요성과 외국교회가 직접적으로 소수민족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중국 교회와 성도들을 지원, 협력하는 사역, 즉 외국교회가 외부에서 수립된 전략보다는 중국 내부에서 수립된 전략과 자원을 최대한로 활용하여 선교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 기본적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위해 한국 교회는 미전도민족의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품고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현지교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말씀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선교사를 양성, 파송하여야 한다. 현지의 전도자를 지교회 선교사로 인식하고 그 복음사역에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지교회와 전도팀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자립할 수 있는 기반 확보 등을 통하여 실질적, 동반자적 선교를 함으로써, 그동안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동북의 조선족선교에 편중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의 범주를 벗어나 한국 교회가 타민족, 타문화권인 중국선교와 중국 소수민족선교에 참여할 때라 생각한다.

김복중/ 중국소수민족연구소, 중국선교사

# 윈난성의 소수민족(Ⅳ)

허 중 선

## 이족(彝族)

**인구** 6,578,524명(4,236,400명의 인구가 윈난성에 거주하고 있다).

**분포** 윈난(云南)성의 중남부(楚雄彝族自治州, 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와 서북부(凉山)일대에 비교적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으며, 루난(路南), 난젠(南澗), 어산(峨山), 양비(漾濞), 닝량 이족자치현(宁蒗彝族自治县), 그리고 웨이산(巍山), 신평(新平), 쉰뎐(尋甸), 위엔장(元江), 모장(墨江), 장청(江城), 정동자치현(景東自治縣) 등지에도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쓰촨(四川)성(1,525,713명), 구이저우(貴州)성(563,747명), 광시(廣西)성(4,676명)을 비롯하여 기타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두고 있는 주변국가에도 소수가 분포하고 있다.

**언어** 이족은 고유한 민족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어(彝語)는 한장어계(漢藏語系) 장면어족(藏緬語族) 이어지(彝語支)에 속하며, 크게 6개의 방언지역으로 나뉜다. 1. 동부방언지역: 3개의 제2방언과 9개의 토속어(土語)가 있으며, 추슝 이족자치주(楚雄彝族自治州)의 우딩(武定), 위엔모우(元謀), 루핑(祿豐)등지에서 약 1백만

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2. 동남부방언지역: 4개의 토속어(土語)가 있으며, 루난(路南), 미레이(彌勒), 화닝(華寧), 원산(文山)등지에서 약 68만 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3. 서부방언지역: 2개의 토속어(土語)가 있으며, 웨이산(巍山), 미두(彌渡), 용평(永平), 바오산(保山) 등지에서 약 67만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4. 남부방언지역: 3개의 토속어가 있으며, 쟈수이(建水), 꺼지우(个舊), 신평(新平), 어산(峨山) 등지에서 약 1백만 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5. 북부방언지역: 2개의 제2방언과 5개의 토속어가 있으며, 화평(華平), 용성(永勝), 닝량(宁蒗) 등지에서 약 80만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6. 중부방언지역: 2개의 토속어가 있으며, 추슝(楚雄), 무딩(牟定), 따야오(大姚), 용린(永仁) 등지에서 약 55만 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6개의 방언 사이에는 차이가 크며,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 지역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통이 불가능하며, 간혹 한어(漢語)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자** 이족은 약 1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일종의

표의(表意)문자형식의 고유문자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뤄뤄윈(羅羅文)”, “뤄윈(倮文)”으로 불리웠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라오이윈(老彝文)”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역사상 이족 문자(彝文)를 이용하여 역사, 철학, 문예, 의학, 천문지리, 언어, 문자, 종교경전 등 다방면에서 문헌자료를 남겼으며, 이 가운데 많은 자료들이 현재 정리 출판되고 있다.

**민족역사** 이족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 그 기원은 고대 서남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구창런(古羌人)과 관련있는 “쿤밍런(昆明人)”이다. 기원전 4세기 초, 이들은 지금의 쓰촨성 서북부와 서남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본토인 “이(夷)부족과 융합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다. 진한(秦漢)시대에는 각각 “쿤밍(昆明)”, “서우(叟)”로 불리우면서 초기 이족 민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8세기 중엽에는 바이(白)족과 함께 이족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인 “난자오궈(南詔國)”를 세우게 된다. 원(元)나라 시대에는 “뤄뤄(羅羅)”로 불리우면서 이때부터 세습족장제도인 토사(土司)제도(黑骨, 白骨, 家奴 3개 등급)를 형성한다. 이후 해방 전까지 노예제도와 봉건제도가 이족사회 안에 병존하였고, 현재까지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발전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족은 오래된 역사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지계(支系)들을 형성해 왔는데, 서로 다른 이름만 해도 무려 100여 종이 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뤄쑤(諾蘇)”, “나쑤(納蘇)”, “뤄뤄(羅羅)”, “이족(彝族)”, “헤이이(黑彝)”, “바이이(白彝)”, “사니(撒尼)” 등이 있다. 현재는 “이족(彝族)”으로 통일되어 부르고 있다.

**건축** 이족은 농경 민족으로 대부분 산지나 계곡 근처의 평지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다양한 가옥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적은 곳은 “투장팡(土掌房)”, 비가 많은 곳은 “차오딩(草頂)”, 나무가 많은 곳은 “무렁팡(木楞房)” 형식의 가옥들을 사용하고 있다.

투장팡은 이족의 전통가옥으로서, 추승(楚雄) 이족 자치주와 남부지역인 어산, 싹핑, 위엔장(元江), 진핑(金平) 일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투장팡은

본채(正房)와 곁채(廂房)로 구분되는데, 본채는 3개의 방으로 구분된 2층 가옥이다. 1층은 소나 돼지 등 가축을 가두는 우리로 사용하고, 2층은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사용한다. 마루나 지붕은 흙으로 사람의 키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 베란다 등으로 사용한다. 본채의 3개방 가운데 중앙은 대청과 주방으로 사용한다. 방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궈좡(鍋庄)”이라고 부르는 휘탕(火塘)이 있다.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이족에게 있어서 휘탕은 가정생활의 상징이며, 각종 활동의 중심지이다. 예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거나 식사를 할 때, 그리고 각종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 모두 휘탕 주위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들은 휘탕은 가족의 운명,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른바 “완네희(萬年火)”라고도 부른다. 투장팡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산허위엔(三合院, ‘ㄷ’모양)”, “쓰허위엔(四合院, ‘ㄷ’모양)”형식의 가옥들이 있다.

**복장**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이족만큼 전통적 민족복장이 다양한 민족은 없다. 종류와 양식면에서뿐만 아니라 도안 역시 복잡하다. 여자의 경우 현재 약 100여 종이 넘는 복장이 있는데, 성별, 연령별, 평상복, 혼인복, 장례복, 제사복, 전쟁복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족 복장은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있는데, 치마를 위주로 입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바지를, 그리고 어떤 지역은 두루마기를 위주로 입는다. 복장의 표현 역시 다르다. 예를 들면, 자수, 십자수, 염색 등 그 방법이 변화무궁하며, 색깔 역시 풍부하다. 이들은 검은색을 숭상하며, 옷감으로 주로 검은색, 청색, 남색 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장엄하고 정중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운남 남부의 광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족의 복장을 가리켜 “홍허싱(紅河型)”복장이라고 통칭하여 부른다. 남자의 경우, 각지역마다 기본적으로 같은데, 옷깃이 짧고 깃이 바로 선 상의에 폭이 넓은 바지를 입는다. 색깔은 검은색 혹은 남색을 사용한다. 여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긴 홀옷, 중간 홀옷, 바지와 옷웃만을 입는 간단한 모양 등이 있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이족만큼 전통적 민족복장이 다양한 민족은 없다.  
(사진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이족 아가씨들.)

다. 일반적으로 외투로 조끼를 입고 긴바지를 입거나 앞치마를 두른다. 장식 역시 화려하고 다양하다. 머리 장식은 주로 옥이나 은, 털실로 만든 모자를 쓴다. 예를 들면, 쿤밍 근처의 사메이(撒梅) 지계(支系)와 홍허하 니족이족자치주(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남부지역에 있는 여러 지계(支系) 처녀들은 일종의 닭의 볏모양의 “지관마오(雞冠帽)”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단한 천을 잘라 만든 닭의 볏모양에 다시 크고 작은 천 이백여 개의 은 알을 박아넣어 만든 것으로, 마치 우는 수탉의 모양과 같다. 이것은 처녀들의 길흉과 행복을 의미한다. 이외에 루난(路南)의 사니(撒尼) 지계의 여자들은 “위얼제(窩耳結)”라고 부르는 옥과 화려한 무늬로 만든 모자를 사용하고 있다.

## 음식

이족은 대부분 산지나 산 중간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음식은 추위에 강한 종류의 농작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메밀, 옥수수, 감자가 주식이고, 귀리, 벼, 보리, 밀, 콩 종류가 그 다음이다. 일부 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들도 있다. 부식품으로는 소, 양, 돼지, 닭 등을 먹으며, 특히 날고기와 날간을 먹는 관습이 있다.

이족은 각 가정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 있다. 예를 들면, 야채나 무줄기를 원료로 만든 채소에 돼지고기나 양고기, 혹은 버를 넣어 만든 국은 그 맛이 독특하다. 특히 콩으로 만든 “뉘나바(多拿巴)”는 특색 있는 음식으로, 콩을 갈아 걸쭉하게 만든 뒤 더운물에



이족아가씨는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과의 결혼은 금하고 있다.

데쳐서 시큼하게 발효시킨 채소를 넣어 함께 끓인 뒤 먹는 방법으로 이 맛 역시 일품이다. 이밖에 이들은 술과 차를 좋아한다. 특히 술은 이족의 음식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족의 속담 중에 “한인귀재차, 이인귀재주(漢人貴在茶, 彝人貴在酒)”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족 사람들은 차를 중히 여기지만, 이족 사람들은 술을 중히 여긴다는 뜻으로, 곧 이들이 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은 개, 말, 그리고 곰 등의 동물들은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물들은 민족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원시종교의 영향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결혼

이족은 역사상 다양한 결혼형태를 지녀왔다. 예를 들면, 일부다처제, 내혼제, 같은 계급끼리의 결혼, 동성간의 결혼금지, 고모의 딸과는 결혼할 수 있지만, 이모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는 규정 등 다양한 형태를 지녀왔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있다.

이족사회에서는 내혼제(內婚制)가 성행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과의 결혼은 금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이족지계 사이에도 결혼을 금하고 있다. 결혼은 주로 부모에게 결정권이 있으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청년남녀들은 15, 16세가 되면 사랑의 노래와 각종 악기들을 배우기 시작하며, 매년 농한기 혹은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리를 지어 하루 종일 초원이나 숲속 가운데에서 약속한 시간에 모여 “촨산(串山)”, “촨자이(串寨)”라는 활동을 한다. 이때 모두가 노래와 춤을 추면서 서로의 얼굴을 익히며, 연애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서로가 증표로서 물건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당혼(訂婚·약혼식), 잉친(迎親·신랑 측에서 사람을 보내 신부를 맞이함), 후이먼(回門·결혼식 이후 신부집으로 인사하러감)등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중매인이 술과 일부의 장신구(팔찌나 붉은 천)을 가지고 여자집에 가서 혼담을 꺼내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약혼식, 즉 “츄딩지우(吃訂酒)” 의식을 거행한다. 이 때 여자 측에서는 가족, 친척들과 협의하여 결혼날짜, 예물, 결혼규모, 참석자수 등을 결정한다. 결혼식이 다가오면, 신랑 측에서는 신부 측에 사람을 보내 신부를 맞이하며, 신랑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부 측에서 따라온 청년남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와 춤을 추며 신부를 배웅한다.

도착 이후 결혼식이 이어지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신부가 바로 같은 방을 쓰는 것이 아니다. 결혼 이틀째 되는 날까지 신부 측 친척들과 함께 있다가 삼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신랑 측에서 다시 사람을 보내 신부를 맞이한다. 그러나 다시 삼일이 지난 후 신부는 집으로 돌아간다. 또다시 한 달이 지난 후 신랑 측에서 사람을 보내어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때 신부가 신랑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정식으로 같은 방을 쓰게 된다.

**장례** 이족은 많은 지계와 인구, 그리고 분포지역이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 역시 다른 관계로 인해 장례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면, 수장(樹葬), 도기장(陶器葬 - 路南彝族自治縣의 사니 지계가 행함), 암석장(岩石葬 - 富民縣의 彝族이 행함), 수장(水葬 - 涼山彝族이 행함), 화장(火葬 - 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함) 등이 있다.

화장은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죽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 그 규모의 차이가 있다. 노인의 경우 특히 중히 여기고, 그 다음이 장년의 장례이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무당이나 노인이 경을 읽는데, 이는 이른바 “카이루(開路)”, 즉 영혼을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어서 시체를 집안에서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 입히고, 조문객을 맞이하는데, 양과 소를 잡아 죽은 사람과 조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화장하는 장소와 형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산 정상이나 숲속에서 거행하는데, 나무를 겹겹이 쌓은 다음 맨 위에 시체를 놓는다. 이 때 남자는 시체의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눕혀야 하며, 여자는 옆으로 비스듬히 눕혀 불을 붙인다. 화장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장하는 도중 불이 꺼진다고 해서 나무를 새로 넣을 수가 없다. 죽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미신 때문이다. 화장이 끝나게 되면, 태운 재를 모아 들판에 뿌리거나, 하얀 천으로 쌓아 땅에 안장한다. 이러한 화장의식이 모두 끝나면, 죽은 사람의 자녀 가운데 가장 어린 자녀의 집에 위패(靈牌)를 모시며, 3년이 지난 뒤 좋은 날짜를 택해 인적이 드문 산속의 동굴에 위패를 갖다 놓는데, 이것으로 일련의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다.

**금기** 이족의 민간금기는 매우 많으며, 대부분이 종교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만 소개하겠다.

집안에 있는 “귀장(鍋庄)”(火塘)은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들의 일상생활과 손님을 맞이하는 가정의 중심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로 밟거나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외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이유는 가정의 불행과 주인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족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다른 소수민족도 마찬가지이다). 외부 사람이 아침 일찍 집을 방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매우 싫어한다. 이유는 아침은 아직도 집안이 어둡고, 복장이나 각종 생활용구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찾아오는 것은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앓을 때 발을 뺏어서는 안 되며, 지나갈 때도 여자를 넘어 지나가서도 안 된다. 반대로 여자 역시 남자의 옷과 일상용품을 뛰어 넘어 다녀서는 안 되며, 특히 남자의 몸과 머리는 더더욱 안 된다. 이 밖에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 개는 사람들에게 곡식종자를 가져다 주는 좋은 동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새로 밥을 지으면 먼저 개에게 주는 등 개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현재에도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원시종교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주요절기** 이족이 지키는 절기는 다양하며,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절기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횡바제(火把節, 음력 6월 24일)

이족의 전통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일종의 풍작을 기원하는 절기이다. 당일이 되면, 남자는 오른쪽이 터진 화려하게 수놓은 짧은 옷에, 하의는 통이 넓은 긴바지를 입는다. 머리는 위로 묶고, 오른쪽 귀에다 노란색 혹은 빨간색의 귀걸이 구슬을 한다. 여자는 화려하게 수놓은 상의에, 화려한 오색빛의 주름치마를 입고 귀걸이와 머리 가운데에 꽃무늬 천을 쓴다. 이들은 산지

您這是兩塊，找你五分。 / Nín zhè shì liǎng kuài, zhǎo nǐ wǔ fēn.

(넌 저 스 량 콰이, 자오 너 우 펜.) 2원을 주셨으니까, 5전을 거슬러 드리지요.

의 들판이나, 숲속의 호수가 주변에서 성대하게 축제를 열며, 낮에는 씨름이나 소싸움, 말경주, 혹은 노래와 춤을 추며 즐기다가, 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폭죽을 터뜨리며 노래와 춤을 춘다. 그리고 손에 햇불을 들고 논이나 밭 그리고 과수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일년의 농사 풍작과 사람과 동물들의 평안과 흥왕을 기원한다.

휘바제의 유래에 대한 전설은 다양하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잔인하고 포악한 마왕이 있었다. 그는 산 정상에 거주하면서 매번 사람들을 무차히 공격하여 살해를 일삼았다. 마을 사람들이 여러 차례 마왕을 대적하여 싸웠으나 매번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총명하고 용감한 한 청년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낸다. 즉 햇불을 양의 뿔에 매달아 사방팔방에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청년의 말대로 많은 양의 뿔에 햇불을 달아 산으로 올라가게 했다. 마왕은 올라오는 양 무리를 보고 자기의 마법을 행했지만 미치고 날뛰는 양들에게는 미칠 수가 없었다. 결국 마왕은 불에 타 재가 되었고 이후부터는 평온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한차례씩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 2. 차화제(插花節, 음력 2월 8일)

일종의 평안과 건강, 가축의 흥왕과 곡식의 풍작을 기원하는 이족의 전통절기이다. 당일날 사람들은 빨간 자귀나무와 진달래꽃 그리고 동백꽃 등으로 화환을 만들어 집문이나 논두렁, 소나 양뿔 등에 건다. 그리고 청년 남녀들은 화려한 민족복장과 머리에 생화를 꽂고, 등에는 쌀로 만든 술과 건조식품 등을 메고 마을 부근의 풀이 있는 넓은 들판에 모여 태평소를 부르며, 갈대로 만든 악기와 월금 등을 연주하며 춤을 춘다. 이 때 젊은 남녀 가운데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을 경우, 서로 꽃을 꽂아 주며 사랑을 나눈다.

절기의 유래를 보면, 옛날에 담화산(曇華山)이라는 곳에 이족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이족 노래 가락과 각종 꽃과 물고기, 새들의 자수를 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산에서 양을 방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흉악한 이리가 나타나 그녀와 양들을

공격한다. 이 때 한 청년이 나타나 이리를 죽이고 처녀와 양을 보호한다. 처녀는 이 청년을 향하여 감사의 표현으로 진달래꽃을 주었고, 청년 역시 생화를 그녀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 이후 이들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당시 담화산에는 잔인하고 포악한 관리가 있었다. 그는 자기 집안에 선녀정원을 만들어 놓고, 각 마을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 희락을 즐겼다. 이 소식을 들은 이족 처녀는 분노하여, 음력 2월 8일 당일 산에서 독이 있는 생화를 따다 자기의 머리에 꽂고 선녀정원으로 들어간다. 포악한 관리 앞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던 이 처녀는 독이 있는 꽃을 술잔 속에 넣었고, 이 술을 마신 포악한 관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녀 역시 죽는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은 이미 죽은 그녀의 시체를 보고 슬퍼했고, 산을 내려오면서 양쪽 눈에서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하얀색의 진달래 꽃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처녀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음력 2월 8일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

## 3. 싼위예제(三月會, 음력 3월 24일)

매년 추승 이족자치주(楚雄彝族自治州)의 모우딩현에서 약 5일 동안 거행되는 이족의 전통절기이다. 이 기간 중에는 모우딩현 전체에 등불이 켜지고, 징과 북소리가 하늘을 진동할 정도로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에서 폭죽이 터진다. 그리고 서로 물물교환도 이루어진다.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이 되면, 처녀들은 번쩍 번쩍 빛나는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머리장식과 장신구 등을 화려한 전통복장 위에 매달고, 젊은 남자들은 가슴과 어깨에 각종 악기를 메고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호금을, 어떤 사람은 피리를 가지고 행사장소로 모인다. 일반적으로 넓은 평지나 들판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각종 악기로 연주가 시작되면 민족복장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 많으면 수백명이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모우딩성(牟定城)밖에 용담(龍潭)이라는 호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괴이한 용이 살고 있었다. 매년 음력 3, 4월이 되면, 용이 풍파를 일으켜 호수의 물이 넘쳐 마을 전체를 물



이족의 전통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인 휘바제(火把節)에 노래와 춤을 즐기고 있는 이족들

바다로 만들곤 했다.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이곳에 새로 부임한 관리가 이 사실을 알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낸다. 모든 사람들에게 게 이르기를 음력 3월 28일이 되면 각 가정마다 일정량의 밤나무로 만든 숯을 가지고 호숫가에 와서 태우고, 명령이 있으면 태우던 숯을 호수 속으로 집어 넣으라고 했다. 당일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호숫가에 모여 숯을 태우며 관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총명한 관리가 명령을 내리자 사람들은 빨강계 타고른 숯을 호수 속으로 집어 넣었고, 계속해서 돌과 모래를 넣어 호수를 완전히 막아 버렸다. 결국 이 일이 있는 후 다시는 홍수가 나지 않았고 평온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을 기념하여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

**종교** 이족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원시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도교와 불교 그리고 일부지역에서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고 있다.

현재 이족 사회에서 유행되고 있는 원시 종교로는 조상숭배를 비롯하여 자연숭배, 토템(Totem)숭배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 1. 조상숭배

조상숭배의 기본사상은 “삼혼설”(三魂說)과 “조계”(祖界)관념이다. 이들은 보편적으로 사람에게는 3개의 영혼이 있고, 이들 3개 영혼의 귀착점은 각각 다르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 한 영혼은 무덤을 지키고, 한 영혼은 조상 영혼세계에 들어가고, 또 다른 한 영혼은 집안에서 섬기는 조상의 위패 속에 거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영혼들이 자손들을 지키고 복을 준다는 것이다. 또 하나 삼혼설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조계관념이다. 조계는 이들의 관념 속에 자기 민족의 조상이 시작된 발상지이고 동시에 후대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의 집결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계에 있는 영혼들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이다. 이족에게 있어서 조상숭배는 그들의 삶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2. 자연숭배

일종의 정령(精靈) 및 귀신숭배 신앙형태이다. 이들은 대자연 가운데 많은 것이 생명이 없고 대신 정령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집안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물건과 복장, 장신구, 용기 등에는 모두 정령이 있다고 보고, 이 정령이 자손들을 보호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매년 시간을 정해 제사를 드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연의 사물을 인격화시켜서 각양각색의 귀신들을 숭배하고 있다. 하늘에는 하늘신(天神)이 있고, 땅에는 땅신(地神)이 산과 호수 그리고 천둥과 번개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 가운데 이들이 가장 공경하고 있는 숭배의 대상이 산신(山神)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생산과 생활의 기반 그리고 농사와 목축이 모두 산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 3. 토템숭배

이족은 자기들의 조상과 자연물 사이에 혈연관계 혹은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즉, 토템이 변해 사람이 되었다는 관념이다. 이들은 특히 집안족보에 대해서 중히 여기는데, 각 집안의 족보를 보면, 제1대 조상의 이름들이 대부분 동물 아니면 식물 혹은 자연현상과 연관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족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물건과 복장, 장신구, 용기 등에 모두 정령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제2대로부터 시작해서 부자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족 역사상 성행했던 토템숭배는 “호랑이(虎)”이다. 그래서 후(虎)를 이용한 이름들이 많다. 민족의 이름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산과 호수, 촌 그리고 개인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이라오산(哀勞山) 지역의 이족을 가리켜 “뤄뤄(羅羅)”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후(虎)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여러 방면에서 토템 후(虎) 관념이 사용되고 있다.

도교가 원난에 들어온 시기는 난자오궈(南詔國)가 통치하고 있었던 8세기 중엽이며, 명, 청나라 시대에 지금의 추승 이족자치주(楚雄, 南華, 姚安) 지역에 고루 분포하였다. 1949년 이후 도교활동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들의 민간신앙 속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불교는 당나라 초기에 원난에 들어왔으며, 난자오궈(南詔國)

와 다리귀(大理國) 시대에 지금의 추슝 이족자치주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명, 청나라 시대에는 약 452개의 절이 있을 정도로 흥왕했으나, 1949년 토지 개혁 이후 그 영향이 사라지고 있다.

**기독교**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통계에 의하면 현재 신자의 수는 약 15만 명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특히 추슝 이족자치주(楚雄, 武定, 祿豐, 元謀, 南華 등)지역의 복음활동이 활발하여 1949년 이전에만 해도 약 만 명이 넘는 신자가 있었다. 현재는 증가하여 약 2만 명 이상의 신자가 있다. 이 가운데 우딩씨엔(武定縣)의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와 가정처소를 합하면 무려 31개가 있고, 신자 수 역시 4천명 이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 흥허하니족 이족자치주(治州: 个舊, 蒙自, 開遠 등)지역에도 적은 수의 기독교인이 분포하고 있다. 성경은 신약(黑彝지계가 사용하고 있음)이 번역되었고, 1988년 중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출판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족은 인구 및 지계면에서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이 광범위하고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종교적으로 보면, 민간원시종교(자연숭배, 영혼숭배, 조상숭배)활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를 비롯하여 기타 다른 종교들이 이들의 사회 안에서 보편화되지 못하고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어 왔다. 기독교 역시 과거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으로 인해 현재 신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이족인구에 비하면 복음활동이 저조하고 미미한 상태이다. 추슝주(楚雄州)의 경우 마오족(苗族)과 더불어 복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부지역인 흥허주(紅河州)의 경우 원시종교숭배와 엄격한 종교정책으로 인해 복음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인정이 많고 손님 접대에 인색하지 않는 민족성을 고려한다면, 먼저 깊은 교제와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들을 연구하여 접근한다면 효과적인 선교사역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소망은 이족을 향한 보다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현재 이족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숨은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족지역을 방문하려면** \* 한국에서 항공으로 홍콩~선전(深圳)을 경유하면 경비가 저렴, 혹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를 경유 쿤밍(昆明)에 도착.

\* 추슝주(楚雄州) 이족지역으로 가려면 - 쿤밍에서 버스로 추슝주(-추슝(楚雄), 뤼펑(祿豐), 우딩(武定), 난화(南華), 위엔모우(元謀)에 도착(3~8시간 소요).

\* 흥허주(紅河州) 이족(彝族)지역으로 가려면 - 버스로 흥허주(-꺼지우(个舊), 카이위엔(開遠), 위엔양(元陽)에 도착(4~14시간 소요).

\* 옥계(玉溪) 이족지역으로 가려면 - 버스로 옥계지구(玉溪, 新平, 元江)에 도착(3~8시간 소요).

\* 쓰마오(思茅) 이족지역으로 가려면 - 버스로 思茅地區(景谷, 普洱, 江城)에 도착(8~16시간 소요).

\* 닝량(宁蒗) 이족지역으로 가려면 - 버스로 닝량(宁蒗)에 도착(24~28시간 소요).

**기도제목**

1. 이족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2. 이족을 향한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3. 성경번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4.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참고서적**

1. 彝族風俗志, 中央民族學院出版社
2. 彝族古代史研究, 云南民族出版社
3. 彝族-多元文化中的情韻, 云南教育出版社
4. 彝族建築文化深源, 云南人民出版社
5. 中國彝族通史綱要, 云南民族出版社
6. 楚雄彝族人口, 云南民族出版社
7. 云南少數民族風情錄, 廣東旅游出版社
8. 云南可愛的地方, 云南人民出版社
9. 中國少數民族宗教概覽, 中央民族出版社
10. 中國少數民族禁忌大觀, 廣西民族出版社
11. 中國少數民族語言使用情況, 中國藏學出版社
12. 中國民族統計年鑑, 民族出版社
13. 民族百科全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허중선/ 중국선교사

# 一百頂高帽子 (백 번의 아침)



- ① 어떤 선비가 관리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에 스승에게 고별인사를 하는데... 스승이 말하기를, "다른 지역에서 관리 노릇하기는 어려운 일이야. 너는 가는 곳마다 조심해야 한다."
- ② 제자가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백 개의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자를 하나씩 선물한다면 일이 훨씬 잘 풀릴 겁니다."
- ③ 스승이 말했다. "나는 줄곧 너희들에게 사람됨이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 ④ 제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선생님처럼 그렇게 정직한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 ⑤ 스승이 말했다. "그 말 참 이치에 맞구만. 이치에 맞아!"
- ⑥ 스승의 집을 나온 제자가 말했다. "이제 모자가 99개 남았구나."

\* '高帽子'는 '(잘 보이기 위한) 찬사'라는 의미이며, '戴高帽子'라고 하면 '추켜올리다', '아침하다', '비행기를 태우다'라는 의미가 된다.

“여성은 하늘의 절반을 떠받칠 수 있다(婦女能頂半邊天).”

이 말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마오쩌둥(毛澤東)이 한 것이다. 마오는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켜 주었다. 그는 “여성들은 집에서 나와 사회에서 일하라.”며 여성들을 격려했다. 남녀 모두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맹퇴치 운동을 벌였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경제 생산활동에 참가하였고,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중국 명절의 하나로 ‘3·8 국제부녀절’이 있는 것만 보아도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국제여성 투쟁기념일인데, 신중국 탄생(1949)

후 중국 정부는 이 기념일을 중국 여성의 명절로 삼았다. 이 날은 여성들에게 휴가를 주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사준다.

현재 중국 여성들은 국가 사무와 사회 사무의 관리와 감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각급 권력기관에서 선출되는 여성의 수는 많아지고 있다. 지난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자 중 국무원으로 우이(吳儀)라는 여성이 당선되었고, 이 대표대회에 적지 않은 여성 대표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과학, 기술, 군사 분야에 1/3 이상의 여성 전문가가 있다. 중국 여성의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 가정에서



## 하늘의 절반은 여성이다

석 은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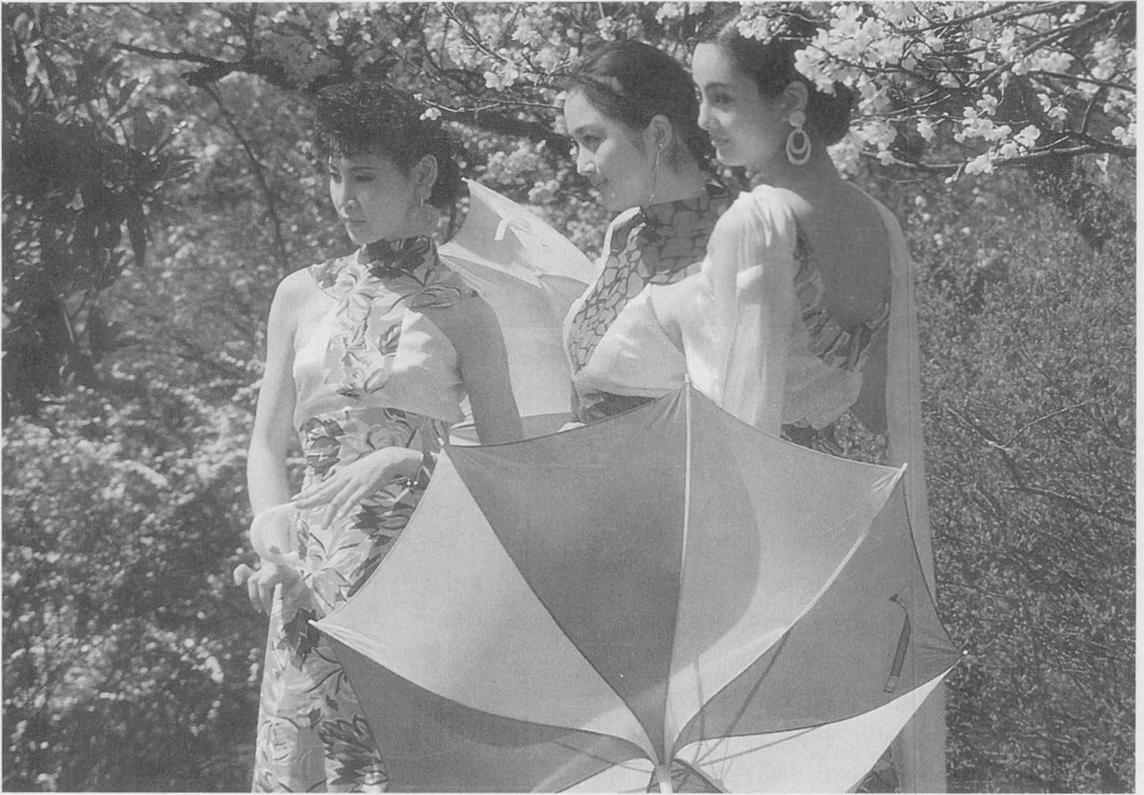
‘맞벌이’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가사 노동도 평등하게**

필자가 베이징에서 언어 연수를 하고 있을 때 중국 친구의 소개로 한 중국 여성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결혼해서 남편, 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하루 생활은 이렇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녀는 간단하게 출근 준비를 한 뒤, 상점에 가서 기름에 튀긴 밀가루 빵(油條:여우타오)과 콩을 갈아서 만든 음료(豆漿:도우장)를 사가지고 들어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아침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한 후 세 사람이 함께 집을 나선다. 그녀의 남편의 직장은 집에서 멀지 않으므로

자전거로 출근한다. 그녀의 직장은 비교적 멀리있어 직장 통근차를 타고 출근을 한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남편의 직장에서 멀지 않기에, 남편이 출근길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또 퇴근길에 들려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

저녁에 먼저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집 근처의 시장에서 저녁 찬거리를 준비해 온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고, 후라이팬에 잘 다듬은 채소와 돼지고기를 넣고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반찬을 만든다.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신문을 보거나 아이와 놀아주거나 그의 숙제를 도와준다. 아내가 돌아오면 남편은 상을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한다.



현재 중국여성들은 국가 사무와 사회 사무의 관리와 감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일찍 집에 돌아오는날은 어떻게 하느냐고 필자가 묻자, 그 때는 당연히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한다. 어느 편이든 먼저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녀의 남편에게 “혹시 이런 생활에 불만이 없느냐”고 묻자, 그 질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똑같이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고 있으니 집안 일도 마땅히 부부가 함께 해야지요.”

어느 공휴일 그녀는 나를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그날 역시 그녀와 나는 탁자를 마주하고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남편은 이미 준비해 놓은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 만두를 만들어 나를 대접했다. 손님이 오면 항상 남편이 대접하느냐고 묻자, 만두는

남편이 더 잘 만들기 때문에 만두로 손님을 대접할 때는 주로 남편이 준비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이 많이 바쁘거나 혹은 남편의 친구가 왔을 때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녀가 만두를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베이징에서 6개월 가량 중국인 집에 방을 한 칸 세어 살았을 때다. 그 집 역시 부부가 맞벌이를 하였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한 명 있었다. 그 집은 세 식구가 가사노동을 각각 분담하고 있었다.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것은 남편의 몫이고, 설거지는 딸의 몫이었다. 그리고 빨래를 하고 빨래를 걷는 일과 집안 청소는 부인의 몫이었다.

주인집 아저씨는 직접 만든 반찬을 종종 나에게 주기도 하셨다. 가까이에 살고 계신 장모님이 휴일에 가끔씩 방문하곤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부인은 자기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놓고, 남편이 혼자 부엌에 나가

밥과 반찬을 준비하여 장모님을 대접하였다. ‘아, 한국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사나운 아내, 순한 남편**

중국 여성들이 남녀평등 사상으로 지위가 높아지자 그들은 이제 더이상 남편에게 굽실거리지 않게 되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일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오히려 남편을 구타한다. 직장에서 여성 사원이 서슬 퍼렇게 남성 사원을 꾸짖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여성이 남성의 뺨을 때리는 것도 이제 더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아내들은 집에서 남편을 쥐고 흔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남편 역시 위풍 당당하게(?) 자신을 쥐고 흔드는 아내에게 저중으로써 자신이 저야 하는 가정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내에게 많은 것을 의지한다. 이런 가정에서 아내는 점점 ‘사나운 아내’로 변해간다. 베이징에서 내가 세 얻어 살던 아파트의 여주인도 이 사나운 아내 중 하나였다.

남편은 어느 회사의 직원이고, 아내는 모대학의 사무직원이었다. 이 아내는 비록 직장에서는 말단 사무직원이지만 집에서는 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다. 매달 월급이 나오면 남편은 고스란히 아내에게 바친다. 그러나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이 그녀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 세를 놓고 자신들은 친정집에 방 한 칸 얻어 살기로 결정하였다. 그녀의 결정에 그녀의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종’뿐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은 그녀의 직장인 모대학에서 분배해 준 것으로, 외국인에게 세를 놓을 수 없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 그 집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도 불안해 하는 남편의 의견을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당당하게 세를 놓았다. 베이징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부득불 이런 집이지만 얻을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친구가 소개해준 이 집을 먼저 유학과 있던 한국 여학생과 같이

얻게 되었다.

그녀의 집은 6층으로 된 아파트의 맨 위층인 6층에 있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헉헉거리며 올라다녀야 하는데도 값은 다른 집보다 싸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押金;야쩐)으로 세 달치의 방세를 요구했고, 방세 역시 여섯 달치를 먼저 내도록 요구했다. 게다가 냉장고와 TV를 빌려주면서 또 1년치 세를 달라고 했고(사실 그 물건을 옮겨놓을 장소가 없어서 못가져 가는 것이면서), 직장에서 일 년에 한 번 한꺼번에 정산한다는 전기세와 수도세를 그녀는 꼬박 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갔다. 중국 물가를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나중에는 냉장고 안의 맨 밑에 놓여있던 유리가 깨졌다고 벌금(罰款;과관)을 물라고 했다.

그녀의 사나움은 누구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표독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우리가 따지면 그녀는 서슬이 퍼렇게 눈에 독기를 띠고, 거친 말을 마구 퍼부었다. 순하다 순한 남편이 옆에서 있다가 우리 편을 들어 한 마디 거들면 그녀의 남편 역시 그 자리에서 묵사발이 된다. ‘아, 이 무기력한 중국 남편들을 누가 구해낼 것인가?’

나는 이럴 때마다 더이상 싸우기 싫어 이 아줌마의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이 사나운 아줌마를 돌려 보내고 싶어했다. 그런데 같이 살던 여학생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먼저 중국에 와 살면서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천성적으로 야무지기 때문인지 이 아줌마의 요구를 조목조목 따져 부당함을 설명한다. 이렇게 중국여성 대 한국여성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1년을 버티면서 훈련을 쌓은 다음, 약간은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혼 당하는 남편들**

1980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경제를 발전 선상에 올려 놓았다. 그러나 개혁개방으로 이루어진 성(性)의 개방은 혼전 임신, 혼외 관계, 계약결혼, 동성연애, 낙태 등의 급증을 가져왔고, 이혼율 역시 해마다



자신의 행복과 독립적 인격을 추구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혼 인구가 90년대에는 80만 쌍이었는데 96년에는 113만 쌍에 달했다. 또한 비록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 상태에 이른 인구가 96년에 무려 7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이혼 사건을 보면 여성 원고가 남성보다 많다는 것이다. 어떤 지방의 통계를 보면 여성이 이혼을 제기한 경우가 80~85%에 이른다.

내가 살던 아파트의 아래층에 한 한국 남학생이 방한 칸을 세 얻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른 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유를 묻자 그 집의 여주인이 남편의 별이 자신보다 좋지 못한 데다가 성격 역시 맞지 않아 갈등해오다가 드디어 다른 남자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혼당한 남편이 나갈 집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정부에서 직장을 통해 분배해 주는 집에서 살고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가정의 경우 부인의 직장에서 집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혼당한 남편은 나갈 집이 없었다. 결국 세들어 살던 한국 학생에게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집을 구해 나가라고 한 것이다. 그를 내보내고 전남편을 당분간 그 학생이 쓰던 방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뒷이야기는 듣지 못했지

만 그녀의 전남편은 뒷방(?) 신세가 되었을 것이고, 이 여주인은 한 집에서 현남편, 전남편과 같이 오손도손(?) 살았을 것이다.

중국 친구를 만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한국인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 집뿐만 아니라 이혼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가 결혼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해서 살 집을 분배해 주는데, 한 가정당 한 가구만 분배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둘 중 하나는 집을 나가야 한다.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분배받은 쪽이 그 집에 남게 된다. 떠나야 하는 어느 한 쪽이 당장 나가 거주할 집이 없으면 서로 합의하에 같이 산다. 그러나 이혼을 했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단칼에 무자르듯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한집에 살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라고 한다. 이것이 개혁개방 후 현재 사회주의 중국이 안고 있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정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해 주었다.

현재 중국도 돈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이 뺏한 월급에 내 집을 사기란 한국처럼 그리 쉽지 않은 듯하다.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개혁개방이 가져다 준 배금주의 사상,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인 가치관, 갑자기 불어닥친 자유, 성 개방 풍조가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행복과 독립적 인격을 추구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화목하지 못한 부부에게 참고 살아가라고 권유하는 사람은 없다.

한국 여성에 비해 월등하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지위가 높은 중국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에도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뿐만 아니라 중국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정 사역자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하고, 중국 가정회복을 위한 선교전략이 세워지고, 전해져서 중국 가정에도 속히 '작은 천국'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 主日崇拜聚會禱告(주일예배기도문)

Zhūrì chóngbài jùhuì dǎogào

慈愛的天父，我們感謝你。我們歡喜快樂地來到你的面前，因今天是主的聖日。

(Cí'ài de Tiānfù, Wǒmen gǎnxiè nǐ. Wǒmen huānxǐ kuàilè de lái dào nǐ de miànqián, yīn jīntiān shì zhǔ de Shèngrì.)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의 앞에 왔습니다.

我們用心靈和誠實來敬拜你，因你是偉大的神，是我們的好牧者。

(Wǒmen yòng xīnlíng hé chéngshí lái jìngbài nǐ, yīn nǐ shì wěidà de Shén, shì wǒmen de hǎo mùzhě.)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경배함은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我們忙碌了一個星期，今天早上求你賜下真正的平安，讓我們獲得新的力量。

(Wǒmen mánglù le yíge xīngqī. jīntiān zǎoshang qiú nǐ cìxià zhēnzhèng de píng'ān, ràng wǒmen huòdé xīn de lìliang.)

우리들은 일주일을 바빠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 주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셔서 우리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主啊！求你讓今天證道者被聖靈充滿，把你活潑的話語傳講給我們。

(Zhǔ a, qiú nǐ ràng jīntiān zhèngdào zhě bèi Shènglíng chōngmǎn, bǎ nǐ huópō de huà yǔ chuánjiǎng gěi wǒmen.)

주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분에게 성령충만함을 주사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願我們的敬拜能蒙你的悅納，使我們更加愛你，更加親近你。

(Yuàn wǒmen de jìngbài néng mèng nǐ de yuè nà, shǐ wǒmen gèngjiā ài nǐ, gèngjiā qīnjìn n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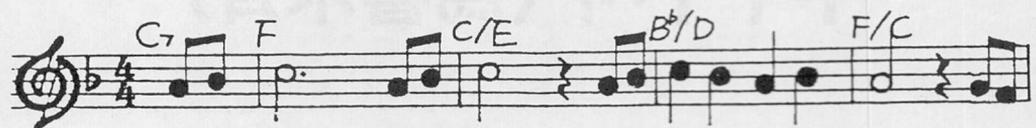
우리들의 경배가 주께 열납되며,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당신을 사랑하며 더욱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把一切的榮耀都歸給你。奉耶穌的名禱告，阿們。

(Bǎ yíqiè de róngyào dōu guīgěi nǐ. Fèng Yēsū de míng dǎogào, āmen.)

모든 영광을 당신께 돌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惟有你 주님만 사랑하리



惟 有 你,      惟 有 你,      惟 有 你 是 我 所 愛。 惟 有  
Wéiyǒu nǐ,      wéiyǒu nǐ,      wéiyǒu nǐ shì wǒ suǒ ài. Wéiyǒu



你,      哦, 主 我 王, 我 願 更 深 認 識 你。 我 全  
nǐ,      ò, Zhǔ wǒ wáng, wǒ yuàngèng shēn rènshi nǐ. Wǒ quán



心,      我 全 意      都 向 你 深 深 一 敬 拜。  
xīn,      wǒ quán yì      dōu xiàng nǐ shēnshēn jìng bài.



聖 潔,      聖 潔,      尊 貴, 尊 貴 之 王,  
Shèngjié,      shèngjié,      zūn guì, zūnguì zhī wáng,



我 愛 你 耶 穌。  
wǒ ài nǐ Yē sū.

## 우리말 가사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 우루무치 (烏魯木齊)

유재승

## 우루무치는

위구르어로 '아름다운 목장'이란 뜻이며, 텐산(天山)의 자락에 위치한 해발 924m의 높이에 있는 도시로 중국 최대의 자치구인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구도(區都)이다. 이곳의 최대 명소는 알프스의 분위기를 풍기는 텐산이다.

## 우루무치로 가는길

### ▶비행기

시내에서 17km 떨어져 있는 디우오푸 공항으로 운행되는 항공편이 중국 국내의 주요도시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다. 베이징(北京)에서 3시간 10분(매일2~5편) 시안(西安)에서 1시간 50분(매일2~3편), 상하이(上海)에서 4시간 15분(매일1~2편) 청두(成都)에서 3시간 20분(매일1~2편) 소요된다.

### ▶열차

우루무치 역은 중국 국내의 열차역 중 가장 서쪽끝에 위치한 곳으로 종착역인 셈이다. 베이징에서는 정저우(鄭州)와 시안을 경유하여 약 3박4일(68시간 소요) 정도 소요되는 열차편이 있다. 상하이에서는 난징(南京), 정저우, 시안을 경유하여 오는 열차편이 있는데, 이 열차편은 중국 내에서 가장 긴 노선으로 4,079km이며,

74시간이 소요된다. 그 밖에 중국을 넘어서 알마타까지 실크로드 간을 운행하는 국제 열차편도 있다.

### ▶버스

우루무치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인 까닭에 장거리 버스 터미널에는 실크로드상의 주요한 도시로 연결되는 버스편이 많다. 투루판에서는 4시간이 소요되며 1시간마다 출발한다. 이 노선은 중간에 해발 1,280m가 되는 텐산산맥의 한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버스가 지나면서 보이는 풍경은 여행이 주는 또하나의 매력이 된다. 카슈가르에서는 1,471km로 약 4일이 걸린다.

### ▶우루무치의 여행계획

우루무치 시내를 서역 최대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고층 건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많은 까닭은 실크로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꽤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위구르족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들 특유의 분위기를 풍겨서 이슬람 문화의 본고장임을 실감할 수 있다. 시내의 볼거리는 하루 정도면 모두 돌아볼 수 있지만, 좀더 자세히 위구르족 문화에 접해보고 싶다면 시간을 좀더 투자해야 한다. 경치가 시원해, 마치 알프스의 한 산록에 와 있는 듯한 텐산산맥은 여행자들의 시선을 끈다. 난산 목장이나, 텐산 천지 등을 돌아보는 데에 각각 1일씩은 투자해야



나 찾집 등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박물관

1958년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신장자치구 내에서 출토된 여러가지 문물들을 수장, 전시하고 있다. 이슬람 양식의 모스크 건축외관이 인상적이며, 약 2000점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동서 교류의 한 증거로 페르시아나 로마의 옛날 화폐 등도 있다. 특히 3,200여 년이나 되었다는 여자 미이라를 비롯하여 자치구 내의 12개 소수민족들의 풍속을 알수 있는 진열실 등이 볼만하다.

한다.

▶우루무치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조언

이곳에는 위구르족들이 지역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주 드물고 일반적으로 위구르어를 사용한다. 간단한 위구르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여행을 하면서 익히기란 좀 어렵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간단한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 예를 들어 주소라는 위구르어를 몰라도 어드레스(Address)라고 말하면 알아 듣는다.

우루무치의 관광명소

▶홍산(紅山)

우루무치의 중심부에 위치한 산으로, 크고 작은 암벽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암벽들의 표면이 붉은 것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산 위에는 1788년에 만들어진 9층의 진용탑이 서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면 시내를 넓게 바라볼 수 있다.

이 산 기슭에는 인민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동물원이

▶텐산천지(天山天池)

텐산산맥의 두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보고다(5,445m) 봉의 두쪽에 위치한 호수이다. 해발 1,910m의 질푸른 빛을 발하는 천지는 백두산 천지보다 약간 작은 3km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호수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주변에는 천막집인 파오가 부락을 이루고 있다. 천지 주변으로 높은 봉우리들이 마치 천지를 호위하듯 서 있는데, 이 봉우리들은 한 여름에도 머리에 흰눈을 이고 있다. 잔잔한 호수면에 주위의 침엽수와 흰 보고다봉의 모습이 비치는 광경은 알프스의 정취나 로키산맥 주변의 호수로 어우러지는 광경을 연상케 한다. 천지 밑으로 흘러가는 물은 조금 아래에서 소천지가 되는데, 동소천지와 서소천지가 있다.

우루무치에서 동쪽으로 약 110km떨어져 있는 천지 주변은 우루무치에서 오자면 넓게 펼쳐진 사막을 달리다 불현듯 나타나는 푸른 오아시스이다. 역시 텐산산맥 자락의 운생림으로 둘러싸인 더없는 피서지이다.

▶난산목장(南山牧場)

텐산산맥 북쪽자락에 펼쳐진 목장지대로 우루무치에서 약7km 떨어진 곳에 있다. 주로 카자흐족들이 모여

## 중국단기선교 여행코스(8)

살고 있는데, 특히 그들이 사는 집인 파오가 푸른 산록의 목초지로 점점이 흩어져 있는 풍경이 시원하게 여행자의 눈을 만족시킨다. 이 파오에서는 목을 수도 있고 말을 타는 재미도 있는 곳, 무엇보다도 카자흐족들의 생활상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중국여행의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파란 하늘과 어울리는 시원한 경치 속에 검은 피부의 카자흐족 주민들의 전통적인 모습은 지구촌 문화의 다양성을 실감케 한다. 텐산 천지의 경치를 즐기는 관광코스라면 난산목장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접할수 있는 관광코스이다.



### ▶우루무치의 숙박

#### 산장가 일대 주점(Holiday Inn Urungi)

1992년에 오픈한 호텔로, 인민공원과 자유시장과도 가까워 편리하다. 가라오케, 디스코텍, 사우나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여러가지 음식점들이 있다 (TEL 0991-218788).

#### 쿤룬빈관(KUN LUN HOTEL)

우루무치 최초의 외국인 전용호텔로 비교적 근대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다. 고층 건물로 구관과 신관이 있다. 호텔 안의 음식점에서는 중식을 비롯하여 양식, 이슬람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TEL 0991-440411).

#### 화교 빈관

1956년 오픈한 호텔이지만 최근 들어선 신관은 고층의 근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관에 중국여행사가 들어서 있고, 여러가지 음식점들이 있다 (TEL 0991-260845).

#### 신장 우의 빈관(Friendship Guest HOTEL)

1982년에 오픈한 호텔로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녹지로 이루어진 넓은 대지에 여러 건물이 들

어서 있다. 열차역 남동쪽으로 7km 정도 떨어져 있다 (TEL 0991-264220).

#### 홍산 빈관(Hongshan HOTEL)

1975년에 오픈 시내의 중심에 위치하여 여행자에게 편리하고, 특히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TEL 0991-224761).

#### 환구대주점(World wide HOTEL)

1992년에 오픈한 우루무치에서 가장 근대적인 시설을 자랑한다. 24층의 고층건물로 라운지에는 시내를 넓게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좋은 음식점이 있다 (TEL 0991-336400).

우루무치 시내의 호텔외에도 텐산의 천지나 난산목장을 관광하면서 그곳의 특색인 파오에서도 숙박할 수 있다. 호텔만큼 쾌적하지는 않지만 숙박비는 저렴하다.

유재승/ 배재대학 교수, 천지항공여행사 부사장

# 춤으로 표현하는 중국인의 정서

이 민 선



**춤**은 언어와 같다고 한다. 각각의 언어가 모두 독특한 뜻과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춤을 추는 사람은 자신의 춤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언제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였을까? 중국 서부 칭하이(青海)성 다통(大通)현에서 춤추는 모양이 새겨진 그릇이 출토된 것을 보면, 아마도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춤을 춘 것 같다. 또한 일찍이 기원전 4천년경의 신석기 시대 앙소문화(仰韶文化) 시기에 살던 선조들은 이미 악기반주가 있는 조화된 동작을 표현한 군무(群舞)가 있었다고 한다.

## 전통적인 춤과 노래

중국 전통 무용의 형식은 기원전 일천년경 상주(商周) 시기에 문무(文舞)와 무무(武舞) 두 갈래로 나뉜다. 문무(文舞)에서의 무용수는 손에 깃털을 들고, 고기를 낚

아올린 이후에 수확물을 분배하는 정경을 상징하였으나, 이후에는 제사 등 종교 의식적인 춤으로 점차 변화되어 갔다.

한편, 대규모 군집무인 무무(武舞)에서는 춤추는 사람이 병기를 손에 잡고 전진과 후퇴하는 전장(戰場)에서의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차츰 변화하여 중국인은 손을 움직이고 발을 흔드는 동작에 따라 천지귀신을 경배하고, 서로 소리높여 기쁨을 드러내기도 하며, 현실생활의 한 부분을 연출하였다.

중국 근대 회극이 나타나기 전, 한나라 때 '악부'를 설치한 후부터 계획적으로 민간 가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3세기에 이르러 중국 북방의 흉노, 선비, 시창족의 통치가 비롯되자 중앙아시아 일대 각 민족무용예술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어 원래 한족의 춤과 융합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줄곧 당대까지 지속되었다. 당대의 정치적 안정으로 인해 무용의 표현예술도 마침내 휘황찬란한 풍조를 이루었다. 당대의 궁정인 리원(梨園), 교방



중국인들은 음력설이 되면 묘회(廟會) 앞에 있는 농가에 모여 사자춤을 춘다.  
(사진은 광둥(廣東)성의 사자춤)

(敎坊, 태상사(太常寺) 등이 설립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무용가를 집합시켜서 기세가 광대하고 호화롭기가 비길 데 없는 “십부악(十部樂)”을 연출했다. 그 당시, 중앙아시아 각 민족의 문화 예술이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였던 영향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고려, 신장, 인도, 등의 민속무용이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고도로 복잡한 몸체 동작의 기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더욱 색채가 선명한 복장과 도구를 사용한 데다, 시가(詩歌) 및 극적 정서와 음악이 배합되어 완성된 형식과 내용이 풍부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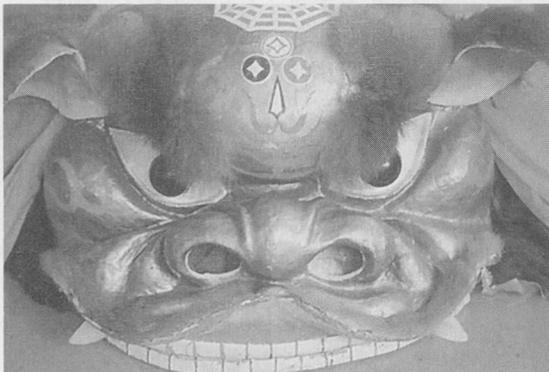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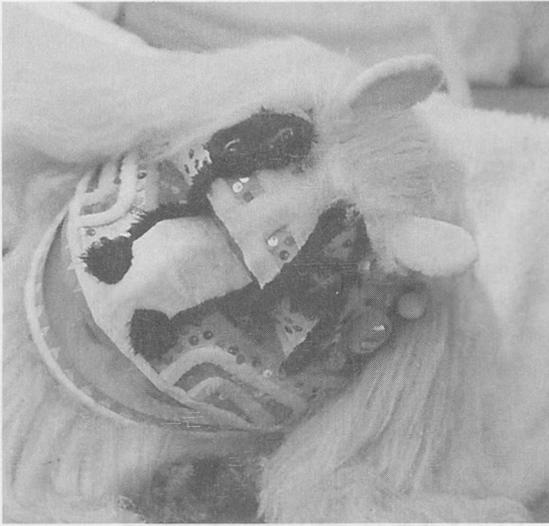
### 중국 소수민족들의 춤

중국 각 변방의 소수민족 또는 산 속에 사는 원주민들도 모두 그들만의 민속 무용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에게는 전설 속의 인물을 추모하며 기리는 절기와 의식에 나타난 춤과 노래를 하나씩 다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서남부 먀오(苗)족은 노래와 춤을 겨루

는 일이 활발하였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산지족들도 영향을 받았으며,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하여 단결화합하는 모양으로 풍년 제단형태를 갖춘 집단 무용을 창조하였다. 민속 무용은 소수민족의 생활과 풍속 습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무용 예술의 가치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또하나의 진귀한 문화 유산의 가치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하니족의 모차차(莫搓搓)

중국인들의 장례습속에도 춤이 등장한다. 예를들어 윈난의 하니족에서는 그 촌락의 사람들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상가에 참석한다. 특히 노인이 죽었을 경우, 모차차(莫搓搓)라는 큰 장례를 치르게 된다. 죽은 노인을 위해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송장주가(送葬酒歌)를 부르며 상가 뜰 앞에 모여 모차차 춤을 춘다. 밤새도록 춤을 추고 새벽에야 비로소 관을 메고 나가 촌 밖에 안장한다. 이 기회에 젊은 청년 남녀들은 우정을 나누



사자춤을 출 때 지역마다 사자의 모양이 다르다.  
(사진은 위로부터 베이징(北京) 사자, 광둥(廣東) 사자,  
푸젠(福建) 사자의 모습).

며 상대를 고르기도 한다.

### 사자춤(獅舞)

중국인들은 또한 음력설이 되면 묘회(廟會) 앞에 부근 농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자춤을 춘다. 사자를 볼 수 없는 중국에서 어떻게 사자춤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난다.

그것은 아마도 사자의 원산지인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유입된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진짜 사자를 볼 수 있는 중국인들은 더욱 많지 않은데, 어떻게 사자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본뜨는 것이다. 장강(長江)유역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데, 각각 모방 대상이 다르다. 북쪽 지역에서는 개를 모방하였고, 남쪽에서는 고양이를 모방하였다. 이후 북쪽에서 발달해온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이징의 사자춤인데, 베이징의 사자춤에 등장하는 사자는 털이 길고, 다리가 짧으며, 체격이 작은 편이다. 이것은 무사활동을 상징하여 일찍이 백수의 왕(百獸之王)으로 불리는 사자의 위엄을 빌어 모든 사악(邪惡)한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특별한 날도 아닌데, 큰 길에서나 작은 길 한켠에서 우루루 모여 음악에 맞춰 마을 남녀가 서로 어우러져 “쿵작 쿵작” 발을 맞추며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대만에서도 이른 아침 공원이나 마을의 빈 들에서 둘씩 셋씩 춤을 추는 중국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그들은 중국인들의 뿌리깊은 낭만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언제나 생활 속에서 춤을 즐길 줄 아는 중국인들은, 그들만의 넉넉하고 풍부한 정서와 그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고 있는 멋진 사람들이다.

### 참고자료

「中國民俗學의 理解」, 陶立璠 著, 집문당

「中華傳統文化在臺灣」, 光華書報雜誌社

「中國人的「註冊商標(上)」, 光華書報雜誌社 編著

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 신간도서

## 중국,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안경준 지음 · 유소영 옮김, 282쪽 · 8,500원 · 여백출판사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할 만큼 커지고 두터워졌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실무적 시각과 차원에서 새롭게 장기적인 방향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우리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일찍, 그리고 오랜 동안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해온 필자도 중국의 사정과 중국 사람의 '작법(作法: 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상법(想法: 생각하는 방법)'은, 알면 알수록 머리가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이 책은 쓰여졌고, 내용의 구성도 우리 업계 종사자들이 참고하기 좋게 전, 후반으로 나누었다. 전반부의 서두에는 우리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왜 새로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관한 견해를 펴려하고 있다. 중국과의 실제 교역 1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업계가 무역거래나 합작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후반부에는 중국과의 교역 추진시, 우리 업계가 이것만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중국 경제의 현안 문제와 사회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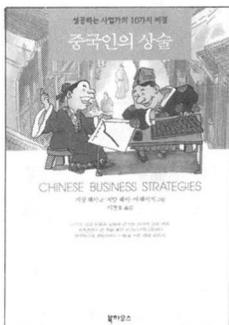
이 책은 중국과의 교역전반에 걸친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임을 인식하여 앞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우리 나라 경제계, 금융계, 기업계 등 각 부문의 종사자들 및 중국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국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꼭 읽어볼 가치가 있다.



## 중국인의 상술

지암 웨이 글 · 마 웨이치 그림, 이창호 옮김 · 북하우스, 199쪽 · 5,000원

'성공하는 사업가의 10가지 비결'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상술에 뛰어난 중국인들의 지혜와 처세를 담은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재미있는 만화로 엮어낸 것으로,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우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국인들의 뛰어난 장사수단은 중국의 이름있는 약방, 상점 등 중국인들이 이미 수백 년 동안에 걸친 성공사례이자 경영 철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을 적절한 호재(好材)로 바꾸는 중국인들의 전화위복의 성공 비결은, 그들의 경제적인 안목과 세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쉽게 대처하는 현실성이 강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최준식 지음 · 312쪽 · 8,000원 · (주) 사계절출판사

이 책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가 쓴 것으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문화 이론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이다.



한국인은 접촉 사고가 나면 왜 목소리부터 높이는가?  
한국인은 왜 외국인에게 배타적일까?  
한국인은 왜 공중도덕을 못 지킬까?

3김 중심의 정치 관행은 가족 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조선 시대 유교가 현재 한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한국 도자기들은 왜 마지막 터치가 매끄럽지 못한가?

자문화 중심주의나 자문화 열등주의를 극복하고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에게 이 책은 도움을 줄 것이다.

您這是兩塊, 找你五分。 / Nín zhè shì liǎng kuài, zhǎo nǐ wǔ fēn.



직은 짐  
흔

#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 종교 · 선교

### 6개 교회 연합목회, 중국에 선교센터 “결실”

한 지역의 여섯 개척교회가 교파를 초월한 공동목회를 하며 중국에 「연합선교센터」를 건립하는 등 「화합목회」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여섯교회는 「글로리아선교회」를 만들어 선교헌금을 모아 중국에 선교센터를 건립했다.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신도시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화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 98. 4. 14)

### 한민족 화합과 새로운 선교의 장 열어

한국비디오선교회(회장: 김한옥) 부설 한민족문화체육교류협의회(회장: 김경원)는 한국과 중국 동포초등학교 친선 축구 경기를 통해 한민족 화합과 새로운 선교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공보 98. 5. 2)

### 교회 내에서도 현금형령 등 빈발

중국이 개방 분위기를 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으나, 이에 수반해서 각종 타락 현상들이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교회가 타락 방지를 위해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

나고 있다.  
(기독교 98. 4. 26)

## 정치 · 군사 · 외교

### 중국 “제5세대” 뉴리더 떠오른다

중국 정치권에 50년대 전후 출생한 40대, 이른바 ‘제5세대’가 떠오르고 있다. ‘제5세대’는 故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이 제1세대, 故덩샤오핑(鄧小平) 제2세대, 또 현재의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제3세대에 이어, 21세기 최고 지도부를 구성할, 후진타오(胡錦濤, 56) 국가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57), 원자바오(溫家寶, 56) 두 부총리 등 제4세대 테크노크라트들의 아래 세대로 현재 黨·政·軍(당·정·군)의 실무 요직에서 맹활약중이다. (문화 98. 4. 6)

### 중반체제 인사 왕단 하버드대서 수학

지난 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중국의 반체제 운동가 왕단(29)이 곧 전통의 미 하버드대학에 다니게 될 전망이다. (조선 98. 5. 25)

### “민주화실험증” 지도부가 앞장 경제개혁 주장

중국에서 요즘 민주주의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와 ‘민권’ 등 생소하던 용어가 유행어가 되고, 판매금지 대상이던 반공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저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천안문사태로 잠잠했던 민주화 바람은 아래가 아닌

위에서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이인삼각’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만든 봄바람이라는 것이다. (조선 98. 4. 12)

### 중국 일국양제 대체 새원칙 모색

베이징(北京) 당국은 지난 3년간 지속된 대만과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금까지 고수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2체제) 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원칙을 모색하고 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한겨레 98. 4. 13)

### 위구르 독립운동단체, 폭력투쟁 강화키로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의 분리 독립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가 오랜 폭력투쟁 끝에 영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데 고무돼 폭력투쟁 노선을 강화키로 했다고 홍콩의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위구르족 분리독립주의자들은 '90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국들로 망명, 폭력투쟁 조직을 결성하고 자치구와 베이징 등에서 폭탄테러 등을 일으켜 관심을 끌어들였다. (동아 98. 4. 14)

### 중국 7대 군구제를 5대 전구제로 개편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대전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군벌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진적으로 지역방어 중심 개념인 현 7대 군구를 폐지하고 전략전술 중심의 개념을 가진 5대 전구체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조선 98. 4. 15)

### 인도망명 티베트인 6명 36일째 단식농성

중국의 티베트 강압통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망명지인 인도에서 36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티베트인 6명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티베트 저항단체 「티베트 청년회의」가 후원한 이번 단식 농성은 지난 48년간 계속된 중국의 강압통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내 10만 티베트인 망명자사회의 침체된 독립운동에 열기를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인도에서 벌어진 對중국 항의 운동 가운데 가장 장기간이며 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겨레 98. 4. 15)

你是不是算錯了? 請再算一遍。/Ni shi bushi suan cuo le? qing zai suan yi bian.  
(니 스부스 수안 추오 러? 칭 짜이 수안 이비엔.)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 대만, 핵 폐기를 러시아 이전 추진

대만 당국은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러시아로 보내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홍콩의 동방일보가 보도했다.

(국민 98. 5. 2)

## 중국 “美-日방위지침 중국주권 침해”

츠하오옌(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은 3일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에게 “최근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대만 해협까지를 작전지역에 포함한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98. 5. 4)

## ‘주통지 개혁선봉대’ 특별감독관 역할 관심

3년내 국유기업 개혁 완수를 공약한 중국의 주룽지(朱鎔基)총리가 개혁의 선봉대로 ‘특별감독관’을 조직, 눈길을 끌고 있다. 특별감독관은 정부가 예전처럼 국유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대신 대주주자격으로 고위공직자를 파견, 기업의 재무상황 실적과 간부의 업무성적을 국무원에 보고토록 하였다.

(국민 98. 5. 13)

## 한·중·일, 장마 공동예보키로

엘니뇨의 여파로 동북아 일대가 기상이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올 장마에 대한 공동예보를 내기로 합의하고 ‘3개국 장기예보 전문가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 98. 5. 14)

## 인도화교, 30만 명 국외 탈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지금까지 약 30만 명의 중국계 주민들이 국외로 탈출했다고 더 교토(共同)통신이 홍콩의 명보(明報)를 인용, 보도했다.

(문화 98. 5. 15)

## 중국, 인도 핵실험관련 성명 발표

중국인 인도의 잇단 핵실험과 관련, 외교부성명을 통해 “중국은 인도가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데 놀랐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공격했다.

(문화 98. 5. 15)

## 대만 의회대표단, 투자협상차 방중

야당인 신당(新黨)의 리칭화 의원을 대표로 하는 대만 의회대표단이 대 중국

투자보장 문제를 중국 당국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의회대표단이 중국의 공식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은 대만 투자문제를 다루는 10여개 부처 당국자들과의 면담도 추진했다.

(국민 98. 5. 16)

## 세계 공산당대회 개막

중국, 쿠바에서 이스라엘, 미국에 이르는 전세계 50개국 공산당 대표들이 그리스에서 회동, 공산주의 이념 신장을 위한 새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 98. 5. 21)

## 한-중의회 농업문제 협의기구 공동설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 확대 및 대북 식량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중국 의회 농업문제 협의기구’가 발족될 전망이다. 이 기구에서는 양국 농산물 교역확대 및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확대방안과 중국 농수산물의 밀수확대 방지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98. 5. 22)

## 홍콩지역구 선거 민주제 압승, 입법의회 친중국계 장악

중국 귀속후 처음으로 실시된 홍콩특별행정구(SAR)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반중국성향민주계가 선전했으나, 초대 입법회는 친중 보수세력이 장악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98. 5. 25)

## 홍콩 리주밍주석 “화려한 복귀”

지난해 7월1일 중국귀속전 홍콩 최대 정당으로 군림했던 민주당의 리주밍(李柱銘·59)주석이 24일 반환 후 첫 입법회 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했다. 리주석은 승리 직후 “다음 입법회 선거의 완전 직선투표와 선거를 통한 행정수반 선출 등 홍콩의 민주제 확립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98. 5. 26)

## 경제

## 중국, 5백원(元)짜리 고액권 지폐 연내 발행

중국에서 5백위엔(元, 환화 8만원 상당)짜리 고액권이 올해내에 첫 선을 보인다고 홍콩의 성도일보(星島日報)가 보도

했다. 중국은 지난 87년 4번째의 신종 화폐 발행때 50위엔짜리와 1백위엔짜리는 처음으로 발행했으나 5백위엔짜리 고액권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 98. 4. 9)

## 중국 GDP 세계에서 가장 높은 8.9% 성장 이룩

중국 경제는 두자리 수의 급성장을 3년간이나 지속한 뒤인 96~97년에 연착륙(안정기 이행)에 성공했다고 신화통신이 아·태지역 유엔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겨레 98. 4. 9)

## 중국 ‘피라미드 사기’ 극성

피라미드식 불법 다단계 판매가 중국에 상륙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순진한 농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공인일보(工人日報)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농민 12만여 명이 대만계 자회사사 운영 하는 피라미드 업체에 돈을 날렸으며, 현재 2만여 명이 우한(武漢)에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98. 4. 13)

## 중국 내수진작위해 기간산업 지출 확대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내수진작을 위해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요진작을 위해 농업, 임업, 물공급, 철도, 고속도로, 통신, 환경보호, 기술 향상, 주택 등에 대한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 98. 4. 14)

## 중국 수출전선 다시 쾌청

남미-아프리카로 눈돌려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으로 년초크게 위축됐던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중국은 대아시아수출이 타격을 받자 미국 등 선진국과 남미,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을 강화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흑자가 급증, 미 상무부가 이를 경고하고 나서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조선 98. 4. 15)

## IBM 중 ‘E-비즈니스’망 구축

IBM은 중국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차이나 텔레콤(중국전신)과 체결했다. IBM은 이로써 중국에서 ‘E-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첫

해외기업이 됐다.  
(조선 98. 4. 15)

**중국 PC시장, 21세기 초 세계 제2위**  
중국을 오는 21세기 초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개인용 컴퓨터(PC)시장이 될 것이라고 국제컴퓨터칩 공급회사인 인텔사가 전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서울 98. 4. 16)

**中-美 다단계판매 갈등**  
중국 정부의 다단계판매 금지조치가 6월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공식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관계에 새로운 돌출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정부는 사회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모든 종류의 다단계판매를 내년부터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20억달러 규모의 중국 다단계판매 시장의 종말에 직면한 암웨이 등 미국 다단계판매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 98. 4. 25)

**중시장개방 안하면 WTO가입에 반대-美재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려면 공업제품과 농산물, 서비스분야에 대한 의미있는 시장개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 98. 4. 30)

**중국서도 '다단계금지' 항의 폭동사태**  
중국정부의 다단계 판매 불법화에 항의, 폭동이 발생하는 등 중국에서 다단계판매 금지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다단계 판매금지령이 발표된 이후 후난(湖南)성 장자제와 형양(衡陽), 상하이(上海)와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폭동으로 변질, 약1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국민 98. 5. 1)

**中, 美에 경제제재 전면해제 강력촉구**  
중국을 30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 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부과된 모든 제재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티베트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등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국민 98. 5. 1)

**中, 1/4분기 외국인 신규투자 10.1% 증가**



중국의 올 1/4분기 외국인 신규투자자 아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비즈니스 위클리를 통해 보도했다.  
(문화 98. 5. 4)

**中, 4대은행 여신정책 정부간섭 年内 벗어나**  
중국의 4대 국유 시중은행들은 금년말까지 여신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비즈니스 위클리 보도했다.  
(문화 98. 5. 4)

**중국, 2010년 세계최대 전자정보시장화**  
중국은 2010년쯤이면 세계 최대의 전자 정보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보도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은 90년 들어 신속한 발전을 보여 연간 성장률이 27% 안팎에 이르렀으며 지난해의 전자정보산업 총생산액은 3천8백억위안으로 세계 제7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갈 경우 세계 최대의 전자정보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98. 5. 6)

**중국, 국영기업 매각 첫조치**  
중국은 국영기업의 첫 매각조치로 헤이룽장(黑龍江)성의 1천개 중소기업을 민영화할 것이라고 경제소식지가 보도했다.  
(문화 98. 5. 6)

**중국, 10년내 亞최대경제국 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으로 부상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아시아 기업인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밝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중국이 10년 안에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 98. 5. 7)

**중국 '창업비람', 작년 하루 평균 4,419개 생겨**  
중국의 개인 기업들이 지난 2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 정책이 본래에도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존재조차 미미했던 개인기업들이 이제 국유기업이나 공기업을 본격적으로 대체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 98. 5. 7)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의 11.4%보다 훨씬 낮아진 7.9%에 그쳤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혔다. 이같은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는 중국 정부의 경제구조조정으로 대량부도사태가 유발돼 국내 수요와 수출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98. 5. 12)

**중국 빈부격차 심화**  
중국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부유한 계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약 4배의 부를 향유하고 있다고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국가통계국(SSB)의 한 연구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조선 98. 5. 24)



**중국 부유층 증가 대비 상속세부과 검토**  
 중국은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의 추진 확대에 따른 부유층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에는 개인재산 80만위엔(元·약1억3천5백만원) 이상의 가구가 전 인구의 약1%인 1천2백만 여명, 연 수입 5만위엔이 넘는 인구가 전체의 2.3%인 3천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화 98. 5. 25)

**사회**

**중국, 탈세와의 전쟁 신고센터 설치등 총력**  
 중국 세무총국 감사국은 전국 각급 세무국에 '탈세사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탈세법 적발에 나섰다. 중국은 최근 몇년 사이 공유경제에서 사영경제로 급격히 옮겨가면서, 탈세의 형태도 종전보다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조선 98. 4. 2)

**홍콩법원, 홍콩거주 중국 본토 어린이 추방 명령**  
 홍콩 항소법원은 홍콩반환 이후 불법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건너온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 중국 복귀를 명령했다. 중국 당국은 본토 어린이의 홍콩

입국 허가를 하루 1백5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부모가 홍콩에 살고 있는 본토 어린이들을 모두 처리하는데는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98. 4. 3)

**베이징 韓人타운 돌연 폐쇄나서**  
 중국이 대학 주변 정화를 명분으로 베이징의 한인 타운인 하이톈취(海淀區)의 우다오커우(五道口)거리에 대한 일부 폐쇄에 나섰다. 그것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런 단속을 강행, 대부분 영세한 한인 상인들의 생존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문화 98. 4. 6)

**베이징대(北京大學) 100돌행사 떠들썩**  
 중국 명문 베이징대가 4일 개교 100돌을 맞아 서방 유수대학과 다름없이 떠들썩하게 기념행사를 치렀다. 이날밤 1만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교정에서 열린 축제에는 중국의 유명 대중가수와 홍콩의 팝스타를 망라한 1300명의 아티스트들이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러시아에서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 온 학생들은 팝송과 춤을 선보였고, 청동종의 타종을 시작으로 교수와 학생, 동문들은 함께 파티에 뛰어들었다.(한겨레 98. 5. 6)

**중국 실업문제 “폭발 일보전”, 국영기업 40% 파산**  
 중국의 민중화 노동운동가인 한동광은 중국이 엄청난 실업문제에 의해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텐안먼(천안문) 시위로 수감됐다가 국외추방된 한은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와 회견에서 '40%가 파산한 국영기업 부문에서만 최소한 5천6백만명이 해고될 예정이거나 이미 해고됐다'고 밝히고, '이밖에 1억명이나 되는 실업자가 농촌을 떠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전국을 떠돌고있다'고 밝혔다.(조선 98. 4. 7)

**황해는 죽은 바다, 중국의 거대한 폐수처리장**  
 중국으로부터 쏟아지는 공업폐수와 하수, 농약과 화학비료 잔류물 등으로 황해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중국 근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적조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근해의 어종과 어획량이 격감하고 있다.(조선 98. 4. 8)

**중국 공무원, 국민 34명에 1명 꼴**  
 중국은 한 왕조 이후 관료의 수가 계속 불어나 현재 공무원의 수가 국민 34명당 1명 꼴에 이르고 있다고 베이징 청년보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 주룽지 중국 총리는 정부 기구 축소와 함께 앞으로 3년 이내에 공무원 수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한국 98. 4. 8)

**중국, 탄광 폭발사고 잇따라, 3건 발생 82명 사망**  
 중국의 두번째 석탄 생산지인 중부 허난(河南)성에서 1주일간에 걸쳐 3건의 탄광 폭발사고가 발생, 82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동아 98. 4. 9)

**‘조선족 발전방략 연구’ 조선족 존속위해 ‘집거지’ 강화 절실**  
 중국내 2백만 조선족의 수난사와 현재 상황, 미래 발전방향 등을 담은 책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 조선족 발전방략 연구'가 중국 라오닝민족출판사에서 나왔다.(조선 98. 4. 12)

## 대만 '갱들의 전쟁' 예고, 최대조직 두목장남 피살

타이완 최대의 갱조직 '죽연방' 두목의 장남을 라이벌 갱조직이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과거 양대 폭력조직의 관계로 볼때 조만간 유혈보복극의 회오리가 타이완 전역에 불어닥칠 것으로 경찰은 우려하고 있다. (조선 98. 4. 13)

## 타이완, WHO 가입 추진

타이완은 국제기구 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외교부는 "우리는 빈국들의 보건,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현금과 인력등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하고 바티칸, 적십자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같은 "특별 국가가짓 기구"에 주어진 것과 같은 옵서버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 98. 4. 15)

## 세계도처 기상이변 속출...중 강풍-러 폭설 등 피해 잇따라

중국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4월 중순에 때아닌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되는 등 세계각지의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후난성에서는 지난 달 12일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17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했다고 국영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다. (동아 98. 4. 15)

## 중국 장시성서 선박 전복, 농부 43명 사망

중국 동부 장시(江西)성의 한 호수에서 승객을 초과해 실은 선박이 전복돼 농부 42명이 숨졌다고 문화보(文匯報)가 1일 보도했다. 또 지난달 29일 양자강 입구에서 1만5천급 복한 화물선 다송호가 중국 화물선과 충돌, 복한 승무원 1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문화 98. 5. 1)

## 在美단체 엔지에 이산가족사무소 설치

미국 남가주 이북도민회 연합회(회장 김도우)가 오는 7월 말까지 독자적으로 중국 엔지(延吉)에 이산가족 연락사무소를 설치, 이곳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98. 5. 13)

**베이징에빌딩서점개점 中최대11층규모**  
중국 최대 서점으로 자리잡을 베이징시단(西單)창안제(長安街)의 투수다사(圖書大廈)가 18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지하3층 지상8층으로 이뤄진 이 빌딩서점은 베이징 시가 내년 10월1일의 건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해온 프로젝트로 전통의 신화(新華)서점과 외국어서점, 중국서점이 공동 투자해 결실을 보게 됐다. (한국 98. 5. 16)

## 조선족 장애인들의 재활 센터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에도 장애인 훈련센터가 세워져 장애인 취업에 돕고 있다. 1993년 6월 시작된 조선족 및 중국인을 위한 직업훈련의 장이다. 훈련센터는 연변장애인연합회와 한국 밀알복지재단과의 합의로 건립됐다. (조선 98. 5. 21)

## 황하유역 인공강우 시도

중국은 황하(黃河) 상류 유역의 가뭄을 막기 위해 3년에 걸친 인공강우 시도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황하 상류에 위치한 칭하이(靑海)성 당국은 6억㎡의 비를 내리게 한다는 목표로 항공기와 로켓·대포 등을 동원해 비를 불러오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국민 98. 5. 23)

## 중국서 항암제 '캅라이트' 열풍

중국에서 새로운 항암 특효주사제 '캅라이트(康萊特)'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의 국가 중의약국이 18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캅라이트'는 전통중약재 울무쌀에서 수퍼항암제에스트라제를 추출해 제조한 것으로 중국 국내의 전문가들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 98. 5. 23)

## 중국 후난성에 폭우, 30명 사망

중국 후난성에서 최근 사흘동안 계속된 폭우로 큰 홍수가 발생, 30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쏟아진 1백~1백40mm의 폭우로 성도인 창사(長沙) 등 성내 11개 도시에서 이같은 인명피해 외에 1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죽고 5만7천5백ha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98. 5. 27)

## 중국 "당대유리그릇 제조" 첫증거발견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최근 산둥성 칭저우시에서 당나라 때 이미 유리그릇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98. 5. 27)

## 한·중 관계

### 서울~엔타이 직항노선 신설

아시아항공은 10일부터 서울과 중국 엔타이(煙臺)를 잇는 정기 직항노선을 신설, 주 4회 운항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엔타이 노선은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를 자유여행지역으로 지정기로 한 뒤 개설되는 첫 직항노선이며 아시아항공은 올초부터 이 지역에 대한 취항준비를 해왔다. (국민 98. 5. 7)

### 인터넷서 중 고급정보 제공, 한글사이트 등장

한국 기업들의 대 중국투자와 상품 거래, 인력 고용 등을 증대할 뿐 아니라 최신 중국 시장동향 등 각종 고급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글 인터넷사이트가 등장했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광투자 자문 주식회사(대표 정우섭)는 최근 '중국신문(www. wojojo.co.kr)'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회원제 운영에 나섰다. (조선 98. 5. 24)

### 중국, 한국 자유관광지역 지정

중국은 한국을 12억5천만 명이 이르는 자국민의 자유관광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권병현(權丙鉉)주중 한국 대사에게 공식 통보했다. 천젠(陳健)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이번결정은 한국이 조속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중국의 뜻이 들어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조건없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 98. 5. 7)

### 후진타오 중국부주석 한국 방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부주석 겸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중필(金鍾泌)총리서리 초청으로 지난 4일 말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후부주석은 방한중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을 비롯해 김수환(金守漢)국회의장, 김충리서리, 여야 정당 지도자 등

과면담, 한·중간 선린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 및 한반도정세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민 98. 4. 25)

**한·중 항공편 등 여행자유 금명 실무협의**

중국정부는 지난 달 5일부터 한국을 자유관광대상지역으로 지정, 이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앞으로 △관광상품 취급 여행사 지정 △쌍방 여행시간 보증금 예치 △여행사 난립 방지책 등에 한 실무협의를 갖게 된다.

(국민 98. 5. 6)

**중국 “한국기업 인수하자” 언론서 첫 거론**

한국의 환율과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을 계기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현재 한국의 주식가격과 원화 가치 하락,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상장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자본시장을 대외에 개방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 중국의 실력있는 단위와 기업들이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자본시장을 통해 한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지분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98. 5. 10)

**중국~제주 직항노선 7월 개설**

오는 7월 중 중국과 제주를 직접 오가는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돼 중국 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중국~제주간 직항노선 개설은 중국이 한국을 해외여행 자유국에 포함시키고 한국이 중국관광객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중국관광객의 제주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 98. 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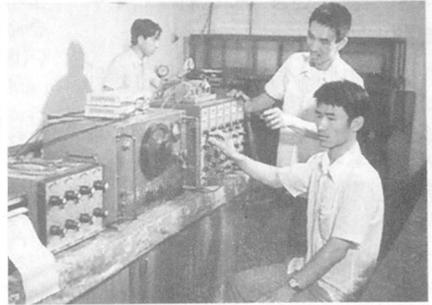
**LG화학, 중국 4곳 PVC공장 준공**

LG화학은 중국과 75대 25의 지분으로 1억4천만달러를 투자, 중국 텐진(天津)시와 련윈강(連雲港)시에 4곳의 폴리염화비닐(PVC), 분산염료, PVC바닥재 생산공장을 설립,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 98. 5. 21)

**삼성 ‘SM시리즈’ 중국상륙**

삼성자동차는 지난 19일 홍콩에서 영국 스와이어 그룹의 자회사인 타이쿠 모터스 주관으로 첫 해외 신차발표회를 갖고 SM5 시리즈의 중국시장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이번 홍콩 발표회를 시작으로 6월 중순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신차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말부터는 현지판매에 들어가 연간 2천대를 중국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국민 98. 5. 22)



(조선 98. 5. 25)

**한국중소, 중국신공항 레스토랑-커피숍운영권 획득**

중국이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옆에 최신 공법으로 건설 중인 신공항 청사의 국제선 상업지역내 독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커피숍 운영권을 98년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인 ㈜금원신역(錦源新易)이 따내는 개가를 올렸다.

(문화 98. 5. 23)

**한솔, 상하이 신문용지 공장 준공**

한솔제지는 중국 상하이시에 건설한 신문용지 생산 합작법인 상해 한솔포넌철사(SHP, 상해한솔잠력지업유한공사)의 공장준공식을 가졌다.

**베이징 시, 서울시와 협력 강화**

중국 베이징 시 정부는 도시 건설, 관리, 경제, 교역 및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아킨링 베이징 시장이 밝혔다.

(조선 98. 5. 25)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중국 주택 무상분배제 7월1일부터 없어진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제도 아래서 장기간 실시해 온 주택 무상분배제도(福利分房)를 오는 7월 1일을 기해 폐지하고 대신 주택 수당을 화폐로 지급하는 ‘주택분배 화폐화’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인민일보 해외판이 4월 22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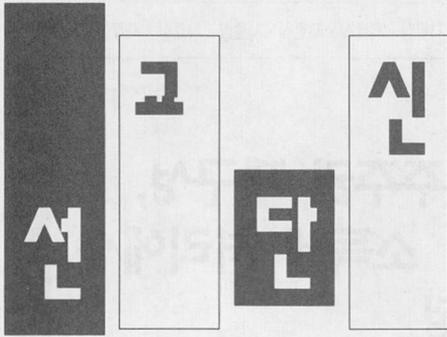
이 신문은 중국 국무원 주택개혁판공실 책임자의 말을 인용,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복지분방’을 중지하는 동시에 주택 보조금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주택 보조금 제도의 수혜 대상자는 무주택자, 빈곤가구 및 주택분배 표준 미달가구 등이라고 신문을 덧붙였다.

국무원의 최종 비준을 남기고 있는 주택분배 화폐화 제도는 주택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새 주택을 정부가 팔기만 하고 임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장인은 자신의 저축과 함께 직장의 보조금, 주택 적립금 및 은행 용자를 가지고 정부가 건설하는 경제형주택(經濟適用房)을 매입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개인은 주택 가격의 20%~3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직장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주택 보조금은 소재지의 주택 가격, 현지의 평균 가구 소득수준 및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주택면적 등의 요인을 근거로 보조금의 액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만약 주택 가격과 소득의 비율이 4배~5배 미만이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 『베이징저널』 제46호



훈련기간: 9월 6일부터(약 1년간)  
 대상: 전문인 사역에 헌신한 자 및 관심자  
 자세한 문의는 BTC 본부로  
 TEL. 02) 887-7159

### 선교정탐훈련 9기훈련생 모집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KAAP)에서는 복음에서 소외된 미전도종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연구하며, 그들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9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훈련비: 13만 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로  
 TEL. 02) 402-4967 FAX. 02) 402-4968

### '98 선교 한국

청년대학생들에게 선교적 비전을 제공하고, 선교 현장에 동원하기 위한 선교한국 대회가 열린다.

주제: "21세기 선교를 향한 최후의 개척자들"  
 기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장소: 부천실내체육관  
 자세한 문의는  
 TEL. 02) 555-2713

### CAMPUS BTC 훈련생 모집

한국 BTC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BTC 훈련을 통해 비즈니스를 통한 전문인 선교를 이해하도록 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모집기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훈련기간: 7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훈련내용: 노동과 사업에 관한 체험훈련  
 사업과 선교에 관한 이론교육  
 선교현장 비전 트립  
 대상: 선교와 장사에 관심있는 크리스천 대학생  
 자세한 문의는 한국BTC로  
 TEL. 02) 887-7159

### BTC 17기 훈련생 모집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 성숙과 사업가로서의 직업적 전문성을 비롯하여 선교사로서의 사역적 전문성을 갖춘 탁월한 비즈니스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이 훈련을 실시한다.

모집기간: 7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 인터넷 네트워크 훈련생 모집

인터넷에서는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헌신자들에게 4개월동안 집중적인 적응훈련을 실시한다.

대상: 중국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기간: 98년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교육부로  
 TEL. 02) 796-3541(내선 2번)

### '98 여름 비전 트립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타문화권에 대한 연구와 이슬람국가들을 향한 복음전도의 책임을 갖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관심자들과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비전트립을 갖는다.

일시: '98년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지역: 이스탄불→불가리아, 앙카라→터어키, 모로코→영국, 이집트→이스라엘→영국 등  
 접수마감: 7월 15일까지  
 참가비: 185만 원  
 자세한 문의는 FIM국제선교회로  
 TEL. 02) 847-5989, 835-5256 FAX. 02) 841-6783

# 외국투자기업 합병, 분립, 주주권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의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임시규정

국가세무총국 1997년 4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고 칭한다) 및 그 시행세칙 유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아래에서는 기업이라 한다)의 합병하는 것을 분리, 주권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 중 영업활동에 관한 지속성 인정, 자산 원가 계산, 세수 특혜와 적자이월 등의 세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一. 합병 기업의 세무처리

합병이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유관 법률과 법규에 따라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해산한 각 기업을 합병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새로운 기업을 신설합병(또는 해산합병)이라 한다. 합병에 참여하는 한 기업이 계속 존속하고 기타 각 기업을 해산하여 존속하는 기업에 합병시켜 성립한 기업을 흡수합병(또는 존속합병)이라 한다.

기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합병하든 간에 모두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합병 전 기업의 주주(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합병 후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 합병 전 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법률규정의 절차를 통해 합병 후의 기업에서 상속한다. 기업의 합병 전후 영업활동은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세무처리를 한다. 무릇 합병 후 기업이 유관 법률규정에 의해 여전히 외국 투자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그 유

관 세무사항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 (一) 자산 원가계산에 대한 처리

합병 후 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 그리고 주주권익은 마땅히 합병 전 기업의 장부대로 원가계산을 하며, 기업 합병을 위해 유관자산 등 항목에 대해 진행한 평가가격으로 조정해서는 안된다. 모든 합병 후의 기업이 회계 손익 계산에서 평가가격으로 유관 자산 장부가격을 조정하고 또 이를 근거로 감가상각 혹은 분할상각 했을 경우 연간 소득세 납부금을 계산하고 신고할 때 아래 방법 중의 한 가지로 조정한다.

1. 실제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자산 가격은 변화한 원인으로 매년 납세 연도에 감가상각 혹은 분할상각 등 방식으로 당기 원가와 비용의 액수를 실제보다 더 계산했다거나 혹은 적게 계산했을 경우, 연도 납세 신고의 원가비용 항목에서 조정하고 상응된 증가 혹은 감소는 조정하여 당기 소득세 납부금액으로 한다.

2. 종합조정, 자산 가격변동의 액수에 대해서는 자산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10년을 주기로 연도 납세신고의 원가, 비용 항목에서 조정하며, 매년 연도 소득세 납세 금액은 이와 상응되는 증가 혹은 감소를 한다.

이상 조정방법의 선택은 기업에서 신청하며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업에서 연도납세를 신고할 때는 마땅히 유관 계산 자료를 함께 추가하여 주

這苹果不錯，诘不诘？ / Zhè píngguǒ búcuò, tiánbùtián?

(저 핑귀 부추오, 티엔 부 티엔?) 이 사과 괜찮아 보이는데, 달아요?



각기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신설분립(또는 해산분립)이라 한다. 원기업이 계속 존속하고 그의 한 부분이 분리하여 하나 혹은 여러 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때, 이를 과생분립(또 존속분립)이라 한다. 기업이 어떠한 방법을 채용하여 분립하든지 모두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분리 전 기업의 주주(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전부 혹은 부분을 각 분립 후의 기업의 주주로 결정할 수 있다. 분립 전 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법률규정의 절차와 분립협의의 약속에 따라 분립 후의 기업에서 계승한다.

기업은 분립 전후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마땅히 지속된 영업활동으로 세부처리를 한다. 모든 분립 후의 기업에서는 유관 법률규정에 따라 여전히 외국투자 기업에 속하는 경우, 그의 세무사항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一) 자산 원가계산의 처리

분리 후 각 기업의 자산, 부채와 주주권은 마땅히 분리 전 기업의 장부기재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야 하며 기업이 분립을 위해 유관자산 등 항목에 대한 평가가격으로 원래 장부의 가격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분립 후의 기업에서 회계가 손익을 계산할 때, 평가가격에 따라 유관자산 장부가격을 조정하고 또 이를 근거로 감가상각 했거나 혹은 할당상각 했을 경우, 연도 소득세 납부금을 계산하고 신고할 때 마땅히 본 규정 제1조 유관 기업합병의 “자산 원가계산의 처리” 조항 중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조정한다.

#### (二) 세수특혜의 처리

분립 후의 각 기업에 대해서는 각기 그 생산경영상황을 근거로 세법 및 그 시행세칙의 유관규정에 따라 세율인하 적용여부와 분립 전 기업의 정기 감면세 특혜 향유 여부를 확정한다.

1. 분립 후 기업의 생산경영업무가 세법에서 규정한 유관 세수특혜 적용범위에 부합되는 기업: 분립 전 유관 세수특혜 기간이 만기가 되지 않은 기업은 분립 후의 기업이 만기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분립 전 벌써 유관 세수특혜 기간이 만기가 된

기업은 분립 후 기업에서 새로이 본 항의 세수특혜를 누릴 수 없다. 분립 전 기업의 생산 경영업무가 유관 세수특혜에 적용되지 않는 기업이 분립 후 특혜에 적용되는 업무로 바뀔 때 분립 후의 기업은 분립 전 기업이 이익을 얻은 연도부터 계산한 세수특혜 기한중에서 남은 기한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2. 분립 후 기업의 생산경영 업무가 세법규정의 유관 세수특혜 적용범위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유관세수특혜를 누리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다.

#### (三) 전기 적자에 대한 처리

분립 전 기업에서 경영적자를 아직 보충하지 않았을 경우, 분립협의 약속에 따라 분립 후의 각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세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보충기한인 남은 기한 내에 분립 후의 각 기업이 매년 연속 보충한다.

### 三. 주권 재구성의 세수처리

주권 재구성이란 기업의 주주(투자자) 혹은 주주가 지니고 있는 지분액수 혹은 비율의 발생변화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주권양도란 즉 기업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 혹은 주식의 부분 혹은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자금을 늘려 주식을 확대하는 것은, 즉 기업이 사회로부터 주식을 모집하고 주식을 발행하며, 신주주가 투자하여 주식에 가입하거나 혹은 원주주가 투자를 증가하여 주권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본을 증가하는 것이다. 기업의 주주재구성은 그 주주의 투자 혹은 교역행위가 기업주주 구조의 재구성에 속하고 기업의 존속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업은 청산절차를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업의 채권과 채무관계는 주주 재구성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주주 재구성시 언급되는 유관 세무사항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一) 주주양도 수익의 처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지니고 있는 기업의 주주 혹은 주식으로 얻은 수익을 양도할 때, 세법과 그 시행세칙 및 유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실제 양도가격에 따라 양도받는 측의 유관자산 장부항목에 기입한다. 만약 양도받은 자산항목이 복잡하거나 혹은 상업신용과 경영업무를 함께 값을 정하여 양도받을 경우에, 각항 자산의 양도가격을 각기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유관 자산을 양도하는 측 장부면의 순수액에 따라 양도받는 측의 유관 자산 장부의 항목에 기입한다. 그 실제 양도 총가격과 그 유관자산 장부면의 순금액간의 차액은 상업신용 혹은 경영업무를 양도가 금액으로 단독으로 양도받는 측의 무형자산으로 한다. 자산은 양도받은 날부터 10년이상으로 평균 할당 할 수 있으며 자산을 양도한 후의 기업은 남은 경영기간이 10년이 안 될 경우 기업이 남은 경영기간 내에 평균 할당한다.

**(三) 세수특혜에 관한 처리**

자산양도와 양도받은 쌍방은 자산양도후에도 그 생산 경영업무를 바꾸지 않았을 때 마땅히 원래 세수대우를 계승하며, 그 중 정기 감면세 특혜를 받는 기업은 자산 양도의 원인으로 또다시 감면세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자산양도 혹은 양도받은 측의 기업은 자산양도 후 생산경영업무를 바꿨을 경우, 무릇 원래 유관 세수특혜에 적용되었던 업무를 특혜에 적용되지 않는 업무로 바꾼 기업은 자산양도 후 이 세수특혜를 계속 누릴 수 없다. 원래는 세수특혜에 적용되지 않던 업무로부터 특혜에 적용되는 업무로 바뀌었을 때, 그 기업이 이익을 획득한 연도부터 계산하여 세수특혜 기한의 남은 기간 동안 특혜를 받을 수 있다.

**(四) 전기 적자의 처리**

자산양도와 양도받은 쌍방이 자산양도 전후에 발생한 경영적자는 각자가 세법 제11조 규정의 적자보충 연한 내에서 매년 보충한다. 기업에서 부분 또는 전부자산 및 전부업무를 양도하든지 막론하고 기업영업적자는 자산양도자와 양도받은 쌍방간 상호 이월해서는 안 된다.

**五. 합병, 분립, 주주재구성후의 기업은 그 내부자금과**

**외국자본의 주식비율이 유관 외국인 투자기업 법률규정 비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수법률, 법규, 규정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외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득세법률, 법규에 계속 적용되지 않으며 마땅히 내자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률, 법규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다. 동시에 마땅히 아래의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一) 무릇 재구성 전 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지니고 있는, 주식을 기업의 재구성 업무에서 탈퇴하지 않고 벌써 병합했거나 혹은 부분 합병 및 분리 후의 기업 혹은 주주 재구성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구성 전의 기업의 경영기간이 길고 짧든지 막론하고, 모두 세법 제8조에 유관 이미 면제한 징수와 징수감면에 대한 보충납부 세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二) 무릇 재구성기업의 외국투자자는 기업의 재구성 업무 중에서 본래 지니고 있는 주식을 탈퇴 혹은 국내 투자자에게 양도할 때, 재구성 전의 기업의 실제 경영기한인 정기 감면세 특혜의 규정기한에 적용한 기한이 차지 않을 때, 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면제한 징수와 감면한 징수의 기업소득세를 보충 납부한다.

**六. 중국국내에서 기구와 장소를 설립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이 합병, 분립, 주주재구성, 자산양도 등의 재조직업무가 발생할 때, 중국경내의 기구, 장소의 유관세무사항에 대한 처리는 본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七. 본 규정은 1997년도부터 실시한다. 유관세무기관은 이전 연도 사항에 따른 처리가 본 규정의 내용과 다를 때, 마땅히 1997년도부터 본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무릇 1997년 이전 연도의 처리결과가 1997년 및 이후의 연도세무처리에 영향을 미칠 때, 1997년 이전 연도의 처리 경과는 원칙상 마땅히 본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번역/ 金春松 아태지역연구센터 부연구원  
출처/ 『中蘇研究』, 76호 중에서

# 선교도서안내



##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 |                                      |        |
|--------------------------------------|--------|
| 1. 만남(중국성도 간증 소책자)/ 中國語文宣教會 번역       | 2,000원 |
| 2.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Tape:1,000원) | 1,500원 |

## 중국어 학습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信仰讀本                            | 5,000원  |
| 6. 구약성경 이야기 (Tape 25개)             | 25,000원 |
| 7.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토 출판사) | 900원    |
| 8.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 35,000원 |
| 9. 중조양어 대조와 오류분석                   | 18,000원 |
| 10. 중국어 찬양 Tape                    |         |
|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 4,000원  |
|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4,000원  |
| ◆ 是愛(사랑은)                          | 3,000원  |
| ◆ 奉主耶穌的名                           | 3,000원  |
| 11. 종합선교중국어                        | 8,000원  |
| 12. 讚美歌                            | 5,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배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 중국선교훈련원(M.T.I for CHINA) 13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 상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참가인원	10명 내외.
선 발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생활중국어와 선교 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화.

###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98년 6월 15일~98년 7월 31일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등록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 1통, 위탁서(소정양식)-1통

원서대금 및 접수비 : 원서대금 2,000원, 접수비 10,000원

### 개강예배

### 98년 9월 1일(화) 오전 9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 후 련 내 응

<b>언어(선교중국어) 집중훈련</b>	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함.
<b>교육내용</b>	1학기(8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2학기(8주) 중국어성경,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신앙독본, 정력 훈련
<b>연구(중국문화 및 선교 연구세미나)</b>	매주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
<b>세미나 주제</b>	중국선교개관, 중국고대사상, 중국의 정치, 중국문화 개관, 중국역사, 중국의 종교정책, 중국의 교육제도, 유교사상의 이해, 중국교회 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중국기독교사, 중국 선교지리, 최근 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근대 중국선교사와 선교방법론, 중국의 미전도종족, 타문화권 선교,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등
<b>합숙(중국어 공동 체훈련)</b>	2회에 걸친 합숙훈련을 통해 강도높은 언어실습, 공동체 섬김 및 문화충격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b>현지 연수과정 및 답사</b>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8년 12월 중에 현지언어연수(4주) 및 답사(10일)를 실시.
<b>훈련기간</b>	1998년 9월 1일~1999년 2월 30일(6개월)
<b>일 시</b>	매주 월요일~금요일.
<b>훈련비용</b>	국내 4개월동안 98만원 (4개월 중 합숙 2회 20만원, 교재비등 별도)

문의 및 접수처/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535-4255, 594-8038 FAX : 599-2786 담당: 이성은 주임

##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박성주 장로)은 중국선교를 위한 언어 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14기 훈련은 99년 3월에 개강합니다**

[[[ 소개자 소개

## 眞理의 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틀(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틀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개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개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심영아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1999학년도

중국선교사  
훈련원  
훈련생모집

본 훈련원에서는 중국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하여 현지 사역에서 필요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현지 훈련을 통한 적응능력을 함양하여 중국전문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비 중국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대상**

1. 중국선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기간**

1999년 3월 2일~2001년 2월 28일  
2년(평일 주간) - 국내교육, 해외실습

**훈련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격훈련

공동체훈련

은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실습

중국어: 기초에서 자유로운 언어 구사와 설교능력 배양

중국선교사역학

중국학

일반선교사역학

**교육장소:** 본원(서울 중구 정동 25번지)

**전형방법:** 서류/필기시험/면접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연중교부/1998.11.30 마감

**모집인원:** 〇〇명

**제출서류:** 본인지원서 /신앙고백서 /최종학교졸업, 성적증명서  
사진 2매(3×4) /추천평가서 2통(담임목사,교우)

**시험일자:** 논술(1998년 12월 7일)

면접(1998년 12월 8일~9일)

**합격자 발표:** 1998년 12월 21일

**개원일자:** 1999년 3월 2일

**특 전:**

1. 본 훈련원 졸업시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ry)의 인준학위인 중국선교학 석사(Master o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inistries), 중국선교학 증서(Diploma of China Ministries)를 수여함.
2. 각종 장학생 혜택(성적, 애화, 생활, 근로) 장학제도 있음.

**문 의:** 전화 02)318-3956

팩스 02)773-6278

# 편집후기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8년 7·8월호(통권52호)

발행처/ 시립(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종선·김중하·김피득  
왕쓰웨이·지인성·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이민선·김은희  
편집디자인/ 안상희

## 중국을 주제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8년 6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 02) 275-5963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4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30,000원)

## 중국어문선교회

###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 137-069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 137-069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 인천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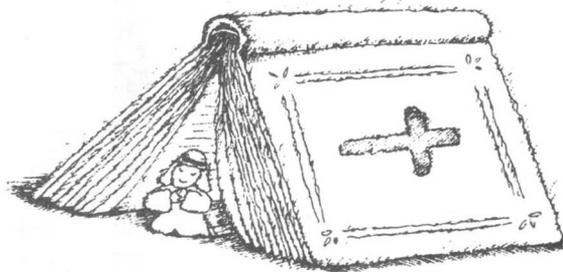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B01호  
전화: 032)872-0742

요즘 우리는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고효율'이란 단어에 익숙해져 가는 듯하다. 경제의 고효율, 정치의 고효율, 교육의 고효율 등등.

IMF시대도 더욱 강조되는 것이겠지만, 최소한의 적절한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극히 온당한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에도 이 '고효율'은 필요하지 않을까?

IMF여파도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도, 우리의 중국 선교가 계속 되어야 한다면, 먼저 선교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선교의 우선순위를 자리매김 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그야말로 국내외 우리 모든 헌신자들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절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 국의 정기구독료(1년)

###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36,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1,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30,000원, 우편료 19,200원, 합계 43,2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55,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제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세요.

### ☆인터넷 홈 페이지

[www.Dadream.co.kr/~sinim](http://www.Dadream.co.kr/~sinim)

### ☆E-mail

[sinim@chollian.net](mailto: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하이텔

sinim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잡지입니다.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8.4.1~2000.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8.4.1~2000.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시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 독자카드(1998년 7.8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시시오.

##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30,000원(6권)    2년 60,000원(12권)    3년 90,000원(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우 - )		(통 반)	출석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			(통 반)

**전화신청 및 문의 02) 533-4597, 02) 592-0132**

# '중국을 주께로' 월례 중보기도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선교의 모든 문들이 닫힌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

『중국을 주께로』 월례 중보기도가 98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양 팔을 붙들고,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로 후원하실 여러분들을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저녁 7:00~9:00)**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잠깐 !! 그 외,

매주 첫째, 둘째, 넷째 월요일은 저녁 6:30~8:30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가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전화: 02)592-0132, 594-8038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천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 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 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합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신교 시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